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니타이드 홀게지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871
1-833-846-4004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세계와 만나는
창
The Korea Daily
“미국의 중심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1165호

Monday, November 4, 2024 A

성·인종 대립 극심한 ‘대선 내전’ ... 누가 돼도 후유증

극과극 대선후보, 지지층도 두쪽 나
해리스, 여성·유색인종·대졸자 지지
트럼프, 남성·백인·저학력층 호응커
유권자 27% “분열할 폭력사태 우려”



지난 2일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유세하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여성 지지자가 많다. 오른쪽은 1일 위스콘신에서 유세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백인 남성 지지자가 다수다.



지난 2일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유세하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여성 지지자가 많다. 오른쪽은 1일 위스콘신에서 유세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백인 남성 지지자가 다수다.

아프리카·인도계 부모를 두고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검사 출신 여성 카말라 해리스(민주당 대선후보). 백인 들만 모여 사는 동부 뉴욕 부촌에서 태어난 부동산·카지노 사업가 출신 남성 도널드 트럼프(공화당 대선후보).

공통점은 드물고 거의 모든 면에서 극과 극처럼 대척점에 선 두 후보는 대선 레이스를 거치며 두쪽 난 미국 사회를 압축한 듯하다. 비영리단체 국제위 기그룹(ICG)은 최근 ‘2024년 미국 대선을 둘러싼 폭력 위험’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파적 양극화가 매우 높아 선거와 관련된 폭력의 위험이 실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경합주마다 불과 수천 내지 수만 표 차로 승부가 갈릴 것으로 예상되는 각축전 속에서 미국 사회에는 젠더(성)·인종·학력을 축으로 한 3개의 전선이 뚜렷하게 그려졌다. 남성 대 여성, 백인 대 비(非)백인, 저학력층 대 고학력층 간 대치 전선이다. 남성·백인·저학

력층은 트럼프 전 대통령, 여성·비백인·고학력층은 해리스 부통령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번 대선은 어느 때보다 성별에 따른 정치적 분열 양상이 짙다. 2일(현지시간) 여론조사업체 퓨리서치에 따르면 트럼프는 남성 유권자에게서 8%포인트 더 많은 지지를, 해리스는 여성 유권자에게서 9%포인트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4년 전 대선 때보다 벌어지긴 했지만 백인 대 흑인·히스패닉 등 인종 간 대결 구도도 여전히 강하다. 지난달 31일 공개된 이코노미스트·유거브 여론조사에 따르면 백인의 트럼프 지지율은 52%로 비교적 높았지만 비백인 지지율은 42%에 머물렀다. 반면에 해리스에 대해서는 흑인과 히스패닉의 지지율이 각각 75%, 52%였다.

학력에 따른 차이도 부각된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는 평균적으로 대학 학위가 없는 유권자에게서 해리스보다 10%포인트 더 높은 지지를 받은 반면, 해리스는 대학 학위가 있는 유권자에게서 19%포인트 더 높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들이 결합하면 대비는 더욱 극명해진다. 트럼프는 대학 학위가 없는 남성 유권자에게서 해리스보다 16%포인트(트럼프 55%-해리스 39%) 더 많은 지

지를 얻는 반면, 해리스는 대학 학위를 취득한 여성 유권자에게서 트럼프보다 27%포인트(해리스 61%-트럼프 34%) 많은 지지를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쪽 진영 간 골이 깊어지면서 물리적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18~21일 유거브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의 84%는 ‘10년 전보다 미국이 더 분열됐다’고 답했으며, 27%는 대선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거나 어느 정도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가 ‘제2의 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응답한 비율도 27%에 달했다.

데이나 배시 CNN 앵커는 지난 9월 펴낸 책 『미국의 가장 치명적 전쟁』에서 “싸움자(Fight)를 외치며 상대를 파멸시켜야 할 적으로 보는 미 역사상 가장 잔인한 선거가 벌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초박빙인 경합주 개표에서 판정이 빨리 나지 않을 경우 혼란은 가중될 수 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이번 선거의 투·개표 절차와 유권자 명부 자격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 관련 소송을 130여 건 제기해둔 상태다.

▶ 관계기사 2면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첫 한인 상원의원 탄생 유력



앤디 김 지지율 20%p 앞서

뉴저지 연방상원 의석에 도전 중인 앤디 김(사진) 후보가 부동의 지지율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실시된 두 여론조사에서 상대 공화당 후보를 20% 포인트에 가까운 압도적 우세를 보였다.

지난 30일 공개된 페어레이 디킨슨 대

학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후보는 뉴저지 내 응답자 지지율 57%를 보여 39%를 보인 경쟁 후보 커티스 배쇼를 무려 18%포인트 차이로 리드했다.

더 나아가 같은 날 공개된 럿거스대학 주관 여론조사에서도 김 의원은 47%의 지지율을 기록해 배쇼(19%)를 크게 따돌렸다.

조사 대학들은 김 후보가 2021년 의회 폭동 사태에서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밤메넨데스 현역 의원의 비리와 추문을 강력히 문제 삼았다고 설명했다. 최인성 기자



뭉게 물든 단풍 속으로

3일(한국시간) 오후 전남 장성군 백양사를 찾은 나들이객들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예년 같으면 단풍이 절정에 이를 시기지만, 가을 무더위 등으로 인해 올해는 단풍이 늦게 물들었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김종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매입
순금 야기 물받지 않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6.25 참전 유공자회 워싱턴지회 창립 제33주년 기념

6.25 참전 유공자회 워싱턴지회는 1991년 9월 1일 참전유공자 4명이 모여 6.25 남침의 참상을 회고하면서 워싱턴 지역에서 조국의 안보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적극 참여하고 반공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창립된 지 33년 동안 많은 발전과 업적을 이루었으며, 더욱 발전을 하기 위해 회원 가족들과 함께 참석하시어 창립 제 33주년을 축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표창장 수여 ② 공연 (난타, 창, 춤)

▶ 일시 : 2024년 11월 9일 (토) 정오 12시
▶ 장소 : 코리안커뮤니티센터 (571-395-5025)
6601 Little River Turnpike, Alexandria, VA 22312
▶ 연락처 : 회장 443-878-2018 / 행사 부회장 202-701-8183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워싱턴지회 회장 손경준

“트럼프, 정적 복수에만 집착” vs “해리스, 이기면 대공황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카밀라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간 판세는 박빙이다. 지난달부터 '7대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앞서가는 듯했지만 최근 러스트벨트(쇠락한 북동부 공업지역)를 중심으로 해리스가 선전하면서 승부의 추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있다.

해리스와 트럼프는 2일 선벨트(일조량이 풍부한 남부지역) 경합주 공략에 집중했다. 특히 최근 주요 승부처로 떠오른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선 두 후보 모두 유세 대결을 벌였다. 해리스는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유세하면서 “복수에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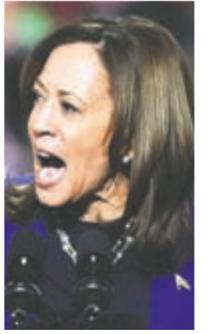
착하는 트럼프는 백악관 집무실에 정적 명단을 들고 들어갈 것”이라며 “나는 당선되면 물가 낮추기가 할 일 목록의 최상위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낙태권 문제도 제기했다. 해리스는 이날 밤 NBC방송 인기 예능프로그램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SNL)'에 깜짝 출연해 자신을 연기해 온 배우 루돌프 마야를 응원하는 역할을 했다. 3일엔 러스트벨트 경합주인 미시간에서 유세했다.

트럼프는 2일 노스캐롤라이나-버지니아-노스캐롤라이나로 이어지는 분주한 유세 일정을 소

화했다. 트럼프는 “카밀라는 경제에 대한 이해가 아이 수준에 불과하다”며 “10월 신규 일자리 수가 허리케인 등의 영향으로 예상을 크게 밑도는 1만 2000개에 그쳤다. 카밀라가 이기면 1929년과 유사한 경제공황에 다가서게 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3일엔 펜실베이니아-노스캐롤라이나-조지아에서 유세했다. 특히 노스캐롤라이나엔 2일에 이어 3일, 4일 사흘 연속 들러 총력전을 벌일 계획이다. 최근 CNN 여론조사에서 해리스에게 1%포인트 뒤지는 등 이상 징후가 감지되고 있어서다.



이승호 기자



사전투표 열기 지난달 31일 미주리주 블루 스프링스 사전투표소 앞에서 유권자들이 길게 줄을 선 채 투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 절반 이상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AP=연합뉴스]

“남편 몰래 해리스? 대선 백인여성에게 달렸다”

NYT, 백인 여성유권자 표심 주목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 성향

초박빙 대결 양상인 대선에서 백인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이 막판 주요 변수로 등장했다.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달 31일 백인 여성은 전체 미국 유권자의 30%에 달한다며 이들이 대선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매체에 따르면 2016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될 때 백인 여성들의 표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 당시 트럼프(47%)는 백인 여성 지지율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45%)을 앞섰다. 2016년 대선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NYT에 “백인 여성들이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나오는 걸 막았다”고 탄원했다. 트럼프가 패배했던 2020년 대선에서도 트럼프의 백인 여성 지지율(53%)은 조 바이든 대통령(46%)을 앞섰다.

이처럼 전통적으로 공화당 대선 후보를 지지했던 백인 여성들이 올해는 “힐러리 클린턴의 패배를 재연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의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행태에 반감을 가진 백인 여성들이 뭉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낙태권 이슈가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해리스 캠프가 여성들에게 “해리스를 찍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해리스 측은 여성용품 판매대 등에 포스트잇을 붙이면서 여성 표심을 공략 중이다.

이 포스트잇에는 “여성 대 여성으로 말한다. 임신중절 권리를 지지하라. 우리는 옛날(트럼프 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We're not going back)”이라고 적혀 있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백인 여성은 가장 중시하는 쟁점으로 경제 문제(29%)에 이어 임신중절(24%)을 꼽았다.

NYT-시에나대 공동조사에 따르면 백인 여성들은 근소한 차이로 해리스를 더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사퇴하고 해리스가 대신한 직후, 백인 여성들이 주최한 화상회의엔 20만 명이 참여해 1100만 달러(약 152억원)를 모아 해리스 측에 기부했다.

중도 성향 백인 여성의 표심이 해리스 측에 기우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중도 여성 유권자들을 주로 상대하는 켈버나이즈 액션의 재키 페인 집행이사는 10개 경합주 중도 성향 백인 여성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9월 기준 해리스 지지율이 올랐다고 밝혔다. 심지어 보수 성향 백인 여성 중에서도 ‘샤이 해리스’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 전략가인 쉐리다 레이크는 “올해 백인 여성 상당수가 남편 몰래 해리스에게 표를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유진 기자

“트럼프 당선 땀 한국 총수출 61.7조 감소”

KIEP '미 통상정책 영향' 보고서 “해리스가 돼도 공급망 재편 가속”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관세 정책을 시행하면 한국의 총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는 국제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일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를 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보편관세(전 수입품에 관세 부과)를 시행하고, 상대국이 같은 수준의 관세를 미국에 부과하면 한국의 총수출액은 53억~448억 달러 감소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미체결국에 관세를 10~20%포인트 추가 부과하고, 중국에 25%포인트를 추가 부과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해 분석한 결과다.

한국의 피해가 가장 큰 시나리오는 미국이 FTA 체결·미체결국에 20%포

인트를 추가 부과하고, 중국에 60% 부과할 때다. 한국에 직접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대미 수출 감소액이 304억 달러, 제3국으로의 중간재 수출 감소액이 116억 달러, 미국으로의 중간재 수출 감소액이 28억 달러로 총 448억 달러가 감소한다.

보고서는 특히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미·중 갈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해리스 부통령이 대중 견제 기조를 이어가 미·중 갈등이 훨씬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종덕 KIEP 무역통상안보실장은 “미국의 통상정책이 심각한 공급망 위기로 확대되지 않도록 다른 국가와의 협력과 공조를 병행해야 한다”며 “글로벌 관세정책이나 공급망 재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유진 기자

워싱턴 날씨 (°F)

5일(화)	76~62	8일(금)	70~52
6일(수)	80~64	9일(토)	67~49
7일(목)	76~53	10일(일)	68~48

11월 4일(월) 68~55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오랜 경력으로 성심성의껏 팔고/사고/렌트해 드립니다.

문&박 1984년 창립 합동법률사무소

〈문&박 합동법률사무소〉는 1984년 이래로 지난 40년간 워싱턴 한인사회와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교육위원회, 도시개발위원회, 인권위원회, 소수계학생문제 자문위원회 등 지역 주류사회에서도 적극 활동하며, 한인동포 여러분을 위해 정확하고 친절한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지식 오랜 경험



문일통 변호사

- Harvard 대학
- William and Mary 법과대학원
- 페어팩스 카운티 현 6선 교육위원
- 페어팩스 카운티 Planning Commissioner(전)
- 버지니아 주지사 도시정책 자문위원(전)
- VA 변호사 자격



박상근 변호사

- 서울 법대, 대학원 졸업
- George Washington 법대 법학 석사
- 전 Fairfax County 인권위원회 부의장
- 전 버지니아 주의회 이민난민 정책위원
- 전 북미주 기독교실업인협회 총연합회 회장
- VA, MD, DC 변호사 자격



우시영 변호사

- Georgetown 법대 법학 석사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 주요 일간지 이민 법률 상담 변호사
- 전 아태법률구조센터(APALRC) 법률 통역
- 전 LG에서 채권 및 담보 업무 담당
- VA, NY 변호사 자격

취급 업무 민/형사 소송, 교통사고, 학생/취업/연수/종교/투자 비자, 각종 이민, NIW, 추방재판/면제, 손해배상, 가정법, 사업체/부동산 매매, 영리/비영리 회사설립, 임대차 계약, 고용 관계, 유서 작성, 상속 수속, 이혼, 입양 등

문&박 합동법률사무소 대표전화 703-941-7395 www.moonparklaw.com
7617 Little River Tpk., Suite 800 Annandale, VA 22003

“한인 과학 꿈나무들의 열정이 빛났다”

한국혁신센터 ‘테크 서밋 2024’ 성황

한국혁신센터 워싱턴 DC(KIC DC, 류시훈 센터장) 개최한 “테크 서밋 2024(Tech Summit 2024)”가 지난 주말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 소재 ‘메리어트 워싱턴리안 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가운데, 차세대 한인 과학자들과, 미래를 펼쳐 나아갈 한인 과학 꿈나무들의 역량이 선보여 관심을 모았다.



테크 서밋 2024 행사에 참석한 드론 리서치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재미한인 과학자협회(KSEA) 워싱턴 메트로 지부 (회장 김교원)는 행사에서 DMV 지역 대학원생들을 위한 발표 세션과 ‘i-드론 리서치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을 위한 포스터 발표 세션을 진행하였으며, 학생들은 지역 과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이날 대학원생 발표 세션에는 물리학, 생물학, 식품영양학 등 다양한 분야의 발표가 이어졌다. 우수 발표상의 영예는 조현진 (UMD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에게 돌아갔다. 세션 채어

말은 김교원 박사 (NASA)는 “참석한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연구에 대해 열정적인 발표를 보여주었다”면서 “발표자들과 청중들 모두에게 각 분야에서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각인 시킨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또한, ‘i-드론 리서치 프로그램’ 포스터 세션에서는 지난 5월 드론 대회에 입상한 두 팀과 상위 입상자 3팀이 KSEA에서 지정한 대학원생 및 박사급 멘토와 함께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학생에게는 영재 리서치 프로그램 수료증이 발급됐다.

프로그램 강사 류영준 박사(존스홉킨스)는 “대부분 드론을 처음 접했던

학생들이 빠르게 성장해, 이제는 스스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구현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류 박사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연구 인턴십, 대회 참가, 학회 참여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i-드론 리서치 프로그램에 참여한 팀 중 세 팀은 이날 말에 열리는 미국 항공우주학회(AIAA)와 존스홉킨스가 공동 주관하는 학술대회 출전권을 얻는 쾌거를 이뤘다. 이 학술대회에서 학생들은 그간 연구한 성과를 존스홉킨스 연구소 강당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박세용 기자

대선 결과로 부동산 시장 ‘변화’

선거 다음해 주택매매 10% 증가 렌트시장 변화 가능성 높아

내년 1월 새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워싱턴 지역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 지역 부동산 시장은 대선을 전후해 상당한 폭의 변화가 불가피했다. 정권 교체마다 연방정부 정부직 공무원들의 대규모 이동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TTR 소더비 부동산의 데니언 헤이더 대표는 “내년 초 인사이동이 시작되면서 렌트비가 눈에 띄게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DC를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의 연쇄적인 렌트비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사이동에 따른 주택 매매 시장 변화는 점치기 어렵다.

헤이더 대표는 “정권 교체기에 워싱턴의 주택 시장에 엄청난 변화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매매시장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전했다.

다. 연방정부로 새로 이직하는 이들 대부분이 곧바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워싱턴 지역에 계속 거주할 의사를 보이는 비율 또한 높지 않아 경제력이 있더라도 곧바로 실행에 옮기기 쉽지 않다.

하지만 전국적으로는 대선 이후 부동산 매매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부동산중개업협회(NAR)에 따르면 1980년대 대선 이후 전국적으로 주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워싱턴 지역의 경우 정권교체 첫해 주택 판매가 10% 증가했다. 내년부터는 모기지 금리 하락이 본격화되면서 주택 매매가 증가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부족한 주택 재고는 시장 상승을 가로막는 요인이긴 하지만, NAR에 따르면 선거 다음 해에 워싱턴 지역의 중간 주택 가격이 평균 5% 상승하는 등 주택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김욱재 기자

소셜시큐리티 은퇴연금 쥐꼬리 인상

올해 8.7%에서 내년 3.2%로 급감

내년 1월부터 과거보다 훨씬 낮은 소셜시큐리티 은퇴연금 인상이 적용될 예정이라 은퇴한 한인들의 걱정이 앞서고 있다.

연방정부는 작년과 올해 소셜연금 인상을 각각 5.9%와 8.7%로 정해 최근 30년래 가장 높았으나 내년에는 3.2%로 인상을 크게 제한했다. 연방정부는 공급난과 높은 물가인상을 탓에 최근 2년간 연금인상이 높았으나 최근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서 연금 인상을 줄여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당수의 은퇴 한인들은 아직도 높은 물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연금 인상을 높게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인 최모씨(75세)는 “배우자와 함께 한달에 2천달러 남짓의 연금으로 살아가는데, 팬데믹 이전에 비해 먹거리 지출액이 30% 정도 늘었지만, 매년 풍족하게 먹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인 이모씨(79세)도 “미국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 부부 합산 4천달러 정도 받고 있지만 고정 수입이 이게 전부라서 내년에 전쟁이 장기화되고 또다시 기름값과 식료품 가격이 오르면 어찌할지 불안하고 걱정된다”고 전했다.

연금이 인상되더라도 노인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납입금도 인상되기 때문에 연금 상각이 지나치게 많을 수밖에 없다. 연방정부는 부담이 가장 큰 메디케어 파트 B의 2025년 인상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최근 20년 동안 매년 메디케어 인상이 연금인상을 앞섰다.

현재 평균 은퇴연금은 1927달러(부부합산 3014달러)로, 내년 인상을 3.2% 적용할 경우 1976달러(부부합산 3089달러)로 49달러(부부합산 79달러) 인상에 그친다. 미망인 연금도 1788달러에 1832달러로 44달러 정도 오를 뿐이다.

현재 은퇴 연금 수령자는 6800만명, 저소득층 및 장애인 SSI 연금 수령자는 750만명이다. 김윤미 기자



VA서 ‘청부살인업자’ 체포

2월 살인사건, 용의자 1명 도주

버지니아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경찰국이 돈을 받고 살인을 실행한 청부살인업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국에 따르면, 최근 체포한 드류 코트니 뷰캐넌(27)은 지난 2월 워싱턴에서 발생한 23세 여성 살인사건의 범인이라고 밝혔다. 용의자는 2급 살인, 총격, 불법 총기 사용 중범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범행 현장에 용의자와 함께 있었던 덴젤 스콧 웨이드(30세)는 도주했으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당국에서는 웨이드가 키 5피트11인치, 170파운드의 건장한 체격으로 검은 머리와 갈색 눈을 가진 흑인이라고 전했다.

살해된 여성은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의 이집트 자포라카터로, 2월 2일 오전 2시 7분경 브론슨 코트와 브릭우드 드라이브 교차로 부근의 차량 안에서 치명적인 총상을 입은채 발견됐다.

당국에서는 누가 두 용의자에게 살인을 교사했는지 등의 정보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버지니아는 살인 교사의 경우에도 살인과 동일한 형량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당국은 이 사건과 관련해 다른 당사자들에 대한 추가 기소가 진행 중이라고 밝히는 등, 사건 혐의자가 더 있다는 암시를 하고 있다. 당국에서는 도주 중인 용의자 웨이드 검거를 위해 적극적인 제보(703-792-6500)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욱재 기자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올니화재

사업체보험
자동차보험
집보험
의료보험
생명보험

광고는 때때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최신형 X-Ray 완비
교정 및 물리치료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너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너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맥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데이빗 맥스 변호사 David L. Marks, ESQ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이사

www.davidmarkslaw.com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형제끼리 부부끼리 ... “지역사회 우리가 지킨다”

사건 최전선의 한인들 ①

LV콘퍼런스 참석한 경찰가족
LAPD 소속 영 박·벤 박 형제
토론토 유일, 찰스·캐런 커플



지난 29일 라스베이거스 하라스 호텔에서 개최된 '2024 한인 경찰 컨퍼런스' 행사장에서 벤 박 KALEO 회장 겸 LAPD 리저브 오피서와 그의 2살 형인 영 박 LAPD 형사(오른쪽)가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

가족이 같은 직업을 갖기는 쉽지 않다. 경찰과 같은 특수한 직종은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형제, 부부가 경찰직에 근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난 29일 '2024 한인 경찰 컨퍼런스(Korean Law Enforcement Conference)'(현지 10월 29일자 A-1면)에서 한인 경찰 가족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우애 좋은 한인 경찰 형제

300여명의 한인 경관이 LA경찰국(LAPD)에서 근무 중이다. 그중에 형제가 있다. 바로 영 박 LAPD 형사와 벤 박 한인경찰공무원협회(KALEO) 회장 겸 LAPD 리저브 오피서다. 박 회장은 이번 콘퍼런스를 기획한 당사자다.

2살 많은 형인 박 형사가 먼저 경관이 됐다. 그는 “동생의 소개로 LAPD를 알게 돼 지난 1997년부터 일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 회장은 “형보다 먼저 경관이 되고 싶었는데 당시 하

던 일을 쉽게 그만둘 수 없었다”며 “먼저 경관이 된 형이 부러웠다”고 언급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07년 LAPD 리저브 오피서가 됐다. 그는 “1992년 폭동을 겪고 경관이 되길 원했다”며 “LAPD 리저브 오피서 제도를 알고 나서 40세 이전에 도전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형제가 경관이라서 좋은 점이 있다. 박 회장은 “경찰 일이 쉽지 않은데 형제가 서로 업무적으로 힘든 점을 이해해 주고 공감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박 형사는 “경관으로서 먼저 경험한 사건

에 대해 벤에게 얘기해주고, 그가 유사한 사건을 맡았을 때 유의해야 할 점들을 당부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단점도 있다. 박 회장은 “먼저 경관이 된 형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간섭을 많이 했다”며 “형이 나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해 내가 출동하는 곳을 따라다니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박 형사는 진심으로 동생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비록 벤이 풀타임 경관이 아닐지라도 위험한 일 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동생이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하는

게 자랑스럽지만, 위험한 지역에서 일하는 것을 생각하면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두 형제는 서로가 자랑스럽다. 박 회장은 “LAPD 내 한인 경찰 형제가 거의 없는데 형과 함께 LAPD 경관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박 형사는 “벤이 한인 커뮤니티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뿐만 아니라 KALEO를 조직해 한인 경관 커뮤니티를 만들고 키워나가는 게 대견하다”고 전했다.

▶토론토경찰국 유일의 경찰 부부

“사진도 찍어야 하나요?” 캐나다 최초 한인 여성 경관인 캐런 이 토론토경찰국 형사가 던진 첫 마디다. 그는 현재 기밀 업무를 수행 중인 관계로 사진 촬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형사는 지난 1998년 남편인 찰스 이 토론토경찰국 형사를 처음 만났다. 찰스 이 형사는 “당시 토론토경찰국에 한인 경관이 많았다”며 “한인 경관들끼리 어울리며 아내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사내 커플에서 부부가 되기까지 이들 뒤에는 양가 부모의 지원이 있었다. 캐런 이 형사는 “경찰 업무가 어려운 일인데 이 업무를 이해해줄 수 있는 남편

을 만났다는 사실에 부모님께서 좋아하셨다”고 전했다. 찰스 이 형사도 “부모님이 아내가 경관이라는 사실을 반가워했다”며 “결혼을 적극 지지해주셨다”고 밝혔다.

경찰 부부의 장점은 바로 서로를 이해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캐런 이 형사는 “가장 가까운 우리 두 사람이 서로를 지지해주고 있다”며 “서로가 겪는 업무적 고충을 알고 이해해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단점도 있다. 찰스 이 형사는 “장시간 근무해야 하고, 또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가족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육아 부담도 어려웠다”고 전했다.

위험이 뒤따르는 직업 특성상 두 사람은 서로가 걱정되지만, 동시에 서로를 믿고 있다. 캐런 이 형사는 “남편이 제시한 집에 오지 않거나, 연락이 안 되면 걱정된다”며 “그래도 찰스가 실력 있는 경관임을 알고 또 그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찰스 이 형사도 “아내가 위험한 임무를 맡으면 당연히 걱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캐런은 캐나다 최초의 한인 여성 경관이고 베테랑”이라며 “나 역시 캐런을 믿고 그의 동료들을 신뢰한다”고 밝혔다. 글·사진·김경준, 정윤재 기자

맥도날드 이콜라이 감염 최소 90명 피해

맥도날드의 쿼터 파운더에 들어간 양파로 전국에서 최소 90명이 대장균 '이콜라이'에 감염됐다. 이로 인해 맥도날드가 법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LA타임스에 따르면 현재까지 최소 27명이 입원했고, 최소 33명의 감염 피해자가 맥도날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명은 심각한 신장 합병증을 앓고 있으며, 콜로라도에서는 1명이 사망했다.

감염된 양파는 살리나스에 본사를 둔 농업 생산업체 '테일러팜스'가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테일러팜스는 지난주 자발적으로 양파를 리콜한다고 발표했다.

버거킹, 타코벨, KFC, 피자헛 등 여러 패스트푸드 체인도 해당 양파 사용을 중단했다. 맥도날드는 이번 주부터 쿼터 파운더 판매를 재개했다. 정윤재 기자

안창호기념관 건립 기금 한국정부, 30% 지원 약속

내년 설계공모 후 2026년 착공 “가주·연방 정부에도 도움 요청”

미주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가 도산안창호기념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청사진을 제시했다.

미주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회장 광도원·이하 도산기념사업회)는 리버사이드 도심 10에이커 공공부지에 건립될 도산안창호기념관 건립사업에 한국 정부와 자치단체, 대학, 개인 및 단체에서 참여 의사를 보였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도산기념사업회는 지난달 28일 리버사이드의 패트리시아 도슨 시장과 시의원 등과 만나

한국 방문 성과를 전달하고, 10에이커 부지 위치 변경과 지방 및 연방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도산기념사업회 광도원 회장은 “10월 한국을 2주 동안 방문해 국가보훈부, 강남구 관계자와 만나 도산안창호기념관 건립사업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며 “한국 정부는 도산안창호기념관 건립 시 비용의 약 30%를 지원할 의사를 보였다. 또한 리버사이드와 자매결연을 맺은 강남구도 2년 연속 2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말했다.

광 회장은 이어 “한국 정부와 자치단체, 기업과 대학, 연예인 등도 미국 도산기념관 건립 사업에 협조하기로 한 만큼, 리버사이드시가

나서 주정부와 연방정부 지원을 이끌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도산기념사업회는 리버사이드가 약정한 힐사이드 지역 건립부지의 50%가 물이 고이는 지대라는 점을 고려해, 리버사이드시와 협력해 건립부지를 현 위치 바로 옆 주정부 소유 공공부지와 맞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 회장은 “도슨 시장은 건립부지 조성 업무를 담당 직원이 관련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산안창호기념관은 기념관과 한국 정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총사업비는 3000만 달러가 소요될 예정이다. 도산기념사업회는 2025년 상반기 설계 공모 및 본격적인 모금 운동에 나설 방침이다. 김형재 기자



전화:
1-888-274-8683

영어와 한국어로
제공됩니다.

크레딧 점수가 돈 ... 차 살 때 1만불까지 차이

등급 따라 이자율 3배 차이
수퍼프라임 4만불에 월 801불
서브프라임은 1011불 내야
구매 전에 점수 올리면 절약

2024년 2분기 신용등급에 따른 신차·중고차 오토론 이자율

크레딧점수	신차	중고차	평균
수퍼프라임(781-850)	5.25%	7.31%	6.28%
프라임(661-780)	6.87%	9.36%	8.12%
논프라임(601-660)	9.83%	13.92%	11.88%
서브프라임(501-600)	13.18%	18.86%	16.02%
딥서브프라임(300-500)	15.77%	21.55%	18.66%
평균	10.18%	14.20%	12.19%

자료 = myFICO

2024년 9월 기준 신용등급에 따른 오토론 이자율과 지급액

크레딧 점수	평균 이자율	월 할부금	지급 이자 총액	등급간 차이
720-850	7.45%	\$801	\$8,034	N/A
690-719	8.612%	\$823	\$9,369	\$1,335/16.6%
660-689	10.406%	\$858	\$11,474	\$2,105/22.5%
620-659	12.528%	\$900	\$14,029	\$2,555/22.3%
590-619	16.891%	\$992	\$19,506	\$5,477/39.0%
500-589	17.77%	\$1,011	\$20,650	\$1,144/5.9%

자료 = myFICO

크레딧점수가 자동차를 저렴하게 구매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평가회사 익스피리언에 따르면 구매자의 크레딧점수에 따라 오토론 이자율이 2~3배 차이가 나며 이로 인해 지급 이자도 크게 불어나 결국 차를 비싸게 구매하게 된다.

오토론 신청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신용도 시스템은 FICO스코어로 점수 범위는 300~850점이다.

FICO스코어는 5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781~850점이면 가장 좋은 수퍼프라임, 661~780점이 프라임에 해당한다. 601~660점은 논프라임이며 501~600점이 서브프라임, 300~500점은 딥서브프라임으로 좋지 않은 신용 등급으로 평

가된다. 올해 2분기 신차 구매자의 평균 크레딧점수는 753점, 중고차 구매자는 689점이었으며 전체 구매자의 80%가 프라임 또는 수퍼 프라임 등급에 해당했다. 지난 2019년과 비교하면 신차는 평균 737점, 중고차 655점으로 팬데믹을 거치며 구매자의 크레딧점수가 향상됐다.

신용등급에 따른 오토론 이자율 차이를 비교해 보면 신차의 경우 수퍼프라임이 5.25%인데 반해 딥서브프라임은 15.77%로 3배나 더 높았다. 프라임과 서브프라임 간의 차이도 각각

6.87%, 13.18%로 거의 2배에 육박했다. 중고차 역시 수퍼프라임(7.31%)과 딥서브프라임(21.55%) 간에 약 3배 차이가 났으며 프라임(9.36%)과 서브프라임(18.86%)도 2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CNBC 계산에 따르면 지난 9월 자료를 기준으로 4만 달러 오토론에 60개월 할부로 차를 구매했을 경우 크레딧점수가 720~850점인 구매자는 평균 이자율 7.45%를 적용받아 월할부금이 801달러로 지급 이자 총액은 8034달러였다.

반면 크레딧점수가 500~589점인 구매자의 이자율은 17.77%로 월할부금이 1011달러로 늘었으며 지급 이자 총액은

2만650달러에 달했다.

결국, 동일 차량을 동일 조건으로 구매하더라도 크레딧점수가 나쁠 경우 매달 210달러씩, 지급 이자 총액 1만 2616달러로 157%를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차 구매 계획이 있다면 미리 크레딧점수 개선을 위해 힘쓰는 것이 절약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했다.

크레딧점수가 좋지 않을 경우 캐피탈원 오토 파이낸스 등 여러 대출기관의 이자율과 수수료를 비교해 소망하는 것이 유리하며 달라나 은행을 통해 오토론 조달을 하지 못했다면 오토페

이와 같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하지만 높은 이자율과 수수료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보증인(co-signer) 옵션이 있다면 이자율을 낮출 수 있다.

크레딧점수 향상을 위해서는 각종 청구서를 정시에 납부하고 본인의 크레딧 가용율을 30%로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가장 오래된 크레딧카드를 계속 유지하고 신규 계좌 개설은 피해야 한다.

FICO스코어는 myFICO 웹사이트(myfico.com)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박낙희 기자

근원물가 둔화세 멈추고 옆걸음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중시하는 인플레이션 핵심 지표가 둔화세를 멈추고 지난 5월 이후 정체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 데다 소비자출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전망에 더욱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상무부는 9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6%)를 소폭 웃돈 수치다.

근원물가의 최근 변화 흐름을 반영하는 전월 대비 상승률은 0.3%로 시장 전망에는 부합했지만 8월(0.2%)과 비교해 상승했다. PCE 가격지수는 거주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물가지표다.

연준은 통화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때 상대적으로 더 널리 알려진 소비자물가지수(CPI) 대신 PCE 가격지수를 준거로 삼는다.

근원지수는 대표지수에서 단기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지표로, 물가의 기

조적인 흐름을 상대적으로 더 잘 반영한다고 여겨진다. 근원 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지난 5월 2.7%로 둔화한 이후 6월 2.6%로까지 잠시 낮아졌다가 7월 들어 3개월 연속 2.7%에 머무르고 있다. 연준이 중시하는 근원 PCE 가격지수 잣대로는 최근 몇 달 새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2%)으로 지속해서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함께 발표된 소비자출도 증가율은 전문가 전망을 웃돌며 경제의 견조한 소비 지속 가능성을 시사했다. 9월 명목 개인소비지출 증가율은 전월 대비 0.5%로 8월(0.3%) 대비 증가율이 상승했다. 전문가 예상치는 0.4%였다. 실질 개인소비지출도 전월 대비 0.4% 증가해 8월(0.2%) 대비 증가율이 크게 올랐다.

연준이 이미 지난달 '빅컷' 단행과 함께 금리 인하 사이클을 개시한 가운데 연준이 중시하는 물가지표가 정체하는 모습을 보이고 소비도 탄탄한 흐름을 보이면서 연준이 향후 금리 인하 속도를 당초 예상보다 늦출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치솟는 주택보험료 ... 82% “상한제 도입해야”

주택보험료가 치솟으면서 주택소유주 10명 중 8명은 정부가 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US뉴스앤월드트리포트(US뉴스)가 1800명의 주택소유주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2%는 주택보험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험사들이 이상 기후로 인한 산불·홍수·토네이도 등 빈번한 자연재해 발생으로 손실이 커졌다며 보험료를 가파르게 올리거나 가입을 해지하고 갱신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주택소유주들이 보험사들의 이런 행태를 제한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한 결과로 풀이된다.

설문 조사 결과는 주택소유주의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주택보험료가 올랐다는 응답률이 68%나 됐다. 반면, 보험료가 동일하거나 소폭 내렸다는 답변은 20%에 불과했다.

또한 보험료가 인상됐다고 답한 주택소유주 중 44%는 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주택보험료를 낮추



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왔다는 응답도 62%에 이르렀다.

가입 및 갱신 거부와 보험 해지 등의 사례도 빈번했다. 응답자 중 20%는 주택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보험이 해지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의회 차원에서 보험료 부담이 커진 주택소유주를 지원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릭 스콧 플로리다 연방 상원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주택보험료 감세법'은 실거주 주택 보험료에 대한 최대 1만 달러까지 세제 혜택 제공을 골자로 한다. 다만 법안은 아직 재정소위원회에서 검토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조원희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용자의 풀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 인생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들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40
M&T 대장금(미리주.물) 300m
웨일리노래방 뉴타운출

미라조 올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출
맞으면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주세요~

“최고”
모두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택 용자는 그린웨이 홈론 **배준원** 용자에 맡겨 주세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이자율이 높다구요? 그럴수록 비교해보세요.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직접 경험해 보세요!

WWW.JUNBAEMORTGAGE.COM

배준원 (Jun W. Bae)
Vice President / MBA / Sr. Mortgage Banker

703.868.7147
Jun@gwhomelending.com
(NMLS# 178471)

센터빌 오피스 **토요일도** 오픈합니다.
(토요일 오전 10시~1시 무료상담)

13890 Braddock Road, Suite 207,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마마트 건너편 위치)

GREENWAY HOME LOANS
VA, MD, DC, NC, TX, PA, SC, FL

Greenway Home Loans, Inc. is licensed by the District of Columbia Government DSB, Maryland State DLR, Virginia State Corporation, North Carolina Commissioner of Banks, Texas Department of Savings and Mortgage Lending, Pennsylvania Department of Banking & Securities, Florida Bureau of Regulatory Review-Finance,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License Numbers: DC ML2501870; MD 2501870; NC L-219065; VA MC-7762; TX 2501870; PA 108923; FL ML2525; SC 2501870 Greenway Home Loans Inc. NMLS# 2501870
www.nmlsconsumeraccess.org

대선에 숨죽인 금융시장... '트럼프 트레이드' 달리는 강세

지난달 달러인덱스 3.2% 상승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에 최근 달러화 가치가 강세를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금융시장도 5일 치러질 대선에 여과를 주시하고 있다.
 2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로화, 엔화 등 6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지난달 3.2% 올라 2022년 4월 이후 월간 기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달러인덱스는 이달 첫 거래일이었던 1일에도 0.33% 상승하며 104.32로 올라섰다. 최근의 달러 가치 강세에는 미국의 경제 지표 호조와 함께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따른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가 영

향을 끼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 보편 관세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이는 인플레이션 요인이며,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지면 달러 가치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월가에서는 관세 정책으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이고 중국, 멕시코 등 무역 상대국 통화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이다.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달러 가치의 향방을 두고는 견해가 갈린다.
 투자은행 제프리스의 브래드 백텔은 "해리스 부통령 당선 시 달러인덱스가 매우 빨리 100.0로 갈 것"이라고 반면, TD증권의 마크 매코믹은 해리스 부통령 당선에 근본적으로 달러 가치

에 부정적 요인은 아니면서 경제 지표, 기준금리 등이 모두 달러에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베팅사이트 폴라마켓을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60%를 넘겼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56.5%로 내려온 반면,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확률은 43.6%로 올라왔다.
 지난 두차례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택했던 아이오와주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막판까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제매체마켓워치는 두 후보가 막판까지 박빙

의 승부를 벌이는 만큼 투자자들이 여러 가능성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화당 조지 W. 부시 후보와 민주당 엘 고어 후보가 맞붙었던 2000년 대선 당시 대법원의 재검표 중단으로 한 달여 만에 승자가 가려졌던 것처럼, 이번에도 여러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마켓워치는 미 증시 흐름을 보면 아직 대선 영향이 명확하지 않다는 면서도, 대선과 상·하원 선거 결과가 곧바로 나오지 않을 경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약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두 후보의 공약

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후퇴하면서 반도체·전자·친환경 부문에 악재인 반면 내연기관차·석유 업계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해리스 부통령 당선 시에는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관련주가 수혜주로 꼽힌다.
 채권시장에서는 10년물 미국채 금리가 4.3% 위로 올라선 상태이며, 대선 결과에 따라 미 정부 재정적자 우려가 부각될 경우 국채 매도세 심화로 10년물 금리 4.5%까지 오를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 최근 금·은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배경에는 미 대선과 중동 상황을 둘러싼 불확실성 속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됐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시가 인텔·엔비디아 운명 갈랐다

다우지수 격변 "역사적 순간"
 인텔 올해 주가 반토막

미국 주요 주가지수인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다우지수)에 인텔 대신 엔비디아가 편입될 예정인 것과 관련,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반도체 산업 지형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수 운영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다우존스 지수'는 이달 1일 성명을 통해 오는 8일 거래부터 다우지수에서 인텔을 제외하는 대신 AI 열풍의 대표적 수혜주인 엔비디아를 편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지수 내 반도체 산업 익스포저(위험 노출액)의 대표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텔은 1970년대 후반부터 50년 가까이 개인용컴퓨터(PC) 중앙처리장치(CPU)를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을 지배했고 25년 전인 1999년 다우지수에 편입된 바 있다.

하지만 모바일·AI 붐 등 시장 변화에 연이어 뒤처지고 주력인 CPU 부문에서도 경쟁사인 AMD에 추격을 허용하면서 최근에는 웨컴 등에 사업 매각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2021년 팻 겔linger 최고경영자(CEO) 취임 후 반등을 모색하고 있지만 지난해 말 50.25달러였던 주가는 반토막 수준인 23.2달러로 떨어져 다우지수 편입 종목 가운데 가장 성적이 저조했다.

반면 인텔이 2005년 당시 200억 달러에 인수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진 엔비디아는 AI 열풍을 타고 주가가 급등, 지난해 240%가량 오른 데 이어 올해도

173% 이상 상승하며 애플에 이어 시가총액 2위로 뛰어올랐다.

미국 빅테크(거대 기술 기업)들도 AI 산업 확대에 따른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위해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앞다퉈 사들이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차세대 AI 칩 블랙웰에 대해 "수요가 엄청나다(insane)"고 자신감을 표하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다우지수 편입 종목 변경에 대해 AI에 따른 기술 산업 지형 변화를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AFP 통신은 기술 업계에서 역사적 순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년 전만 해도 생각지도 못했을 일이라면서 기술 업계에서 운명의 뒤바꿈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투자회사 하그리브스 랜즈다운의 수재나 스트리터는 이번 일은 인텔의 평판에 타격이 될 것으로 보면서 다우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자금에 없을 경우 인텔 주가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우지수는 미국 다우 존스사가 뉴욕 증권시장에 상장된 우량기업 주식 30개 종목(일명 '블루칩')을 기준으로 해 산출하는 세계적인 주가지수다. S&P500지수, 나스닥지수와 함께 미국 3대 주가지수로 꼽힌다.

다우지수는 미국 산업 변천사를 한눈에 보여주지만 우량기업 30개 종목으로만 구성돼 있어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현재 빅테크 중에서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이 다우지수에 포함돼 있지만 구글, 메타는 들어가 있지 않다.

흑인여성 첫 영국 보수당 대표 탄생

케미 베이드녹 전 통상장관 선출

나이지리아 이민가정 출신 44세
 기후·이민 문제에 강성 우파 성향
 총선 사상 최악 참패한 당 재건 맡아

영국의 제1야당인 보수당 새 대표에 케미 베이드녹(44) 전 기업통상부 장관이 선출됐다.

영국 주요 정당의 첫 흑인 당수이다. 보수당에선 인도계인 리시 수낵 전 총리 이후 두 번째 비백인 대표이며 마거릿 대처, 테리사 메이, 리즈 트러스 전 총리에 이어 네 번째 여성 대표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베이드녹 대표는 2일(현지시간) 전국 당원 투표 개표결과 전체 약 10만표 가운데 5만 3806표(57%)를 획득해 당 대표 경선에서 승리했다. 그의 상대였던 로버트 젠릭(42) 전 내무부 이민담당 부장관은 4만 1388표(43%)를 얻었다. 당원 투표율은 72.8%였다.

이날 승리로 베이드녹은 지난 7월 총선 참패를 책임지고 물러난 수낵 전 총리 뒤를 이어 보수당을 이끌게 됐다. 그는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우리가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솔직해져야 한다"면서 "이제 진실을 말하고, 우리의 원칙을 옹호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우리의 정치와 생각을 재설정하고, 우리 당과 국가를 위해 새로운 출발을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본격적으로 쇄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베이드녹은 나이지리아 출신 이민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을



지난 2일(현지시간) 영국 보수당의 새 대표로 선출된 케미 베이드녹 전 기업통상부 장관(가운데). 오른쪽은 남편, 왼쪽은 경선 상대였던 로버트 젠릭 전 내무부 부장관이다. [EPA-연합뉴스]

서아프리카에서 보내고 16살 때 출생지인 런던으로 돌아왔다. 컴퓨터시스템공학을 전공한 그는 은행과 잡지사에서 일하다 정계에 입문했다. 보리스 존슨 전 총리 시절 아동 및 가족 담당 국회 차관보 등으로 임명됐고, 이후 리즈 트러스와 리시 수낵 내각에서 여성 평등부·기업통상부 장관을 지냈다.

그는 보수당 내에서도 우파 성향이 짙은 인물로 분류된다. 넷제로(Net-Zero·탄소중립) 목표나 트랜스젠더의 권리 보장에 회의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경선 과정에서 "출산수당이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이민 문제와 관련해 "모든 문화가 동등하게 유효한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새 대표가 된 베이드녹이 직면한 과제는 만만치 않다. 보수당은 지난 7월 총선에서 650석 가운데 121석을 차지하는 데 그쳐, 412석을 확보한 노동당

에 정권을 내줬다. 14년 만의 정권 교체이자, 보수당 역사상 1832년 이후 최악의 참패였다. 다음 총선이 열리는 2029년에 정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수년간에 걸친 당내 분열과 스캔들, 경제적 혼란 등으로 무너진 지지율을 회복해야 한다.

수낵 전 총리는 이날 X(옛 트위터)에서 "그(베이드녹 대표)는 우리 당을 쇄신하고 보수적 가치를 일깨워 세워 노동당과 맞서 싸울 것"이라며 "그를 중심으로 모두 단결하자"고 촉구했다. 존슨 전 총리는 "그녀는 보수당에 절실히 필요한 열정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스타머 총리는 "보수당에 첫 흑인 지도자가 나온 건 영국에 자랑스러운 순간"이라며 "당신, 그리고 당신의 정당과 함께 영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문규 기자

당신보다 당신의 집을 더 잘 아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저희 슈나이더 내집장만 부동산 팀은 열심히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야의 프로로서 일 잘하는 부동산입니다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NEW
DC 리커 + 건물
 디씨 리커와 코너 건물 포함
 주인이 리커 운영하실분
 2백5십만불

DC 리커
 35만불, 2000 SF, 참고있음
 렌트 6천불

NEW
인기 많은 K-HOT DOG집
 포토백업, 한달 1천3천불 순수익
 주인없이 운영중 25만불

NEW
페어옥스몰
 버블티, 핫도그 양념치킨 해보실분
 2000SF, 렌트9000불, 7만불

NEW
버지니아 상가건물
 3백10만불
 1.80이커, Cap Rate 7%, 임차 5개
 연순수익 \$218,000

DC 유명 델리
 주인 없이 운영
 판매가 55만불, 정부입주 건물 1층
 순수익 = 주인운영 없이 1만불

상가 임대수입
 DC - 식당입주한 건물 2백6십만불
 3000 SF 복층, 월순수입 \$11,000

상가 임대수입
 상가 8백만불, 비엔나, 버지니아
 연순수익 52만불, 8백만불

페어팩스 오피스 두개 매매
 \$520,000
 페어팩스 코트하우스와 가까운 위치

상가 임대수입
 발티모어상업건물(임대수입)
 1백1십만불, 1층식당+2층+3층아파트

Beer and Wine
 주매상 17,000불, 버지니아 복건 매출 3층
 VA 알링턴, 25만불

상가 임대수입
 맥콜린, 단독건물
 4백5십만불, 6,000 SF

Beer and Wine
 주2만불수입, 렌트 \$7200+Cam, 2,300SF
 MD 롱고메리카운티, 조진부 임대계약, 50만불

주재원, 사무실, 창고, 공장 전문, 미국 전역 가능합니다
 뉴욕, 텍사스, 테네시, 조지아,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메릴랜드, 디씨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워싱턴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집장만' 발행인

"내집장만"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ONE REALTYONEGROUP CAPITAL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THE SCHNEIDER TEAM
 www.dwellwashington.com

내 집 장만
 부동산 전문 소식지



2024 연방 상원의원 선거

이제는 11월 5일 (화) 입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한국 사위

Larry Hogan for U.S. Senate in 2024



한인 지지자들이 (Korean-Americans for Hogan) 래리 호건 주지사를 지지하는 이유는

- 한국사위 호건 주지사보다 우리의 가치와 미국에 대한 공헌을 깊이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 코로나가 우리를 휩쓸었을 때, 아시아인을 향한 증오범죄 근절에 앞장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지했으며, 종교기관과 협력하여 백신 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힘썼습니다.
- 공공 안전 강화, 국경 보호, 은퇴자와 스몰비즈니스 지원, 세금 감면과 경제 회복, 노후화된 인프라 개선, 세계 수준의 교육 보장 등 현재 미국과 메릴랜드 주민들이 직면한 긴급한 문제들에 대해 초당적이고 상식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호건의 약속은 QR 코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금 워싱턴이 필요한 것은 서로를 공격하는 데만 관심을 두고 실제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일상적인 정치가 아닌,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강력하고 독립적인 지도자입니다. 그것이 8년동안 제가 주지사로서 해왔던 일이며, 상원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미국과 메릴랜드, 한인 커뮤니티의 미래를 밝힐 수 있습니다!

연락처 (240) 459-2128, (443) 764-0384

PAID FOR BY HOGAN FOR MARYLAND INC

러 “북한의 대미 억제조치 지지” ... 핵·미사일 개발 용인하나

북·러 외교수장, 전략대화 결과 발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재확인” 러, 핵 보유를 ‘억제’로 표현해와 북·과병 대가로 핵개발 목인 가능성

러시아가 미국과 미국의 동맹들에 맞서는 북한의 조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중국과는 달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인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1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최선희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전략대화 결과에 대한 공보문을 지난 2일과 3일 각

각 공개했다. 공보문에 따르면 북·러 외교수장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기타 지역들에서 정세 격화의 주요 원인은 미국과 그 추종 국가들의 도발 행위 때문”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어 “러시아 측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침략 정책을 억제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조선(북한) 국가 지도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들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 “쌍방은 전통적인 북·러 친선관계를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으로 올려세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조항들을 정확히 이행하려는 굳은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최 외무상은 이날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로 인해 한반

도가 위험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며 “정세가 언제든 폭발적으로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전쟁 억제력’ 또는 ‘핵 억제력’ 등은 김정일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수차례 썼던 표현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최종 완결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고 주장한 화성-19형 발사 현장에서도 “적을 다스릴 수 있고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라며 “핵 무력 강화 노선을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도 통상 핵 전력을 통한 전략적 억제력을 지칭할 때 ‘억제’란 표현을 써 왔다. 이 때문에 북·러 공동 발표문에 등장한 “미국의 침략 정책을 억제하

기 위해 북한 지도부가 취한 조치”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부원장은 “그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인터뷰를 통해 북핵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것을 명문화한 것”이라며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북한군과 병까지 받아들인 이상, 북한에 대한 반대급부 역시 러시아의 핵 용인을 넘어 공동 사용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우려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3월 언론 인터뷰에서 “조선은 자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켰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은 3일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참여한 가운데 3차 공중 훈련을 진행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제주 동쪽 한·일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 구역에서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가 한·미·일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가상의 표적을 제거하는 공중훈련을 진행했다. 한국 공군의 F-15K, KF-16, 미 공군의 F-16,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등이 참여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지난 달 31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화성-19형)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억제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한 강력한 대응 의지·능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유정 기자**



북 ICBM에 맞불훈련, 미 B-1B 뺐다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이 3일 제주 동방 한·일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 상공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미 공군 전략폭격기 B-1B와 F-16, 한국 공군의 F-15K와 KF-16,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등이 참가했다. 전략폭격기 B-1B(오른쪽)가 한·미·일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미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는 올해 들어 네 번째이며, 한·미·일 공중훈련은 올해 들어 두 번째라고 합참은 전했다. **[사진 합참]**

우크라이나 “북한군 60mm 박격포 RPG-7 무장 ... 7000명 전선 배치”

(휴대용 대전차 유탄발사기)

젤렌스키 “서방, 북한군 구경만하나” 러 “미국 계속 기름 부으면 3차대전”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60mm 박격포와 피닉스 대전차 유도미사일(ATGM), 야간투시경 등의 무기로 무장했다고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DIU)은 지난 2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 병사들에게 60mm 박격포, AK-12 소총, RPK/PKM 기관총, SVD/SVF 저격총, 피닉스 ATGM, 휴대용 대전차 유탄발사기

(RPG-7)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야간 투시경, 열화상 카메라, 분광 조준기, 망원경 등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DIU는 “7000명 이상의 북한군이 러시아 해안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인근 지역으로 배치됐다”며 “이들은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군용 수송기 최소 28대의 도움을 받아 전선으로 이동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DIU는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은 밝히지 않았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같은 날 텔레그램을 통해 “미국·영국·프랑스는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고) 지

켜보고만 있다”며 “모두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할 때까지 구경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북한군의 위치를 알고 있고, 이를 선제 타격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서방

이 제공한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허가하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2일 러시아 매체 RT

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차기 지도자가 지금처럼 우크라이나전에 계속 기름을 붓는다면 그건 지옥으로 가는 선택이 될 것”이라며 “그런 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길”이라고 엄포를 놔다. **박현준 기자**

중국, 북러 밀착에 ... 한반도 영향력 유지, 관광객 확대 노린 듯

전격 무비자 정책 시행 배경은 ‘외교·경제적 효과 이중 포석’ 분석

중국 당국이 지난 1일 밤 전격적으로 한국에 단기 비자 면제 정책을 발표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외교적 효과와 경제적 실리를 모두 노린 이중 포석으로 분석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으로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약화를 우려한 중국이 한국을 견인하는 동시에 한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해 수익을 늘리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중국이 독일·프랑스 등 6개국을 대상으로 시작한 무비자 대상국에 30번째로 포함됐다(표 참조). 이달 8일부터 내년 12월 31

일까지 비자 면제가 적용된다. 중국 문화관광부가 집계한 올해 1~2분기 입국 관광객 현황에 따르면 한국 관광객은 1분기 5만 3419명, 2분기 11만 2295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 관광객은 무비자 혜택 없이도 상반기에 홍콩에 이어 2위, 지난해 12월부터 무비자 적용을 받는 말레이시아보다 7만 5087명 많았다.

이같은 추세를 파악한 중국이 상반기 관광객 7241명에 그친 일본을 제치고 한국을 막판 비자 면제 대상국에 포함시키면서 실질적인 관광객 유입 증가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동시에 외교적 효과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박상수 충북대 교수는 “북한

과 러시아의 군사동맹화로 한반도에서 상대적 고립에 빠진 중국이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두터워지는 한·미·일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견제하려는 일종의 회유책”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무비자의 명분보다 실리가 적었던 유럽과 달리 관광객 증대 효과가 기대되는 한국에 상호주의를 양보하며 경제적 실리를 노렸다”고 지적했다.

여기엔 중국 당국이 신방첩법(반간첩법 개정안) 실시 후 처음으로 한국인을 구속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 파장이 일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비자 면제 정책을 신방첩법 파문 직후에 발표한

중국의 ‘일방적 무비자’ 적용 주요 국가 자료: 중국외교부 발표 종합

국가	유효기간	적용기간	국가	유효기간	적용기간
한국	15일	2024.11.8-2025.12.31	룩셈부르크	15일	2024.3.14-2025.12.31
몽골	30일	-	뉴질랜드	15일	2024.7.1-2025.12.31
프랑스	15일	2023.12.1-2025.12.31	호주	15일	2024.7.1-2025.12.31
독일	15일	2023.12.1-2025.12.31	폴란드	15일	2024.7.1-2025.12.31
이탈리아	15일	2023.12.1-2025.12.31	그리스	15일	2024.10.15-2025.12.31
네덜란드	15일	2023.12.1-2025.12.31	슬로베니아	15일	2024.10.15-2025.12.31
스페인	15일	2023.12.1-2025.12.31	포르투갈	15일	2024.10.15-2025.12.31

데 주목해야 한다”며 “한편에서 한국과 반도체 기술 수출을 빌미로 범법전을 펼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타협과 협상을 진행하는 과거 마오쩌둥식 양수(兩手) 전략의 생생한 사례를 떠올리게 하는 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교민사회에서는 우선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표출된다.

베이징의 대한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70% 선에 그치는 한·중 간 항공 수요의 원상회복 시점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다만 향후 한국 내 예약률 변화 추이를 살펴야 효과적인 대응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다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십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 Internship for Protein One's Lab at UMC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 Licensed in Virginia Board of Medicine

라벨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lovespineclinic@yahoo.com

센터빌 / 찰틀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lovespineclinic@gmail.com

Chiropractic Clinic | 척추사랑

MARYLAND • VIRGINIA • TIDEWATER • RICHMOND

2025 메디케어 등록안내

2025년에는 가지고 계신 메디케어 어드벤처지(Part C)와 약보험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비교해 보세요!

상담예약: 703-973-5900

*** 매주 토요일 상담합니다 [예약에 한함]**
매주 토요일 9AM~4PM
엘리콧시티 롯데플라자 내 만남의 장소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 메디케어 플랜 변경기간 2024년 10월 15일~12월 7일



센터빌
14631 Lee Highway, #214,
Centreville, VA 20121
던킨 도넛 빌딩 2층

애난데일
7003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

볼티모어
425 E Federal St.,
Baltimore, MD 21202
Greenmount 시니어 센터

엘리콧시티
10176 Baltimore National Pike,
#201,
Ellicott City, MD 21042
시루와 같은 건물 2층



오 향 제
703-973-5900



Jenny Oh
703-642-0305



Elizabeth Kim
703-642-7578



Jennifer Chung
410-698-6877



Michelle Kim
703-337-0910

26년의 경험과 실력 **코너스톤 종합보험**

Fairfax (703) 642-0305 | Richmond (804) 767-3714 | Ellicott City (410) 698-6877 | Tidewater/Newport News (757) 941-7216

전기차 시장 캐즘(Chasm·일시적 수요 둔화) 우려에 미적지근했던 지난 2분기 실적과, 야심 차게 공개했으나 생각보다 볼게 없었던 '로보택시(Robo-taxi·무인 자율주행 택시)'에 사그라들던 기대가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다. 테슬라의 '드림 프리미엄(Dream premium)'에 불씨를 되살린 건 일론 머스크(테슬라 최고경영자)의 입이 아닌 숫자였다. 예상 밖으로 좋은 실적에 테슬라 주가는 지난 1일 248.98달러로 순항 중이다. 하지만 단순히 장밋빛 전망만을 그리기엔 대선과 규제라는 최대 변수가 남은 상황. 테슬라는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려 하고 있을까. 3분기 실적 발표(콘퍼런스 콜)를 보면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남긴 힌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병준 기자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의 고태훈 본부장과 함께 테슬라 3분기 실적 발표 현장을 뛰어봤다. 3분기 매출은 251억8000만 달러(약 34조 7500억원)로 시장 예측치보다 낮았지만, 전년 대비 2% 늘어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했다. 주당순이익도 0.72달러로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영업이익이 49억9700만 달러(약 6조9400억원)로 1년 전보다 20% 증가한 결과다. 마진율도 10.8%로 1년 전보다 3.2%포인트 올랐다.

부문별로 보면 자동차 매출총이익률(GPM)은 1년 전보다 1.4%포인트 오르며 바닥을 찍고 수익성을 회복하는 모습이다. 분기당 차량 인도(引渡) 대수는 46만 대로 전년보다 6% 올랐는데, 가격을 내린 덕이다. 차가 많이 팔리면서 자동차 부문 매출은 188억 달러로 전년보다 1.3% 올랐다. 특히 '모델 S'와 사이버트럭이 포함된 '기타 모델' 인도 대수가 전년보다 43%나 늘어났는데, 사이버트럭이 흥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에너지 저장장치(ESS·Energy Storage System) 사업 부문 매출총이익률이 전년보다 6.1%포인트 오르며 30%를 넘겼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 제조업에서 보기 힘든 놀라운 정도의 성장률이기 때문이다. 특히 가상발전소(VPP·Virtual Power Plant) 서비스에 새로 등록된 파워월(고정식 가정용 에너지 저장장치) 기기 대수가 이번 분기 10만 개를 돌파했다. 유휴 전력을 사고 파는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서비스 및 기타 부문도 매출총이익률이 전년보다 2.8%포인트 올랐다. 완전자율주행(FSD·Full Self-Driving) 매출이 이연돼 집계됐고 탄소배출권 매출이 합산된 것도 있지만, 4년 만

매출·이익 '숫자'는 맞춰냈다 테슬라 필요한 건 '규제 완화'



에 차량 호출(ASS-Actually Smart Summon) 서비스가 재출시되면서 이익률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수퍼차저'(테슬라의 자체 충전소) 네트워크가 2800개 이상 신규 설치되면서 마진도 올라왔다.

차 한 대당 원가(COGS)가 역대 최저치인 3만5100달러(약 4800만원)까지 내려왔다. 단순 계산하면 전년보다 원가를 약 8%, 전 분기보다 약 14% 절감했다는 것이다.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원가를 공개하지도 않을뿐더러 이렇게 줄이지도 못했는데, (좋은 의미에서) 말도 안 되는 수치다. 특히 비교적 원가가 높은 사이버트럭이 출시된 이후인데도 전체적인 차량 원가가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테슬라는 10월 22일 미국 프리몬트 공장에서 700만 대째 전기차를 생산했다. 하이브리드가 아닌 순수전기차(BEV·Battery Electric Vehicle)로 만든 새로운 이정표다. 현재 연간 생산능력(Capa)은 약 235만 대 수준. 콘콜에서 거론된 것처럼 효율성을 더 끌어올리면 최대 생산능력은 연간 약 300만

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테슬라는 올해 차량 약 180만 대를 인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에는 20~30% 정도 성장할 것"이라는 머스크의 발언에 따라 내년엔 200만 대 초반까지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출시되는 '사이버캡(Cyber cab, 로보택시 시제품)'의 단기적 생산목표는 연간 200만 대, 중장기적으로는 연 400만 대다. "2025년 상반기를 시작으로 더 합리적인 가격의 모델을 출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일론 머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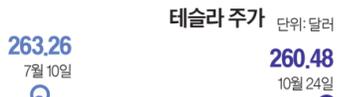
지난 '로보택시 데이(Robo-taxi Day)' 행사에선 거론되지 않아 궁금증을 키운 저가형 모델에 대한 정보가 나왔다. 정확한 명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선 '모델 2'라고 부르는 중이다. "(자율주행 기능 없는 일반 전기차인) 2만5000달러짜리 일반 모델은 무의미하다"는 머스크의 말마따나, 테슬라는 기존 저가형 모델에도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할 것으로 보인다.

저가형 모델 가격은 2만5000달러(약 3400만원) 이하, 사이버캡 가격은 3만 달러(약 4100만원) 이하가 될 예정이다.

저가형 모델은 사이버캡과 같은 플랫폼(제조 공정)에서 생산된다. 단가를 낮추는 비결이다. 사이버캡은 저가형 모델과 달리 운전대와 페달 없이 출시될 예정인데, 다만 이런 형태로 출시하려면 당국의 규제를 통과해야 한다.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해석된다.

테슬라의 FSD(완전자율주행) 누적 운행 거리가 가파르게 오르며 20억 마일(약 32억km)을 돌파했다. FSD로 운행한 거리가 많아진다는 건 곧 테슬라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아지고, FSD가 더 개선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방대한 자율주행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회사는 테슬라를 제외하곤 없다. 특히 누적 운행 거리 중 절반 이상이 FSD 최신 업데이트 버전인 '버전 12'에서 쌓였는데, 버전 12는 모든 주행 상황을 하나의 통합된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 처리하는 '엔드투엔드(end-to-end)' 방식을 쓰기에 데이터의 질이 다르다는 평가다.

테슬라는 전기차·자율주행·에너지 저장, 이 3박자가 모두 성장하는 국면을 보여줬다. 모델 3가 나온 지 7년이 넘



테슬라 24년 3분기 실적

단위: 달러 매출 주당순이익

예측	253억7000만	0.58
실제	251억8000만	0.72

사업 부문별 매출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

자동차	200억(2)
에너지	23억(52)
서비스 및 기타	27억(29)

자료: 테슬라

어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수치를 개선해 줄 차세대 모델의 출시 일정을 확인해 줬다. 언급되지 않았지만 신형인 '모델 Y 주니어(Juniper)' 리뉴얼도 있어 내년까지 공백 없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사업부는 매출 비중은 10%인데 영업이익 비중은 15% 정도로 지속 성장하고 있고, 원가가 개선되고 있어 마진이 높아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유료 차량공유 서비스 시장은 단순 계산하면 2100억 달러(약 300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테슬라 측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여기서 테슬라가 20%만 가져오더라도 40억 달러(약 5조5600억원) 정도의 순이익이 나온다. 테슬라 올해 연 순이익이 80억 달러 정도니 늘어날 잠재력이 크다. "테슬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가 될 것"이라는 머스크의 말에 의문을 가질 부분이 거의 없는 실적이었다.

'트럼프 트레이드'(트럼프 수혜주에 투자하는 것)가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지만, 테슬라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가장 수혜를 볼 빅테크(거대 기술기업)임은 분명하다. 머스크는 "정부효율성부서(DOGE·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도지코인 티커와 명칭이 같다)의 필요성을 콘콜에서 거론했는데, 주별로 다른 전기차 승인 절차를 연방 차원에서 통일하는 방안을 트럼프에 제안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현실이 될 경우 지금 상황에서 바로 시장에 진출해 경쟁할 수 있는 전기차 업체는 테슬라와 구글 웨이모밖에 없다."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598-3316

정문기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미극 한방병원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가스, 설염, 부인과 허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카락이 빠지는 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저서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임상경력 50년
-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 *VA, MD, DC 면허 소지

- *신비한 체질의 세계 (사상의학)
-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 *정설침구혈위대전
-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크레딧 카드 환영

TV Travel Channel 서울이구한방병원 방영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일등부동산

뉴스타부동산

대표 브로커
라니 오
703-899-8999
410-417-7080



http://부동산학교.com 5주 속성반

부동산 학교

수업료: \$250 (교재비: \$100) 시작이 중요합니다. 뉴스타와 함께 성공하세요.

11월 5일 화요일 개강

>>> 온라인 라이브 강의 <<<

- 한국식 쪽집게 수업
- 온라인 수업 병행
- 합격후 10주 실전교육
- 기본 컴퓨터 교육
- 자체 제작 한글교재와 문제 풀이

따라만 오시면 100% 합격보장!!

모든
공사비는
후불
(집 파신 후)

리스팅 접수 **개런티**

어떤 집이라도 30일 안에 팔아드립니다!!

“뉴스타에서 집을 예쁘게 공사한 후 동네 최고 가격을 받아드립니다”



뉴스타가 새롭게 소개하는 커머셜 리스팅

**메릴랜드 안전지역
리커 & 와인
(건물포함)**
주매상 \$5만
현재 주인 거의 일하지 않고 있음
비즈니스만 \$2만

**메릴랜드 위튼지역
Beer & Wine**
주매상 \$38,000
아주 안전한 지역
\$900K

**버지니아 알링턴
일본 식당**
새로 꾸민 식당
렌트 \$14,500
\$8만

- ✓ 테넌트 때문에 골치 아프십니까?
- ✓ 렌트비가 늦거나 안보내는 경우
- ✓ 잦은 고장으로 시도때도 없는 연락
- ✓ 타주나 한국에서 관리가 힘든 경우

일 잘하는
뉴스타 매니지먼트에 맡기세요!
맡기는 순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뉴스타 매니지먼트에 맡기시면...

- 좋은 테넌트 선별과 선정
- 매달 렌트비 컬렉트
- 각종 수리
- 테넌트 사소한 문제 해결
- 고문 변호사와 테넌트 법적 분쟁 해결
- 해당 집/건물/주기적 점검/보수/수리
- 그 외 건물주 100% 대행

버지니아

<p>1 \$1,150,000 페어팩스 싱글 방 4, 화장실 4+1, 차고 2, 페어팩스 코스틱 근처에 있는 멋진 집. 업그레이드</p>	<p>2 \$1,300,000 페어팩스 싱글 방 4, 화장실 4+1, 차고 2, 벽돌로 지어진 넓은 사이즈에 고급 주택. 0.7 에이커</p>	<p>3 \$850,000 페어팩스 싱글 방 4, 화장실 2+1, 차고 2 밝고 이쁜 집. 마루바닥. 넓은 뒷뜰</p>
<p>4 \$1,900,000 페어팩스 새 싱글 방 4, 화장실 3+1, 차고 2, 만투어 초등학교. 모던하게 지은 멋진 새 집</p>	<p>5 \$2,300,000 옥튼 새 싱글 방 5, 화장실 4+1, 차고 2 1.8 에이커의 넓은땅에 지어진 새 집. 옥튼 HS</p>	<p>6 \$2,200,000 맥클린 싱글 방 4, 화장실 4, 차고 2, 모던한 스타일로 지어진 멋진 고급 주택. 맥클린 HS</p>
<p>7 \$2,290,000 폴스처치 새 싱글 방 6, 화장실 6+1, 차고 2, 4천 sqft가 넘는 넓고 모던한 새 집. McLean HS</p>	<p>8 \$2,400,000 비엔나 새 싱글 방 5, 화장실 5+1, 차고 2, 모던한 새 집. 4200sqft. Madison HS</p>	<p>9 \$2,600,000 맥클린 싱글 방 6, 화장실 7+1, 차고 2, 5500sqft. 모던한 새 집. McLean HS</p>
<p>10 \$565,000 알렉산드리아 싱글 방 4, 화장실 3, 지붕부터 에어컨까지 전부 다 새로 수리한 집</p>	<p>11 \$200,000 버크 콘도 방 2, 화장실 1, 너무 좋은 가격. 전체적으로 다 업그레이드</p>	<p>12 \$899,000 페어팩스 싱글 방 6, 화장실 4, 차고 1, 전체적으로 다 수리한 멋진 싱글 홈. 우드슨 고등학교</p>
<p>13 \$470,000 우드브릿지 콘도 방 2, 화장실 2, 차고 2, 벨몬테에 있는 고급 콘도. 선착장 옆</p>	<p>14 \$780,000 페어팩스 타운홈 방 4, 화장실 4+1, 차고 1 4층 구조로 되어있는 멋진 타운홈</p>	<p>15 \$789,000 페어팩스 타운홈 방 3, 화장실 2+1, 차고 2 모던하게 잘 꾸며진 멋진 타운홈. 마루바닥</p>

메릴랜드

<p>1 \$630,000 Sykesville 타운홈 방 3, 화장실 3+1, 차고 2, 2년된 새 타운홈. 아주 모던하고 고급. 집 뒷편으로 숲</p>	<p>2 \$985,000 N. Potomac 싱글홈 방 6, 화장실 3+1, 차고 2 집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마루바닥</p>
<p>3 \$1,025,000 N. Potomac 싱글홈 방 5, 화장실 3+2, 차고 2 고급스러운 벽돌집. 넓은 부엌. 마루바닥</p>	<p>4 \$1,325,000 포토맥 싱글홈 방 4, 화장실 3+1, 차고 2, 좋은 위치에 있는 고급 주택. 넓고 고급스러운 부엌. 넓은 뒷뜰</p>
<p>5 \$895,000 포토맥 싱글홈 방 4, 화장실 3, 차고 2</p>	<p>6 \$680,000 케이더스버그 싱글홈 방 4, 화장실 3+1, 차고 2 전체적으로 업데이트된 넓은 뒷뜰</p>
<p>7 \$1,110,000 베데스다 싱글홈 방 5, 화장실 3, 차고 1, 최근에 전체적으로 다 업그레이드한 멋진 싱글 홈</p>	<p>8 \$765,000 엘리컷시티 싱글홈 방 5, 화장실 3, 차고 2, 센티넬 HS.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이쁜 집</p>
<p>9 \$879,000 메리얏츠빌 싱글홈 55+ 방 3, 화장실 3 잘 안나오는 집. 끝집. 3800sqft가 넘는 넓은 집</p>	<p>10 \$450,000 엘리컷시티 타운홈 방 3, 화장실 2+1, 차고 1 편리한 교통에 컨디션 좋은 타운홈</p>

DC

<p>1 \$1,200,000 워싱턴 디씨 SE 타운홈 방 4, 화장실 3+1 새집. 모던한 스타일의 고급 타운 하우스</p>
<p>2 \$1,150,000 워싱턴 디씨 NW 타운홈 방 4, 화장실 3+1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된 고급 타운 하우스</p>
<p>3 \$980,000 워싱턴 디씨 NE 타운홈 방 3, 화장실 2+1 최근에 새로 지어진 고급 타운 하우스</p>
<p>4 \$2,500,000 워싱턴 디씨 NW 싱글홈 방 5, 화장실 5+1. American 대학 근처에 아주 고급 동네에 새 집. 3050 sqft의 넓은 집</p>
<p>5 \$1,250,000 워싱턴 디씨 NW 싱글홈 방 5, 화장실 3+2, 차고 2 체비체스바로 옆. 고급 동네. 좋은 가격</p>

뉴스타부동산

VA 703-496-4989 | MD 410-618-4989

8230 Leesburg Pike, Suite 650, Tysons Corner, VA 22182
3444 Ellicott Center Dr. #105, Ellicott City, MD 21043 롯데타워 우체국 맞은편



내집 가격이 궁금하다?
캘러 사진으로 만들어진
집값 리포트를 신청하세요.
1-800-406-4989

반팔 입은 11월 ... 오늘밤 가을비 내린 뒤 '입동 추위' 온다

(7일)

이달 최고 27도, 평년보다 높아
서쪽부터 전국 비 소식, 강원엔 눈
7일 아침 전국 대부분 영하권 뚝

낮 기온이 25도를 넘나드는 '반팔 가을'이 가고 겨울이 가까워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6일부터 전국 곳곳에서 아침 최저 기온이 0도 부근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3일 예보했다. 입동인 7일에는 경기도 파주, 충북 영동은 -2도, 전북 무주, 경남 거창 -1도 등 전국 대부분 지방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기록할 전망이다.

월요일인 4일에는 최저 7~16도, 최고 15~22도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다.

하지만 밤부터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비가 내린 뒤 기온이 뚝 떨어진다. 예상 강수량은 4일 수도권 강원 내륙 충청 전라 제주 5mm 내외, 5일 강원 동해안과 산지 5~20mm, 경북 북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 5~10mm다. 강원 북부 고도 1000m 이상 높은 산지에는 1~5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인다.

11월에 들어서면서 여전히 더운 가을이 이어졌다. 3일 오전 서울에서는 노원구가 7.7도까지 내려갔지만, 평년 기온(3도)보다 4도 이상 높게 나타났다. 서울 나머지 구도 대부분 11~13도로 평년(5~8도)보다 5도 이상 높았다.

이날 기온이 가장 낮았던 강원도 횡성도 2.2도로 평년 기온(1.6도)보다 높았다. 남부지방은 아침부터 더웠다. 경북 포항에서는 최저기온이 17.9도, 전남 여수는 19.1도까지 올랐다. 포항 평년 최저기온은 8.8도, 여수는 10.5도다. 낮 최고기온도 경기 안성은 26.5도, 충남 아산은 25.8도, 서울시 도봉구는 25도를 기록했다. 전남 서울은 도봉구에서 낮 최고기온이 27.3도까지 오르며 일 최고기온으로는 역대 2위를 기록했다.

10월부터 이어진 더위에 늦게 핀 단풍도 예년처럼 물들지 못하고 있다. 11월 초에는 전국 대부분의 산이 단풍 절정에 이르러야 하는데, 아직도 북한산, 월악산, 속리산, 계룡산, 금오산, 팔공산, 가야산 등이 절정 전이다.

11월 들어서도 기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남해 먼바다의 해수 온도가 높기 때문이다. 현재 북서태평양해수 온도는 여름 수준인 29~30도에 달해 강한 태풍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1호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지난 1~2일 제주시에 최고 338mm의 비가 쏟아졌다. 200년에 한 번 내리는 수준이다.

민간 기후분석업체 케이클라이밋의 반기성 대표는 "따뜻한 남쪽 기단에 막혔던 북쪽의 차가운 공기가 한차례 비가 내린 뒤 내려오면서 기온이 급락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정은혜 기자



관광객 몰살 없는 북촌 '야간 통금' 시행 3일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종로구는 북촌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에 대해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아침 10시까지 출입 제한 정책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뉴스1]

검찰 출석 김영선 "공천 부탁 안해" 의혹 부인... 명태균도 곧 소환될 듯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출두
김 전 의원참고인→피의자로 전환
"세비 나눈 건강해경이 한일" 주장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관련 명태균(54)씨를 통해 공천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김영선(64·국민 의회) 전 의원은 3일 “(대가성) 공천 의혹과 자신은 전혀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9시 38분쯤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의원은 “명씨가 ‘김 건희 여사와 통화한다’ ‘자기 뜻을 잘 받아준다’는 정도만 알았지 (자신의) 공천을 받아줬다는 것은 몰랐다”며 의혹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은 지

난 대선(2022년 3월) 과정에서 명씨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이 재·보궐선거(2022년 6월) 공천을 받았다는 것이 골자다.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로 일한 강해경(47)씨는 지난달 21일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명씨가 운영에 참여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총 81차례에 걸쳐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 3억7000만원 대신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고, 공천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민주당은 ‘대통령 공천 개입 물증’이라며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그게(공천)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라고 말한 녹음 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날 김 전 의원은 “(자신이) 김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경남 창원 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희 여사 등에게 (공천을) 부탁해 달라고 (명씨에게) 말한 적도 없고, 여론조사 비용 문제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씨의 역할에 대해 “말씀을 잘하시니 나름대로 저를 도왔다고 일부 정도만 알고 있다”며 “공천 관련해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와 연락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자신의 회계책임자 강씨에게 “명씨 덕을 봐 국회 의원 됐기 때문에”(2023년 5월23일)라고 말한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선거 때) 제 사무실에 온 사람은 다 제가 덕 본 사람들”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최근 민주당이 공개한 윤 대통령과 명씨 간 대화 내용은 “전혀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명씨에게 자신의 세비 절반이 간 것도 “나는 그런 얘길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회계담당인 강씨가 한 일이란 취지다. 선거 전 강씨한테 3000만원을 빌렸고, 선거 이후 강씨 요청으로 돈을 송금했을 뿐 강씨가 명씨와 세비를 나눈 것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강씨를 통해 명씨에게 9000여 만원을 준 내용을 확보했다. 강씨 측은 “이것이 공천 대가”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돈을 주고받을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검찰은 지난 6월 김 전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한차례 조사했고, 이날은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검찰은 조만간 명씨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안대훈 기자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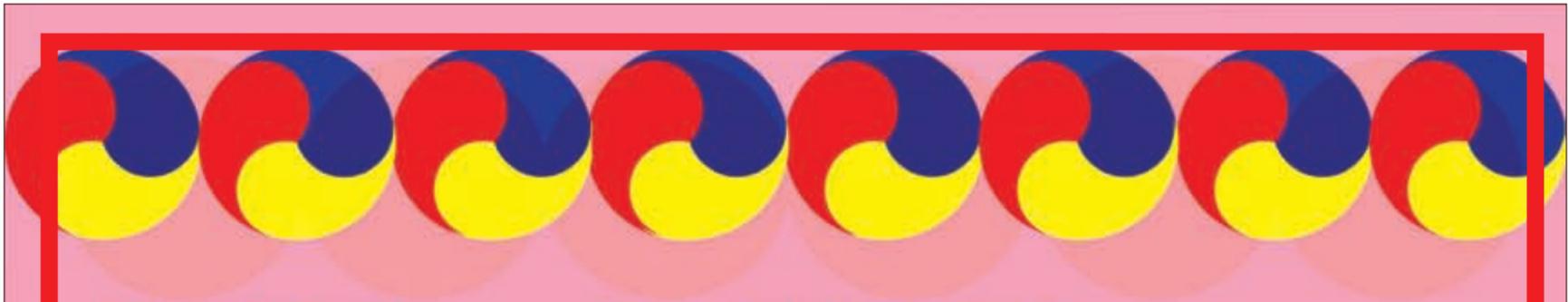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 VA 571.999.2755 | MD 301.775.2774

혈관이 부르는 첫번째 이름

세종 송보감

- 전통술임으로 연구 개발된 세종송보감
- 고농축캡슐 타입으로 개발된 GMP 기준 술임농축캡슐
- 임상으로 인정되고 식약처(KFDA)가 인정된 건강기능식품
- 혈액순환 장애로 도움이 필요한 분
- 당뇨, 혈압, 고지혈증 등 혈관계 건강이 필요한 분
- 혈액순환, 혈관청소가 필요한 분

문의 (703) 256-7671 | www.sejongbiotech.us



새 경영진
NEW MANAGEMENT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어머님,
아버님!**

**사랑과 정(情)으로
효심껏 모시겠습니다.**



이선옥 원장

장두석 회장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Arirang Adult Medical Daycare Center

센터 운영 시간

월요일-토요일
오전 8시-오후 2시

Tel: 410-730-9740 Fax:410-730-9742 Mail: ariranginfo@gmail.com

주소: 9170 Rumsey Rd. Columbia MD 21045 www.aamdc.org

윤 대통령 후반기 “더 잘할 것” 28% “못할 것” 69%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로 임기 반환점을 맞는다. 지난 2년6개월에 대한 국민의 싸늘한 평가가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 후 지금까지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인가. 생각나는 대로 한 가지만 말해 달라”는 주관식 질문에 국민 열 명 중 일곱 명(74%)이 ‘없다’ 또는 ‘모르겠다’로 답하거나, 아예 응답을 하지 않았다. 잘한 일로 꼽은 내용 가운데 ‘외교 활동, 외교 정책’이 6%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의료개혁(실손보험 개선 등)’ ‘전반적으로 잘했다’ ‘의대 정원 확대’ 등이 각각 2%로 나타났다.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31일~지난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다.

질문을 바꿔 “윤 대통령이 가장 잘 못한 일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땐 19%가 ‘김건희 여사 문제’라고 답했다. ‘가족·주변인 비리 문제’라는 응답도 2%였다. 주관식 자유응답인데도,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김 여사 문제를 지목했다.

그 밖에 잘 못한 일로는 ‘의대 정원 확대’(7%), ‘전반적으로 잘 못했다’(5%),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 악화’(3%), ‘무능하다/경험·자질 부족’(3%) 등이 꼽혔다. 잘 못한 일을 묻는 문항엔 모름·응답거절이 28%에 그쳤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별도의 조사 항목에서도 확인됐다. 김 여사의 대통령 배우자 역할 수행 평가 문항에 ‘매우 잘 못하고 있다’는

62%, ‘잘 못하고 있는 편이다’는 22%로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 이상(84%)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매우 잘하고 있다’(1%)와 ‘잘하고 있는 편이다’(10%) 등 긍정 평가는 11%에 불과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중앙일보가 실시했던 지난해 5월 7~8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때는 53.9%였던 김 여사에 대한 부정 여론이 1년6개월 사이 30.1% 포인트 늘어났다. 한국갤럽 측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으로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 명대군씨 녹취로 인해 김 여사가 그간 과도한 역할을 수행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국민이 늘어났다”며 “여기에 대통령실의 해명이 논란을 키우면서 부정 평가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대표 브랜드였던 ‘공정(公正)’에 대한 국민 신뢰도 약해졌다. 윤 대통령 취임 이전과 비교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공정해졌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55%)이 ‘불공정해졌다’고 답했고, ‘공정해졌다’는 반응은 11%였다. ‘비슷하다’는 30%였다. 1년6개월 전 조사에서의 ‘공정해졌다’ 24.2%, ‘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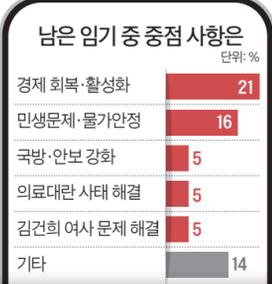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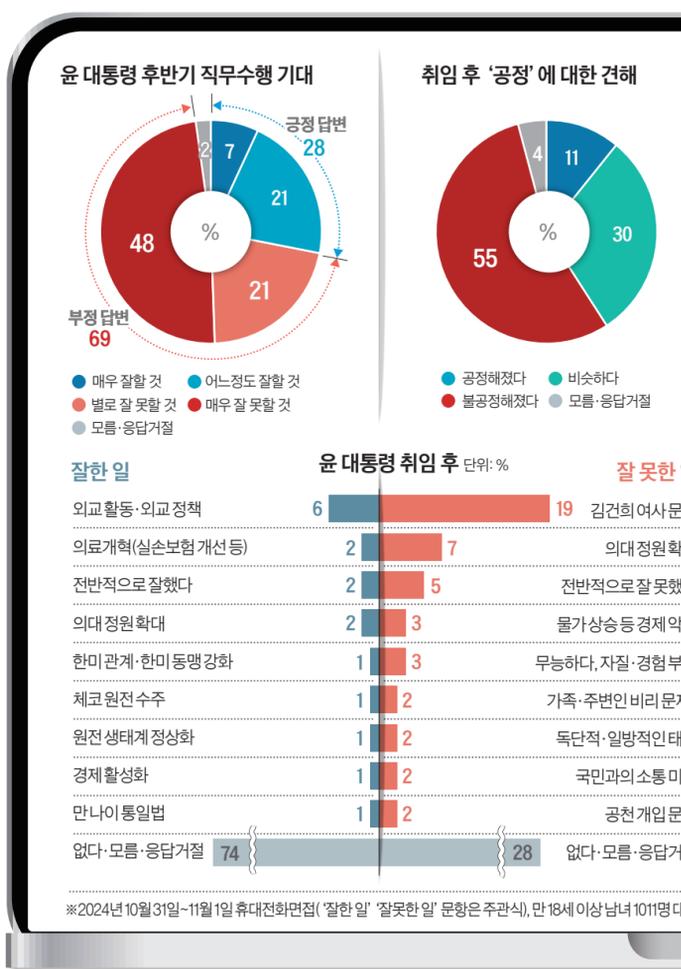
31.9%, ‘불공정해졌다’ 39.7% 응답과 비교할 때 불공정하다는 입장이 15.3% 포인트 늘었다.

응답자의 살림살이 사정을 윤 대통령 취임 전후로 비교해 물은 질문엔 46%가 ‘나빠졌다’고 답했다. ‘비슷하다’는 46%, ‘좋아졌다’는 7%였다. 남은 임기 중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사항으로는 ▶경제 회복·활성화(21%) ▶민생 문제·물가안정(16%) ▶국방·안보 강화(5%) ▶의료대란 사태 해결(5%)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5%) 등이 거론됐다. 민생·경제에 힘쓰라는 주문이 많았다.

“향후 윤 대통령이 임기 전반기보다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얼마나 잘 수행할 것이라 보느냐”는 물음에는 ‘매우 잘할 것’(7%), ‘어느 정도 잘할 것’(21%) 등 긍정 답변은 28%에 그쳤다. 반면에 ‘매우 잘 못할 것’(48%), ‘별로 잘 못할 것’(21%) 같은 부정 답변이 69%였다.

부정 답변 비율은 서울(68%)과 인천·경기(76%)는 물론, 보수세가 강한 대구·경북(62%)과 부산·울산·경남(61%)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에서도 63%가 ‘잘 못할 것’으로 답하는 등 7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부정 답변이 높았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은 70%가 ‘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선 “만약 윤 대통령을 10분간 만난다면, 국정 수행을 잘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가”라는 주관식 문항을 새롭게 물었다. 이에 대해 응답자 14%는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다음으로는 “대통령직을 내려놓아야 한다”(8%),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6%), “물가·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

해야 한다”(6%),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3%), “야당과 소통하고 협치해야 한다”(3%) 순이었다.

오현석·김정재 기자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 반대 64%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용 무기 지원 가능성을 거론한 가운데, 우리 국민 세 명 가운데 두 명꼴로 무기 지원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무기 공급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4%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면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28%였고, ‘모름·응답거절’은 8%였다.

지역별로 보면 전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다. 반대 응답 비율이 가장 낮았던 부산·울산·경남 지역도 과반인 57%가 무기 지원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경북에서도 반대가 63%였다.

연령별로는 20대(18~29세·찬성 46%, 반대 44%)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반대한다’는 응답이 50% 이상이었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높은 70세 이상 연령대에서도 반대(55%)가

찬성(34%) 비율보다 21%포인트 더 높게 나왔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찬성 43%, 반대 50%)을 비롯해 진보층(찬성 16%, 반대 81%)과 중도층(찬성 24%, 반대 64%), 무당층(모름·응답없음, 찬성 32%, 반대 43%) 등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모두 ‘반대한다’는 응답이 ‘찬성한다’는 입장보다 더 많았다.

무기 공급을 찬성하는 이들 중에서는 ‘방어용·공격용 등 종류와 관계없이 지원해야 한다’가 53%, ‘방어용만 지원해야 한다’가 41%로 나타났다.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우리는 대원칙

으로서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러·북 협력에 기해서 북한이 특수군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한다면 우리가 단계별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또 한반도 안보에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놓고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선 ‘이미 발표한 의대 입시 요강에 따라 2025년엔 신입생 약 4500명을 선발하되, 2026년엔 기존 수준인

3000여명만 뽑고 이후 증원 규모를 재논의하자’는 정치권 일부의 제안에 대해 국민의 48%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한다’는 입장은 39%, ‘모름·응답거절’은 13%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찬성 64%, 반대 23%)과 민주당 지지층(찬성 39%, 반대 49%)의 반응이 엇갈렸다.

지역별로는 충청(대전·세종 포함)과 제주를 제외한 지역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고, 특히 민주당 강세 지역인 광주·전라에서도 ‘찬성한다’가 43%로 반대(4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찬성 37%, 반대 52%)에서만 반대가 앞섰다.

김정재 기자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담당
전문



정승욱
연방세무사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김영선
연방세무사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정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저세교정 운동 (축만증, 후만증)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축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플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웬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치료
관절 / 근육이완치료
전기치료

원장 김우기 DPT

-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예약환자에 한하여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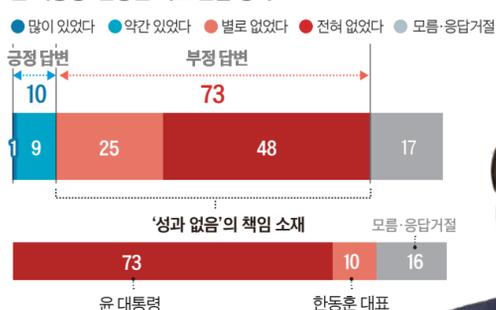
[센터빌, 첼트리 지역]

교통사고·메디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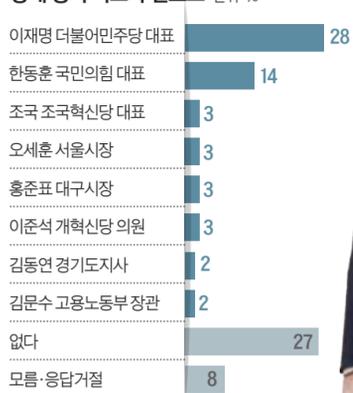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시플랜

“용산, 개각 등 쇠신 가능성”... 참모 총사퇴 뒤 재신임 방안도

윤 대통령-한동훈 대표 면담 성과 단위: %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단위: %



응답률 10.4%, 표본오차 95%, 신뢰도 최대 ±3.1%p

자료: 중앙일보·한국갤럽



대통령실 참모들은 3일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지난 1일 취임 30개월 만에 10%대로 내려앉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임기 반환점(10일)과 맞물린 인위적 인적 쇠신이나, 국면 전환용 대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정책 역량에 집중해 국민에게 성과로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사정은 달랐다. 용산의 많은 이들이 10%대 지지율에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지난 1일 한국갤럽의 국정 지지율 조사(지난달 29~31일 성인 1005명 조사)에서 대구·경북(TK) 지지율이 전국 평균(19%)보다 낮은 18%에 그친 것의 충격이 컸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의 탄핵 공세에 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왜 고심이 없겠느냐”고 말했다.

실제 여권에선 대통령실이 개각을 포함한 인적 쇠신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장수 장관과 업무 역량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평가받는 일부 장관의 이름이 교체 대상으로 오르내린다.

일각에선 지난 4월 총선 패배 때처럼 대통령실 참모와 내각이 총사퇴한 뒤 재신임을 묻는 방안도 거론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용산 내부에서도 변화와 쇠신이 필요하다는 것에 이견은 없다. 윤 대통령의 결심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간 대통령실 관련 언급을 자제해 왔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를 믿고 신뢰하면서 지지하신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여러 가지 입장을 내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여러 정국 상황과, 최근 지지율이 워낙 좋지 않게 나타난 것을 절대 가볍게 볼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용을 대책의 시기와 효과에 대한 당정의 생각은 크게 다르다. 한동훈 대표 등은 윤 대통령 부부의 입장 표명과 인적 쇠신이 즉각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11월엔 국내외적으로 대형 정치·외교 이벤트

가 많고 야당에선 이 대표 선고 전까지 어떤 협조도 안 할 것이라 인적 쇠신을 해도 묻혀버릴 가능성이 크다”(대통령실 참모)고 우려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입장 발표 시점을 미국 대선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 대표의 1심 선고 등이 마무리된 이달 말께라고 얘기하는 이유다.

문제는 한달 가까이 기다릴 시간이 있느냐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용산에서 당장의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변화의 메시지는 서둘러 내야 한다”며 “10%대의 지지율이 고착되면 국정 동력을 완전히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과 명씨의 대화가 담긴 녹취 공개(10월 31일) 후 나흘째 침묵을 유지했다. 그 사이 개별 의원들의 의견을 들으며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이 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직접 나와야 한다”는 뜻도 전달했다고 한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탄핵하겠다고 거리에 나서는 분위기에서 차분한 시정연설이 되겠느냐”며 “아마(대통령실이) 총리가 대독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인·김기정 기자

장외집회 연 민주당 “특검이 최우선”... 탄핵론엔 선긋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며 “특검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연일 정권 비판론을 외치는 것과는 별개로 민주당은 탄핵론에 선을 그은 것이다.

지난 2일 민주당은 서울역 앞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가 이 자리에서 “국민 뜻을 거역하는 권력과 권력자는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된다.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우리의 손으로 확실하게 심판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선 “이단공화국”은 끝나고 민주공화국이 새출발 할 것(김민석 최고위원), “오늘부터 윤석열 정권을 침몰시키기 위해 출정하자”(김병주 최고위원) 같은 발언도 이어졌다. 이날

집회에 30만 명(경찰 추산 1만7000명)이 모였다고 주장한 민주당은 “호응이 컸다. 다음 주에도 독자적인 집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자평했다.

다만 집회 후 당 지도부 비공개 만찬에선 ‘탄핵 신중론’이 나왔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은 지금 상황에서 쉽지 않은 문제다. 당장 탄핵 주장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덕 사무총장은 최근 당 소속 의원 일부가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준비 모임을 출범시킨 데 대해 “당직을 맡거나 지도부로 오해받을 위치에 있는 의원들은 모임에서 빠져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김 총장은 통화에서 “임기 단축은 사실상 탄핵 효과가 있는 건데, 선불리 꺼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중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압박했지만, 민

국민 10명 중 7명 “윤·한 회동 성과 없어”... “윤 대통령 책임” 73%

국민 10명 중 7명이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이른바 ‘81분 회동’에 대해 “성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한 회동’의 ‘성과가 없었다’는 응답은 73%(전혀 없었다 48%, 별로 없었다 25%)였다. 그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있다는 입장이 73%, 한 대표에게 있다는 의견은 10%였다. 전체 응답자의 10%만

주당은 호응하지 않았다. 지도부 관계자는 “탄핵이나 하야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입장과 결이 다르다”고 말했다. 향후 장외 집회도 시민단체나 다른 야당과 별도로 여는 것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탄핵 신중론의 배경으로 몇 가지가 거론된다.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보수 진영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보수 몰락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다”며 “탄핵안이 실

‘성과가 있었다’고 봤다.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된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과 관련해서 한 대표 주장처럼 ‘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상관없이 특별감찰관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43%)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해 특별감찰관을 추진해야 한다’(20%), ‘특별감찰관을 추진하지 않아도 된다’(17%)는 답변보다 배 이상 많았다.

제로 추진되면 오히려 뿔뿔 뿔칠 것”이라고 말했다. 선부른 탄핵 시도가 여권 지지층의 재결집을 부를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의 인용 여부도 불확실하다. 한 재선 의원은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윤 대통령 당선인의 입김이 공천에 작용했다는 물증이 아직 없다”며 “현재도 인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 탄핵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로 가장 높았고, 한 대표는 14%였다. 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각각 3%,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란히 2%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4%, 국민의힘 29%, 조국혁신당 11%, 개혁신당 4% 순이고, 무당층은 17%였다.

윤지원 기자

으로 문재인 정부의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탄핵에 앞서 준비된 집권 세력이란 점을 국민에게 더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시도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28일 재의결을 시도해 여권 반란표를 노리며 여론전에서도 우위를 점하겠다는 입장이다.

성지원 기자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탑 프로듀서
▶ 질로우 프리미어 에이전트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김경아의 독점 COMING SOON LIST!!

1. 옷브리지 타운홈
2. 알렉산드리아 싱글홈
3. 페어팩스 스테이션 싱글홈
4. 매나사스 타운홈
5. 버크 싱글홈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김경아

FAIRFAX REALTY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메디케어!

풍부한 경험과 신뢰의 에이전트

프라임 보험이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This is an advertisement.

프라임 보험(조앤김)
상담전화 (703) 861-9923

14641 Lee Hwy #D3, Centreville, VA 20121
 7535 Little River Tupk. Suite 204, Annandale, VA 22003

[2025 메디케어 변경 및 등록]

메디케어 플랜 변경기간: 2024년 10월 15일 ~ 12월 7일

2025년 플랜에 대한 상담 및 등록

- 눈높이 상담 • 쉬운 설명 • 보험료 및 의료혜택 비교

현재 메디케어 플랜 가입자 / 1960년생이신 분 / 65세 이후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

상담내용	파트 A & B	파트 C	파트 D
	서플리먼트, 플랜 A,B,G,K,L,N	타주에서 이사오신 분들	
	이중 특별 필요 플랜		
	메디케어 (파트 A, B) + 메디케이드 (모든 메디케이드 대상) 추가 혜택 VA 지역, MD 지역		

*We do not offer every plan available in your area. Currently we represent [X] organization which offer [X] products in your area. Please contact Medicare.gov, 1-800-MEDICARE, or your local Statw Health Insurance Program to get information on all of your options.

Sponsored by 스타트브로큰

우리말 바꾸기

‘~와의’ 표현

다음 중 적절한 표현을 고르시오.
 ㄱ. 중국과의 경기에서 이겼다.
 ㄴ. 중국과 경기에서 이겼다.
 ㄷ. 나오는데 ‘과의’가 일본식 표현이므로 ‘ㄴ. 중국과 경기’가 맞다고 하는 사람이 꽤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과의’가 일본식 어법에서 온 것은 맞다. 일본식 이중조사인 ‘~との’를 그대로 옮기면 ‘과의’가 된다. 우리말에선 과거에는 쓰지 않던 표현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과의’가 일본식 표현이므로 ‘의’를 빼고 ㄴ처럼 ‘중국과 경기’라고 하면 될까? 그렇지 않다. ‘중국과 경기’는 불안정한 표현이다. ‘중국과 별인 경기’처럼 서술어를 첨가해야 온전한 말이 된다. 그러다 보면 말이 길어진다.
 그렇다 보니 훨씬 간결한 ‘중국과의 경기’ ‘노조와의 협상’ 같은 ‘과의’ ‘와의’ 표현이 널리 쓰이고 있다. 간결성을 이길 표현은 없기 때문이다. 국립국어원도 이런 현실을 인정해 ‘와의’ 표현을 사전에 올렸다. ‘의’의 용법 가운데 ‘저자와의 대화’란 예문을 들어 놓았다. 인접 언어는 서로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타 언어의 영향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결정하는 문제는 참으로 어렵다.
 결론적으로 ‘과의’ ‘와의’ 표현을 써도 된다. 정이 표현이 내키지 않는다면 ‘ㄴ. 중국과 경기’가 아니라 ‘중국과 별인 경기’라고 해야 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는 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중앙칼럼

내가 던지는 한표의 의미



최인성
 사회부 부국장

그러나 이 후보는 대선에서 돌풍에 가까운 표를 얻었다. 같은 당 소속의 경쟁자를 위협하는 수준이었다. 경쟁 후보가 1만9600여 표를 얻을 때 그는 1만4900여 표를 얻었다. 미시간에서 공부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와 비영리단체 직원으로 일하던 신출내기 정치인이 파란을 일으킨 것이다.
 경쟁 후보는 이 후보가 한인이라는 사실을 감안, 발 빠르게 한인 인사들의 지지 확보에 나섰다. 선거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전술이다. 하지만 이 후보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공법을 택했다. 그는 유세 막바지인 지금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유권자를 만나고 있다. 그와 잠깐 만날 때면 항상 땀방울이 가득한 얼굴이었고, 전화 통화를 하면 길거리 소음이 들려왔다.
 한인이라고 무조건 한인을 지지해야 한다는 것은 억지일 수 있다. 하지만 당선 가능성이 떨어진다 소위 ‘될 사람’을 밀어주자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 제시한 정책과 정치적 소신에 공감

한다면 ‘낙선할 가능성’이 높더라도 그를 후원하고 그의 메시지를 전파하려고 노력하는 유권자들은 자본이 지배하는 오늘날 미국 선거판에서 보석 같은 존재가 아닐까 싶다.
 한인 정치력 신장을 표방하는 단체에 이 후보 지원 여부를 물었더니 ‘될 사람에게 얼굴도장을 찍는 것이 낫지 않냐’는 반응을 보였다. 그런 식의 접근이라면 한인 사회는 항상 얼굴도장만 찍고 돈만 주는 ATM을 자처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 후보에 대한 한인들의 지지는 어떻게든 한인 정치인이 가수 의회에 진출하기를 바라는 열망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모인 에너지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당선이 안 되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커뮤니티 밖에서는 강력한 결집력과 구심점으로 여기며 주시한다. 앞으로도 선거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같은 목적으로 모이는 한인표는 한인 사회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된다.
 선거 때면 한인 유권자들은 또 선택의 갈림길에 설 것이다. 뭔가 용기 있게 바꿔보려는 사람들이 새크라멘토와 워싱턴 DC에 더 필요한 것 아닐까.
 세상에 ‘사표(死票)’는 없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지 후보의 당락만큼이나 한인 사회 일원으로 내가 던진 한표의 의미도 되새겨보면 좋겠다.

이아침에

노에는 투쟁할 줄 모른다



최경애
 수필가

태양이 떠 있을 때까지도 고정되어 버린 듯하다. 나 역시 태양의 빛을 따라서 일상을 시작하고 끝내기로 했다. 새벽 다섯시쯤에 일어나 명상 1시간, 스트레칭 40분, 그리고 아침 식사 준비를 한다. 9시쯤이면 손빨래를 하고 손글씨를 쓰고 신문을 읽는다. 점심 전까지 손과 두뇌를 움직이기 위해 꼭 하는 것이 필사와 독서다. 필사는 속도가 느린 해도 독서보다 기억의 기능이 좋아진다. 오후 3시쯤엔 요구르트와 넷 종류로 이룬 저녁식사를 한다. 중간중간 레몬수를 마시고, 과일과 잡에서 구운 팔 소가 든 홀그레인 호떡도 먹는다. 먹는 일이 심플해지면 삶의 짐에서도 가벼워진다.
 자유는 끊임없이 자신에게서 무언가를 털어내는 행위이다. 소유하려는 것은 탐욕의 반복일 뿐

자신의 모든 것을 쓰레기통으로 만들게 된다. 정신병동의 면적이 넓어지도록 나누고 싶지 않다. 너무 풍요로워서 불행해진다던 가던 길을 바꿀 것이다.
 나에게게는 가난과 자유가 터닝 포인트였다. 정신병동이나 다름없었던 눈을 빠져나오도록 다그치는 각성의 소리를 따르게 되었는데, 사막으로의 여정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텐트의 역할 그 이상이 되어주지 못하는 육신을 끌어안고, 적게 먹고, 쓰고 사용하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공동의 유산임을 한시도 잊지 않아야 했다.
 지구촌의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마실물조차 모자라는 실정이다. 선진국의 미래는 생태학적 빛더미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자성하도록 만든다. 개개인에게 부대방으로 돌아올 자업자득이기에 그렇다.
 온전해진 내면의 힘이야말로 창조목적으로 이끄는 것을 더욱 원하고 선택하게 한다. 파괴의 목적을 멈추고 생명 창조로의 전환을 위해서 정신병동에 갇히지 않으려면 생활 방식에 투쟁이 있어야 한다.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참고, 상가

황계실 부동산 “최고 전문가” 세미나

일시 2024년 11월 9일 오전 10시
장소 14641 Lee Hwy. #109, Centreville (누보 하우스 센터빌 오피스)
예약 황계실 (571) 239-6054 (선착순 20명)

<p>황계실 브로커 내집 동네 최고가로 파는 노하우 (최저 비용, 최대 효과) 2025 집 값 어떻게 될까? 내집 언제, 어떻게 사야 할까?</p>	<p>신대양 StateFarm 대표 사고와 클레임이 증가하는 요즘 내집 보험 점검 필수</p>	<p>테니얼 유 내집 지붕 진단 및 라이선스 소유 업체 선정해야 하는 이유 / 방법</p>
--	---	--

이성호
 Eruda Design & Build Inc (Class "A" License) 대표
 겨울철 내집 관리 요령

부동산 전문 브로커 황계실 571-239-6054

마이클 장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맞춤 용자의 달인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희소식!

버지니아 한인 최초!

OTC Network 승인 SAS 정식 공인 딜러



발은 제 2의 심장!

당뇨신발의 효능

- 혈액순환
- 발 변형 방지
- 혈압 감소
- 무릎 관절염 예방
- 피로도 감소
- 넘어짐 방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신발~

한국인의 체형에 맞는 한국 브랜드 **narzio** 당뇨신발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오랜 전통의 신고 싶은 신발!
최상품 가죽, 수작업으로 만든 **SAS** 당뇨신발

역시 한국인이 만들면 원가 다릅니다!

이쁜 기능성 신발! 한국인이 만든 **패션 당뇨신발/양말**
투박한 당뇨신발은 가라~ 피로가 훨씬 덜 합니다!!

* 혈액순환에 좋은 당뇨 양말도 있습니다.



FDA 승인
당뇨신발 딜러



OTC card로
구매 가능



혜택을 받으세요!

연금 보험

버림받은 목돈 노후보다는
사랑받는 평생연금노후
한국인이 잘못 알고있는 노후 준비-
아까워서 못쓰는 가난한 부자?
여유롭게 평생 쓰는
연금부자가 됩시다!

암 보험

이런 분이 필요합니다.
(18세~ 89세)

1. 암 가족력이 있으신 분
2. 혹시 느낌이 불안하신 분
(병원 가기전에 가입)
3. 심적 안정을 원하시는 분

의사가 암이라는 진단만 내려도
5만불 지급
(피부암 제외)
신체 검사 필요없이 바로 가입



그것이 알고 싶다

무료

메디케어 신청 및 변경

10월 15일 ~ 12월 7일

“ 메디케어는 65세가 되면 정부에서 제공해 주는 의료혜택입니다.
가입기간을 놓치시면 패널티를 내십니다. ”

2025년
확!
바뀐 플랜!
베네핏 제공!

1. 현재 있으신 보험을 다른 플랜으로 바꾸고 싶으신 분
2. 직장보험에서 퇴직하시는 분
3. 타주에서 이사오신 분 메디케어 플랜 이전
4. 각종 플랜 A, B, C, D 와 서플리먼트
5. 메디케어 있으신 분, 각종 베네핏 제공
6. 노인아파트 입주 상담도 해 드립니다.
7. 의심스러운 병원비 찾아드립니다.

국가대표 메디케어 마이크 리 703.679.2010

출장방문 가능 7535 Little River Tnpk. #204, Annandale, VA 22003 • 13850 Lee Hwy., Centreville, VA 20120

ASK미국 온·오프 정보센터

ASK미국 정보센터는 각 분야 100여명의 전문가와 함께 온·오프라인 상담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민, 법률, 세금, 복지, 교육, 부동산, 보험 등 전문지식부터 자동차, 집수리, 컴퓨터, 여행 등의 미국생활까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온라인 상담 <http://ask.koreadaily.com>



크리스 정
재산/상속/트러스트 변호사

Q AB 신탁(AB Trusts)의 이해와 적용

▶문= AB 신탁이 무엇인가요?
▶답= AB 신탁은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연방 유산세를 절감하기 위해 설계된 신탁 구조입니다. 이 신탁은 주로 과거의 유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그 혜택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거주자들에게는 AB 신탁이 오히려 자본이득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 AB 신탁이 처음 생긴 배경은 무엇인가요?
▶답= AB 신탁은 1982년에 제정된 세제 형평 및 재정 책임법(TEFRA)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TEFRA 이전에는 연방 유산세 없이 상속할 수 있는 한도가 단 6만 달러였으나, 이후 이 금액이 60만 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AB 신탁은 부부가 각각의 면세 한도를 결합해 총 120만 달러까지 유산세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2011년과 2017년의 세법 개정으로 유산세 면제 한도가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현재 개인당 면제 한도는 1,292만 달러로, 부부는 총 2,584만 달러까지 유산세 없이 상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터빌리티 제도 덕분에 생존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면제 한도를 인계받을 수 있어 AB

신탁의 필요성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문= AB 신탁이 무엇인가요?
▶답= AB 신탁은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연방 유산세를 절감하기 위해 설계된 신탁 구조입니다. 이 신탁은 주로 과거의 유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그 혜택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거주자들에게는 AB 신탁이 오히려 자본이득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 포터빌리티 제도가 무엇인가요?
▶답= 포터빌리티(portability) 제도는 사망한 배우자의 유산세 면제 한도를 생

존 배우자가 인계받아 합산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가정은 AB 신탁 없이도 유산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 AB 신탁의 필요성이 줄어든 것입니다. AB 신탁의 경우 '기초 원가(step-up basis)'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이 자산을 양도할 때 자본이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100만 달러에 구입한 부동산이 생존 배우자 사망 시점에 200만 달러로 평가된다면, 기초 원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속인은 자산 양도 시 최대 37.1%의 자본이득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스티브 양
웰스파고 한인용자담당

Q 리버스 모기지에 대하여

▶문= 은퇴 후 줄어드는 수입을 보충하기 위하여 리버스 모기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리버스 모기지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들면서 모기지 페이먼트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을 팔아 작은 집이나 시니어 홀로 이사하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집을 팔지 않고도 페이먼트 부담 없이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리버스 모기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리버스 모기지는 한국의 주택연금과

유사하며, 집의 에퀴티(시가와 용자 밸런스의 차이)를 활용하여 기존 용자의 페이먼트를 없애거나, 월 일정 금액의 수입을 확보하면서 그 집에 거주할 수 있는 용자 방식입니다. 기존 용자가 먼저 돈을 빌리고 매월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것이라면, 리버스 모기지는 매월 일정 금액을 수령하고, 나중에 그동안 쌓인 용자 금액을 갚는 구조입니다.
기존 용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원금이 줄어들지만, 리버스 모기지는 매월 금액을 수령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용자 원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사망하거나 계약 기간

이 끝난 후에는 집을 팔아 용자 밸런스를 갚게 되며, 집값이 용자 밸런스를 초과하면 남은 금액은 상속자에게 갑니다. 만약 집값이 용자 밸런스를 커버하지 못할 경우, 상속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빚을 청구할 수 없는 non-recourse 용자입니다.
리버스 모기지는 보통 62세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점보 리버스 모기지도 있습니다. 연방 정부 기관인 FHA가 보증하는 HECM(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s)은 62세 이상이 자격 요건이며, 이자율이 낮은 장점이 있지만

FHA 보증비를 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리버스 모기지를 받아도 집의 소유권은 현재 주인에게 그대로 남으며, 집값이 올라가면 에퀴티도 올라갑니다. 주인은 집을 수리하거나 팔 수 있고, 언제든지 벌금 없이 재융자할 수 있습니다. 일반 용자로 재융자할 수도 있고, 이자율이 더 낮은 리버스 모기지로도 재융자 가능합니다. 단, 주인은 반드시 집을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리버스 모기지를 통한 은퇴 후 삶의 질 향상은 이미 주류 사회에서 널리 활용되는 방법으로, 한인들도 깊이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클라라 안
메디케어 / 보험 플래너

Q 신생 보험회사 혜택이 좋아서 가입하고 싶은데

▶문= 연례가입 중 보험회사를 바꿔보려 하는데 혜택을 비교하다 보니 새로 생긴 보험회사 혜택이 참 좋은 것 같아 가입할까 합니다. 그런데 신생회사이다 보니 믿을 만한 회사인지 무슨 큰 병이 생겼을 때 제대로 커버는 받을 수 있는 건지 혹시 얼마 후 회사가 파산되는 일은 없는지 등 괜한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가입해도 괜찮을까요?
▶답= 귀하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보험 혜택도 중요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회사인지 여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몇몇 회사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른 회사

와 합병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했습니다. 또한, 혜택이 급격히 줄어들어 연례 가입 시 회사를 변경해야만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모든 보험회사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신생 회사에서 더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적은 회사들은 더 큰 네트워크를 가진 회사들과 경쟁하기 위해 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긍정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65세이지만 건강이 양호하여 의사 방문이나 처방약 복용이 거의 없는 분들이나 한국 등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시는 분들은 추가 혜택에 더 중점을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건강보험의 본질적인 혜택을 우선시하여 선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생 회사라 하더라도 연중에 회사가 없어지거나 혜택이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일년 동안은 안심하고 보험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연례 가입 기간에 회사에 대한 평가와 혜택 변화를 확인한 후 다시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입 전에는 본인이 복용하는 약이 제대로 커버되는지, 방문하고자 하는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제가 말하는 신생 회사는 기존의 큰 메디컬 그룹이 자체적으로 만든 플랜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UCLA 메디컬 그룹은 내년부터 자체 상품인 UCLA Health Plan을 출시했으며, St. Jude와 St. Joseph 메디컬 그룹도 Providence라는 보험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문의를 방문하는 데 문제가 없고, 혜택도 좋은 편입니다.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빌딩 3층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먼길, 험한길, 언제나 한결같이 묵묵히 손잡아 주는 **사랑손**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간병사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만족한 회사
러브핸드 홈헬스 & 데이케어에 가족의 돌봄을 맡겨주세요.

은혜안에 한행복, 한소망을 나누는 곳!! 섬김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Medicaid) 신청이 필요하세요? 롱텀케어(Long-Term Care) 신청이 힘드세요?

러브핸드 홈헬스의 전문 상담사가
신청부터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간병인이 필요하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러브핸드 홈헬스의
간병사분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편법이 없는 간병회사를 찾고 있으세요?

원칙의 신념 러브핸드 홈헬스에 전화하세요.
저희는 원칙과 법을 준수합니다.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러브핸드 시니어데이케어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시니어 데이케어
-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구성
- 그리운 맛과 건강을 생각한 집밥으로 아침 및 점심 식사, 그리고 영양 간식 제공
- 의사 방문시 교통편 제공
- 메디케이드 혜택
- 친절한 간호사와 함께하는 수시 건강 체크 및 상담
- 취향에 맞춘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각종 시설 완비
- 일반 회원은 소정의 회원비로 센터이용 가능
- 서류 번역 및 작성 등 제반 소셜 서비스 제공

사랑의 돌봄이있는 러브핸드 홈헬스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전문 간병 서비스
- 노인성 치매, 장애우 전문 간병
- 메디케이드 혜택
- 개인 부담 환자 최저 부담 상담
- Skilled Nurse 서비스
-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직원 모집

- * 데이케어 드라이버
- * 회사 성장으로 인해 일할 더 많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 * 문의: admin1@lovehandhomehealth.com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문의 및 상담

703-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찬들리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Chantilly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703) 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뉴포트뉴스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 Newport News
716 Denbigh Blvd., Suite E-1
Newport News, VA 23608
757) 527-4140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선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교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and VA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VA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703.712.7151
T. 571.405.6540

경제 & 연예/문화 Sports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JoongAng Ilbo Monday, November 4, 2024 C

연방파산법이 지칭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소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평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미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F.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100% 친환경 연료쓰고 폐수 재활용 K패션기업 기술 베트남을 바꾼다

글로벌 기업들의 공장이 몰려 있는 베트남의 요즘 최대 고민은 환경오염이다. 베트남은 공장이 내뿜는 매연 등으로 최악의 대기오염 국가로 손꼽힌다. 수질 상태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게 다름 아닌 한국 섬유·의류 제조기업들이다. 친환경 보일러와 폐수 재활용 시스템을 선제 도입하면서 베트남의 탄소 중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지난달 17일(현지시각) 베트남 동남부 빈프억성에 위치한 한세실업 C&T Vina 3공장. 12월 정식 가동을 앞두고 시범 운영이 한창이다. 이곳은 의류 브랜드인 캡·칼하트 등에 납품할 원단을 생산하는 공장인데, 베트남의 어느 공장에서는 보기 힘든 설비가 있다. 캐슈너트와 왕겨, 톱밥과 같은 바이오매스(식물·미생물 연료)로 가동하는 보일러다. 보일러는 염색 등 원단 생산의 필수 설비인데, 이 보일러는 100% 바이오매스만 사용한다. 베트남내 섬유 공장이 100% 친환경 연료만 사용하는 건 C&T Vina 3공장이 처음이다. 바로 옆의 C&T Vina 1:2공장도 설비 교체 등을 통해 친환경 연료 사용률을 75%까지 끌어 올렸다.

한세실업, 친환경 설비 311억원 투자
이 외에도 3공장에는 기존 제품 대비 물 사용량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염색기 등을 갖추고 있다. 이현승 C&T Vina 공장장은 "기존 염색기 대비 화학약품이 10% 이상 절감되며, 속



1 한세실업 TG법인 1공장의 다림질 작업 라인. 이 공장의 불량률은 0.0125%로 1만장당 1장꼴이다. 2 시범 가동 중인 한세실업 C&T Vina 3공장의 바이오매스 보일러실.

한세실업 현지 공장 가보니
베트남, 대기오염 수준 동남아 2위
공장 환경관리시스템 구축 의무화
왕겨 등 바이오매스로 보일러 가동
친환경 염색기 도입 오염물질 줄여



도도 1.8배 이상 빠르다"며 "설비 비용이 기존 제품보다 두 배 이상 비싸지만, 환경오염 물질 감소 등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세실업은 이 같은 친환경 설비 등을 통해 2027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60% 이상 줄이고, 용수와 전기도 각각 50%, 15% 절감한다는 목표다.

대기오염이 심각한 베트남에 한국 기업들이 친환경 바람을 불어 넣고 있다. 한세실업을 비롯해 효성티앤씨·영원무역 등 베트남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들이 설비 교체 등을 통해 매연·폐수 등 오염 물질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2001

년 베트남에 생산법인을 설립한 한세실업은 최근 3년간 친환경 설비 구축 및 자동화를 위해 2400만 달러(약 311억 원)를 투자했다. 효성티앤씨는 올해 3월 10억 달러(약 1조3700억원)를 친환경 섬유를 생산하는 공장에 투자했고, 영원무역은 공장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추는 등 친환경 시스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C&T Vina 1:2:3공장의 경우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800만t의 왕겨 등을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석탄 대비 탄소배출량을 92% 가량 줄일 수 있다. 오유진 기자 >> 2면 '베트남'으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전직검사 한인2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같은사고! 다른결과!
ROWE WEINSTEIN & SOHN PLLC
로우와이스틴 & 손로폼
Attorneys and Counselors Law

사고가났습니까? 즉시 연락주세요.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부터 사망사고 까지-

사고처리
v 교통사고 직후 현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v 교통사고, 경찰에 신고 해야 하나요?
v 접촉사고 후 가해자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나요?
v 목격자는 필요하나요?

형사처벌
v 교통사고 후 구속되는 경우
v 음주운전 (DUI, DWI)
v 각종 교통 티켓
v 면허정지 (Licenses Suspension)
v 면허취소 (Licenses Revocation)
v 감옥형벌 (Jail Penalty)

패트릭 플로레스 Patrick Flores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pflores@rowepllc.com
노승훈 Robinson S. Rown 전직 검사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rrowe@rowepllc.com
로버트 캐들 Robert Cadle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rcadle@rowepllc.com

MD 301-770-4710 VA 703-887-1037 888-340-7583 www.rowepllc.com
909 Rose Avenue, Suite 640 N. Bethesda, MD 20852 701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300 Annandale, VA 22003 2200 Pennsylvania Avenue, N.W., 4th Floor Washington, D.C., 20037 FAX 301-770-4711 Mrs. Lee 사무장 703-887-1037 www.rowepllc.com

한국내 788만명 코인 한다 1억 이상 보유도 10만명 6개월 새 30%나 증가



한국내 암호화폐 투자자가 800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상의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한 이용자도 10만명을 넘어섰다. 암호화폐 투자는 변동성이 큰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지난 6월 말 기준 한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는 788만명이다. 6개월 전인 지난해 말(645만명)보다 133만명(21%) 증가했다. 이용자의 3분의 2가량은 50만원 미만

을 암호화폐로 투자하는 이용자도 지난해 말 8만1000명에서 지난 6월 말 10만4000명으로 29.8% 늘었다. 10억원 이상 투자자는 같은 기간 2500명에서 3500명으로 늘면서 증가율이 40%에 달했다.

한국내 암호화폐 투자를 주도하는 건 30~40대, 그중에서도 남성이다. 6월 말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3040 남성만 308만명에 달하면

지난 1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 지수펀드)가 출시되고, 4월 비트코인 반감기가 오면서 공급 감소로 인한 가격 상승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거래가 늘었다. 실제 한국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6월 말 기준 55조3000억원으로

암호화폐 거래의 위험성은 다른 투자 상품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암호화폐의 최고점 대비 하락률은 평균 70%에 달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의 가격 변동 폭이 14%, 코스닥 지수는 15%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5배 수준이다. FIU 관계자는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이 지난해 하반기(62%)보다 높아졌다"며 "신중한 투자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진호 기자

▶ 1면 '베트남'에서 이어집니다

원단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마실 수 있는 수준으로 정수하는 시스템(RO System)도 갖추고 있다. 2공장에서 가동 중인 정수 시스템은 하루 최대 1500t을 정수할 수 있는데, 정수된 물을 염색에 재사용해 폐수 배출량을 줄인다. 김철호 C&T Vina 대표는 "향후 C&T Vina 전 공장에 정수 시스템을 도입해 하루 최대 4500t을 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기업들이 공장의 친환경화를 서두르는 건 베트남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스위스 기업 IQAir의 '세계 대기질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동남아에서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 초미세먼지(PM2.5) 농도만 해도 기준치보다 9배 이상 높다. 이에 베트남 정부도 2022년 환경보호법을 개정해 환경관리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등 친환경 공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베트남 정부의 움직임에 한국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생산 비용이다. 친환경 설비는 일반 설비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은 친환경 설비를 갖추는데 주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생산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한 원가 절감으로 이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한세실업의 경우 봉제 단계에서 자동화 설비를 도입해 생산 비용을 낮추는 방법을 택했다. 한세실업 전체 생산량의 62%를 담당하는 베트남 TG법인인 물류 자동화 로봇인 AGV, 스마트팩토리 시스템 햄스(HAMS), 자동 포장기인 오토박스머신을 도입해 생산 비용을 줄이고 있다. 김신일 한세실업 해외팀장은 "생산성이 10%포인트 오를 때마다 공장 비용은 약 5~7%포인트씩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효성티앤씨·영원무역도 친환경 앞장

생산 비용을 봉제 단계에서 상쇄할 수 있는 건 베트남 내 생산시설을 수직계열화(생산품의 생산 전 과정을 통합 운영)한 덕분이다. 한세실업은 2014년 베트남 내에서 편직(編織)부터 원단 염색, 봉제, 제조를 수직계열화해 의류 생산에 최적화된 공장을 갖췄다. 조소정 키움증권 연구원은 "의류 브랜드들의 ESG 경영 확대로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한세실업의 경우 수직계열화, 자동화 설비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근 H&M·타겟과 같은 브랜드들은 원료부터 생산·유통 전 분야에 걸쳐 친환경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 인증 컨설팅 기업인 캡셈의 추미경 대표는 "일부 브랜드는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는 공장과는 계약조차 않는 분위기"라며 "기후 위기가 심화되면서 이 같은 분위기는 앞으로 더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의류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공장들은 폐수와 유해물질 배출과 관련해 고객인 의류 브랜드들의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의류산업 역시 환경친화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베트남에서의 친환경 바람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베트남 정부가 올해 초 생산자·수입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생산자책임확대(EPR) 제도를 확대 시행한 데다 글로벌 고객사인 미국·유럽 등지의 의류 브랜드들이 탄소 배출량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서다. 추 대표는 "한국 기업들이 대내외적 요구사항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원료, 소재, 유통, 품질관리까지 다방면으로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며 "친환경은 산업의 발전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말했다.



자동으로 원단을 운반하는 무인 운반 로봇.



안병역의 마켓 나우

유럽은 트럼프 재선에 어떻게 대비하나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유럽연합(EU)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달 25일 자에서 미국 대선 결과에 대비하는 EU의 모습을 전했다. 이번 미 대선은 '주사위 던지기'에 비유할 정도로 예측이 어렵지만, 유럽은 나름대로 대책 마련 중이다.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를 주축으로 상반기에 만든 미 대선 대응팀을 중심으로 집행위와 회원국 간에 대책이 수시로 마련된다.

27개 회원국 가운데 법치주의 위반으로 EU와 대립각을 세워 온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드러내놓고 친트럼프 진영에 섰지만 나머지 회원국들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돌아온다면 '대서양 양안 관계'의 경제·안보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EU는 신경을 곤두세운다. 트럼프는 집권 시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밝혔다. 미국은 EU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다. 지난해 EU는 총 대미 교역액 8488억 유로와 무역흑자 1557억 유로를 기록했다. 반면 2위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 EU는 2900억 유로가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TF팀은 트럼프 당선 시 대규모 미국산 제품 수입을 제안할 방침이다. 트럼프가 만족하지 않고 무역 전쟁을 시작한다면 유럽도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어서 서구의 두 축을 이루는 미국과 유럽 간에 무역분쟁이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EU 경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독일의 시름은 더 깊다. 무역의존도가 80% 정도인 수출대국 독일은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미국 등지에서 생산된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매긴다면 경제에 큰 타격을 입는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추산에 따르면 무역 전쟁이 미·중과 미·EU 사이에 발발하면 독일 경제는 2026년 -1%, 2028년에는 -1.5% 감소한다. 독일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버금가는 악재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두고 양측은 더 심하게 극과 극을 달린다. 트럼프는 조속한 종전을 공언해왔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EU의 우크라이나 지원액은 공약 기준으로 1182억 유로로 847억을 지원한 미국보다 335억 유로가 많다. 미국 지원액의 56%를 탱크와 미사일 등 첨단 무기가 차지한다. 유럽은 트럼프가 복귀하더라도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올해 초 500억 유로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결정해 실행 중이다. 그런데도 미국이 지원을 중단한다면 유럽이 혼자 이 전쟁을 지속하기는 버겁다. 트럼프는 또 나토의 유럽 회원국에 방위비 분담을 GDP 대비 3% 이상으로 올리라고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는 신냉전의 최전선으로 바뀌었다. 최악을 대비해, EU보다 더 주도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대구대학교 교수(국제관계)

중앙일보 구독: 문의 703-281-9660

MD 지어인트 No. 1 에이전트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퀘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 / 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대선 후 불확실 요인 줄고 시장 성장 가능”

2024 선거와 포트폴리오 운용

투자자들도 선거에 관심이 높다. 2024년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선거가 많은 해다. 인구 규모로 보면 글로벌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올해 선거를 치르고 경제규모로 보면 글로벌 경제의 57%가 선거를 실시한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70%가 영향을 받는다. 이미 선거를 치른 국가들을 보면 이미 몇 가지 흐름이 보인다. 가장 두드러지는 경향은 ‘포퓰리즘’의 득세다. 그리고 ‘세계화’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현금자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운용해왔다면 채권형과 주식형 자산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지난달 24일 트레이더들이 뉴욕증거래소(NYSE)에서 증권을 거래하고 있다. [로이테]

▶변동성

선거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정책 변화도 있지만 불확실성도 높다. 미국 역시 선거가 있는 해 시장 변동성은 높은 편이었다. 선거가 있는 해의 시장 변동성이 없는 해에 비해 평균 10% 정도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08년의 금융위기나 2020년의 코비드 환경 등 예외적인 환경도 이 기간 시장 변동성 평균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을 것이다. 어쨌든 정치적 불확실성은 투자자들을 늘 불편하게 하기 마련이다.

지금은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추가적 요인들이 있다. 인공지능(AI) 활용이 점차 보편화되면서 잘못된 정보도 범람하고 있다. 국가간 무력충돌 상황도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해준다고 볼 수 있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이같은 지정학적 변수와 세계 변화, 연방 채무와 예산 등 다양한 이슈를 둘러싸고 불확실성은 지속될 공산이 클 것이다.

변동성이 높다고 반드시 시장이 하락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로 증시는 선거를 전후한 1년간 양호한 성적을 보여왔다. 변동성이 있더라도 선거 결과가 확인되면 그만큼 불확실했던 요인들은 줄고 시장은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현금보다 증시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을 때 투자자들은 현금 보유를 늘린다. 리스크가 높다고 보기 때문에 관망하는 것이다. 코비드 이후 현금 비중을 높게 유지해왔던 투자자들은 자금 재배치를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채권형 자산 쪽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

상대적으로 여전히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도 추가 이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리인하 사이클이 지속되면 기존 채권자산 값은 상승할 수 있다.

위험자산으로 자금 일부를 재배치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지난 일곱 차례에 걸친 선거 사이클의 경험치를 보면 현금자산은 채권자산과 주식자산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왔다. 특히 선거 이후 성적에서 크게 뒤쳐졌다. 지금까지 현금자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운용해왔다면 채권형과 주식형 자

산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세제 변화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현행 세제의 향배가 달라졌다. 대체적으로 공화당은 이 세법을 영구화하기를 원하고 민주당은 연 4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현 세법이 효력이 다하면 개인 누진 세율이 이전 39.6%로 회귀한다. 이렇게 되면 현 세율의 혜택을 보기 위해 소득인출을 서두르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제를 세율이 변경된 이후로 미루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을 것이다.

AMT 기준치도 내려가고 기본공제도 내려가게 되는 데 역시 그에 상응하는 계획이 필요할 수 있다. 지방세와 재산세 등에 걸려 있는 제한은 없어질 수 있는 데 이는 세율이 높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외 은퇴계좌와 관련된 혜택도 도

마에 오를 수 있다. 연방정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은퇴계좌에 주는 세제혜택으로 줄어든 세수가 무려 168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다.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연방정부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도 많다.

이외에도 은퇴지형의 민영화 가속화될 수도 있고 전혀 반대의 길로 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고소득자에 대한 세수 증가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일반소득으로 간주하는 변화를 추진할 수도 있다.

결국 투자자들은 현세법의 혜택을 최대 활용하는 한편 달라질 수 있는 세법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양도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자산 등에서 나올 소득 상쇄를 위한 ‘손실 추수’ 전략과 지방세, 부동산 섹터 등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정부 지출

세금 문제는 정부의 지출 정책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미연방의 재정적자는 선거결과와 상관없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는 채권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채권시장은 행정부와 의회가 분할될 경우 유리할 수 있다. 상반되는 지출정책이 적자가 늘어나는 속도를 그나마 제어해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세금이 낮으면 성장을 촉진하고, 채권수익률은 올라갈 것이다. 관세가 높아지면 성장에 제동이 걸리고 채권수익률은 내려갈 것이다. 양자가 어느 정도의 여파를 가져오느냐에 따라 채권수익률도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선거결과와 상관없이 ‘하이일드’나 뮤니 등 특정 채권 섹터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식시장은 선거결과에 따라 섹터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은 규제완화로 이어지고 금융, 에너지, 헬스케어 섹터가 혜택을 입을 수 있다. 방위 지출이 늘고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인 석유, 가스 부문이 유리해질 수 있다. 해리스 행정부가 나오면 그린 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청정 에너지 분야의 인프라 산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

선거결과와 그에 따른 환경변화는 금융시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경기 펀더멘털이다. 채권이나 리스크 자산으로의 투자 포트폴리오 재배치가 유의미할 수 있는 환경은 지금까지의 긍정적 흐름이 지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경기둔화가 미미한 수준에서 그치고 낮은 인플레이션, 양호한 고용시장 데이터가 꾸준히 나와준다면 이른바 ‘연착륙’이나 ‘무착륙’ 시나리오가 실현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는 갑자기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경기 펀더멘털 흐름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 리스크 자산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경기둔화가 심화될 경우 능동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어야 할 것이다.

켄 최 아메리츠 애셋 대표

팬데믹 후 높은 현금 비중에서 자금 재배치 권장 현세법 혜택 최대 활용 및 세법 중장기 계획 필요 주식시장 선거 결과 따라 혜택 섹터별 차이 예상

① 워싱턴 중앙일보

좋은 아침! 좋은신문! 중앙일보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nol ~ 하이디 살게로 (Haid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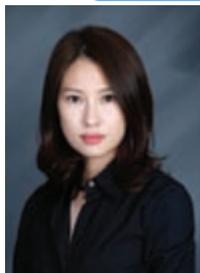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 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고크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PART 17. 로컬 스톡비즈니스 세일즈의 비밀?

세일즈 효과 2배 이상 증폭?

매일 고객을 기다리며 시간만 허비하는 업주를 본 적이 있는가? 성공하는 사업주는 기다리지 않는다. 세일즈 퍼널을 만들어 사용한다.

당신의 로컬 사업체는 어떤가? 둘러보는 이를 자연스럽게 돈 내는 고객으로 전환하는 비밀이 세일즈 퍼널에 있다. 오늘, 그 강력한 비밀을 벗겨보자!

단순하지만 정형화된 세일즈 경로만으로 매출이 2배 이상 오른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셀 수 없이 많은 사업주가 이미 시도, 검증한 비밀 레시피를 오늘 소개한다. '그저 그런 업체'에서 '구매 고객이 저절로 늘어나는 비즈니스'로 바꾸는 시간이다.

말해, '가격만 알아보는 사람'을 '구매 고객'으로 자연스럽게 안내하는 검증된 길을 말한다.

돈 내는 고객으로 바뀌라?

관심 있는 고객은 어디나 있다. 문제는, 이들을 어떻게 더 많이 구매 고객으로 바꾸는가이다. 내 사업체에 딱 맞는 세일즈 퍼널을 만들고, 세일즈 문이나 정보 요청자를 그곳에 넣어 흘러가게 하면 된다. 해 본 사람은 그 차이가 얼마나 막대한지 잘 안다. 저마다 관심의 폭이 다른 잠재고객은 퍼널의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예측 가능한 가시적 매출 증가를 언제나 가져다준다.

퍼널의 장점?

로컬 사업체의 퍼널의 장점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세일즈 노력과 시간이 현저히 준다. 둘째, 고객 신

스톡비즈니스에게 퍼널이란?

퍼널(funnel)은 잠재 고객을 실제 고객으로 바꾸는 단계적 경로이다. 쉽게



윤필홍
IntelSystems대표

외와 구매 욕구가 증가한다. 셋째, 세일즈에 드는 비용이 줄고 투자 대비 수익은 높아진다.

주위의 경쟁사들을 조사해 보면, 정말 그 퍼널 활용이 보인다. 급성장하는 로컬 서비스 사업체는 이와 같은 세일즈 퍼널을 사용해서 수십 배 이상 몸집을 키운 곳이 너무나 많다.

두 갈래의 길?

해보지 않고 "그럴 리가 없지." 하는

이는 늘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뒤질 수밖에 없다. 반면에, "나도 같은 방법으로 해보면 동일한 결과를 얻을 거야!" 하며 시작하는 이는 그 기대에 맞는 효과를 보게 된다. 운이 아니다. 수없이 반복해서 검증된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세일즈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퍼널 활용을 시작한 로컬 사업체는 대부분 큰 결실을 보았다. 지금도 당신 주위의 많은 사업체는 퍼널을 통해 가파른 성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신비한 방법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더 이상 비밀도 아니다. 퍼널의 보따리는 풀어진 지 오래다. 행기는 사람이 쉽게 집어가는 선물처럼 눈앞에 있다. 잡는 당신이 그 혜택의 임자가 된다.

앞으로 다들 로컬 사업체에 딱 맞는 세일즈 퍼널 실천 핵심 방법을 미리 보자:

-구글 비즈니스 프로필 최적화로 지역 검색 노출 극대화 유도한다

-무료 정보나 꿀팁, 할인, 또는 선물 등으로 관심 고객을 현저히 높인다

-고객 팔로업, 예약과 소통까지 24/7 자동화 되도록 셋업 해 놓는다.

-구매 후 감사 인사와 리뷰 요청이 자동 발송되게 하여, 재구매와 입소문 마케팅이 저절로 늘도록 한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활용되고 있는 업종별 예와 사용 방법을 다루겠다. 이 방법을 마스터하기 위해, 한 가지 숙제를 해 놓으면 좋다. 내 주위의 잘 나가는 경쟁사들이 위의 4가지 퍼널 전략을 어떻게 유리하게 셋업해서 활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특별한 오퍼, 랜딩 페이지, 마케팅 문, 무료 ebook >문의:703-337-0123, www.intelsystems.com

세법 상식



윤주호
CPA

메이저리그 야구와 세금

오타니 쇼헤이 등 고연봉 선수 소득세 50% 넘어 메이저리그 사치세 도입 팀들 간 경쟁 유도

월드시리즈가 43년 만에 미국 최대 도시 뉴욕과 LA가 맞붙으면서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게다가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 무키 베츠, 프레디 프리먼과 양키스의 애런 저지, 후안 소토, 지안 카를로 스텐튼 같은 슈퍼 스타들의 대결을 볼 수 있는 최고의 흥행 매치업이 성사되면서 MLB 사무국은 돈방석에 앉았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연봉은 상상을 초월하기도 하는데, 현재 연봉이 가장 높은 선수는 오타니 쇼헤이로 10년 7억 달러입니다. 투수 중 최고액은 야마모토 요시노부의 12년간 3억 2500만 달러입니다. 이런 고액 연봉 선수들도 세금은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관문입니다. 세금은 얼마나 내는 걸까요.

우선 세금은 연방세와 주세로 나뉩니다. 연방세는 소득의 수준에 따라 7개 구간으로 분류되는데, 최저 10% 구간에서 최고 세율 37%까지 나

뉩니다. 고연봉 선수들은 모두 연방정부 최고 세율 37%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문제는 주 소득세인데 이는 주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텍사스나 네바다, 플로리다 등 7개 주는 주 소득세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최고 세율이 13.3%로 전국 1등이며, 뉴욕주는 8.82%로 7위권입니다.

LA다저스 소속인 오타니와 야마모토 등 다저스 고액 연봉 선수들은 연방 및 주정부 소득세를 합쳐 연봉의 50.3%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 고소득자들에게 부과하는 추가 메디케어 택스 0.9%, 캘리포니아 주정부 상해보험택스(SDI) 1.1%까지 합치면 52.3%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크 택스(Jock Tax)'까지 더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크 택스는 연고지가 아닌 다른 주에서 경기하면서 버는 소득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이른바 운동선수 세금입

니다. 시즌 내내 주를 옮겨가면서 경기를 하는 MLB 선수들은 타주 원정 경기를 펼 경우 그 주에서 일한 것으로 간주해 해당 주에서도 일부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렇게 캘리포니아 주의 고연봉 선수들은 수입의 5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다저스는 MLB 구단 팀 연봉 순위로는 전체 3위지만, 세법상 캘리포니아주 거주민인 다저스 소속 선수들의 소득세 납부 총액은 전체 1, 2위를 다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수들이 텍사스주를 선호하는 이유는 주 소득세가 없기 때문인데 예전에 박찬호, 추신수 선수가 FA 계약 시 텍사스 레인저스를 선택하기도 했고, LA다저스 출신인 코리 시거 선수도 연봉 총액이 더 높았던 다저스를 등지고 텍사스 레인저스를 택하기도 했습니다.

세금까지 계산하면 실수령액이 더 높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승 가능성이 큰 대도시 연고의 빅마켓을 선호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는 MLB Luxury Tax(사치세)가 있습니다. 팀의 전체 연봉(40인 명단 선수 포

함)이 일정액을 넘어가면 세금을 부과받게 되는데, 돈 많은 팀이 우수한 선수들을 다수 영입하는 걸 막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경쟁경쟁세(Competitive Balance Tax)라고도 합니다.

이 사치세 기준은 2024시즌 2억 3700만 달러로 이를 넘기게 되면 첫 시즌은 초과액의 20%를, 두 번째 시즌까지 초과하면 30%, 연속 세 번째 시즌까지 초과하면 50%의 누진적인 사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과거 기록을 보면 양키스는 2003년부터 14년 연속 사치세를 부과받았고 납부 총액은 3억 2504만 달러였으며, 다저스는 2013년부터 4년간 1억 1344만 달러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3년 시즌에는 양키스, 다저스 등 총 9개 팀이 사치세를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50홈런-50도루 클럽에 가입하여 2024시즌 MVP가 확정적인 오타니가 총액 7억 달러에 다저스와 계약을 했지만, 총액의 97%인 6억 8000만 달러는 10년 뒤부터 받기로 해서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 이를 통해 다저스는 사치세 일부를 피하면서도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해 야마모토라는 걸출한 일본인 투수를 영입했습니다.

리얼티 원 부동산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후원 주택 리스팅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자체 인테리어 소품 구비)

"집을 예쁘게 단장해 드립니다"

<p>SOLD</p> <p>Hanover</p> <p>\$580,000 타운홈, 방3, 화4, 차고2</p>	<p>UNDER CONTRACT</p> <p>Laurel</p> <p>\$589,000 싱글홈, 방4, 차고1, Upgraded</p>	<p>UNDER CONTRACT</p> <p>Edgewater</p> <p>\$575,000 싱글홈, 방3, 화2, 0.45에이커</p>	<p>UNDER CONTRACT</p> <p>Odenton</p> <p>\$465,000 타운홈, 방3, 화3</p>	<p>COMING SOON</p> <p>Perry Hall</p> <p>\$575,000 싱글홈, 방3, 화2</p>
<p>UNDER CONTRACT</p> <p>Catonsville</p> <p>\$395,000 싱글홈, 방4, 화2</p>	<p>UNDER CONTRACT</p> <p>Elkridge</p> <p>\$515,000 타운홈, 방3, 화3</p>	<p>UNDER CONTRACT</p> <p>Ellicott City</p> <p>\$475,000 타운홈, 방2, 화2.5, 차고1</p>	<p>UNDER CONTRACT</p> <p>Jessup</p> <p>\$389,000 타운홈, 방2, 화2</p>	<p>UNDER CONTRACT</p> <p>Ellicott City</p> <p>55+ Luxury \$425,000 콘도, 방2, 화2, 1,438sf</p>

《《《 렌트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RENT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p>RENTED</p> <p>Elkridge</p> <p>월 \$2,400 타운홈 방3, 화3</p>	<p>RENTED</p> <p>Sliver Spring</p> <p>월 \$3,500 타운홈</p>	<p>Germantown</p> <p>월 \$2,100 콘도 방2, 화2</p>	<p>Hanover</p> <p>월 \$2,650 타운홈 방3, 화3, 차고1</p>	<p>Germantown</p> <p>월 \$2,000 타운홈 방2, 화3 (지하실 제외)</p>	<p>Glen Burnie</p> <p>월 \$1,750 콘도 방2, 화1</p>
---	---	---	--	---	--

미 복음주의는 어떻게 트럼프와 결합됐나



나라, 권력, 영광
팀 앨버타 지음
이은진 옮김
비아토르

국외자의 눈으로 미국 정치를 이해하기란 쉽지는 않다. 복음주의자로 불리는 보수 성향 기독교인들의 강력한 트럼프 지지 현상도 그렇다. 교인이 아닌 눈에도 그의 언행은 성경의 가르침과 멀어 보이는데, 미국 복음주의 유권자의 81%가 2016년 대선에서 그를 지지했다.

트럼프와 비교하자면, 그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는 자타공인 이름난 신앙인. 펜스는 “저는 기독교인이자 보수주의자이며 공화당원”이란 말로 늘 연설을 시작했다. 한데 2021년 1월,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공격 직후 펜스는 트럼프와 갈라섰고, 자신이 속한 신앙 공동체의 조롱거리가 됐다. 트럼프는 “행동할 용기가 없었다”고 그를 비난했고, 관중들은 펜스의 이름에 야유를 보냈다. 펜스가 이전에 술하게 연사로 참여했던 복음주의 행사에서 지은이가 목격하는 일이다.

앞서 미국 공화당과 트럼프에 대한 책(『The American Carnage』)을 쓴 지은이는 현재 기자이자, 복음주의 목사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기독교인. 보수적인 동네의 보수적인 교회에서 26년간 담임목사로 사역한 부친은 2019년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트럼프에 비판적인 지은이의 전작이 출간된 직후였다. 교인들은 그에게 위로와 애도보다 비난과 조롱을 건넸다. 트럼프를 비판하는



이번 미 대선 공화당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4일 유세에서 연설하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건 “하나님과 국가에 대한 반역”이라고 편지를 보내온 교인도 있었다.

과연 뭐가 문제일까. 지은이는 이후 4년간 복음주의 목회자들과 관련 기관, 여러 집회와 행사 등을 취재해 이 책을 썼다. 책에 따르면 복음주의는 개혁과 프로테스탄트를 가톨릭교도와 구분하기 위해 쓰던 표현에서 비롯된 말. 정치적 성향의 운동으로 변모한 건 1980년대였다. 책에도 그 삶이 상세히 나오는 제리 팔웰(1933~2007) 목사가 이끈 모럴머조리티 운동이 계기였다. 지은이는 ‘복음주의자’가 점차 보수 기독교인, 나아가 공화당 지지 백인 보수주의자와 동의어가 됐다고 전한다.

트럼프 지지를 이런 흐름으로만 설명하기 힘들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복음주의자들 사이에는 ‘미국에 나라에 빠졌고’ ‘기독교가 공격받고

있다’는 식의 인식과 부추김이 증폭됐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되자 많은 기독교인이 “당연히 우려했다”고 지은이는 전한다. 그동안 종교적 우파는 공직자에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고 대통령 시절 성추문을 일으킨 클린턴을 맹공했다.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지 않았다. 지은이는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트럼프의 단점을 포용하는 새로운 전략, 다시 말해 그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불완전한 도구”로 제시하는 전략을 썼다고 전한다.

사실과 다른 주장, 성경을 왜곡한 인용 등을 꼼꼼히 지적하며 지은이는 직접 만나고 들은 목회자·정치인의 말, 교회·집회의 분위기를 상세히 전한다. 주기도문에서 제목을 인용한 이 책 첫머리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력과 영

광은 ‘이 세상’의 상응하는 어떤 것과도 결코 비교할 수 없음에도, 너무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이 둘을 동시에 추구하려다 교회에 파괴적 결과를 불렀다고 비판한다.

책을 덮고 나면 “정치 서적으로는 지나치게 종교적”이고 “기독교 서적으로는 지나치게 정치적”이면서도 “미국 정치를 이해하는 새로운 창”을 열어준다는 옮긴이 말에 공감하게 된다. 종교의 정치화, 정치의 종교화로 불릴 만한 현상과 문제는 미국만의 일은 아닐 터. 미국 건국 주역들이 신정정치를 극도로 경계했다는 지적, 트럼프즘이 ‘시민종교’가 되고 미국이 ‘우상’이 되고 있다는 분석과 비판도 눈에 들어온다. 원제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American Evangelicals in an Age of Extremism. 이우남 기자

상상 초월하는 부 해악을 막으려면



부의 제한선
잉그리드 로베인스 지음
김승진 옮김
세종서적

2022년,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발표한 테슬라 소유주 일론 머스크의 총재산 추정액은 2190억 달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302조원, 일반인에겐 상상조차 어려운 숫자다. 우리가 20세부터 65세까지 45년간 매주 50시간씩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만큼의 재산을 모으려면 시간당 187만1794달러(약 25억8000만원)를 벌어야 한다. 이 역시 상상 불가다.

네덜란드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저자의 의문은 여기서 시작했다. 자본주의 사회에는 왜 남들에 비해 말도 안 되는 규모의 돈을 버는 ‘슈퍼 리치’들이 존재하는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은 그럴만한 자격이 있을까? 한 개인이 제한 없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소비하는 것은 윤리적이고 민주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 격차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떤 이들이 상상을 초월한 부를 갖는 것은 사회에 큰 해악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극단적 부의 집중은 사회 통합을 해치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며, 민주주의와 인간의 도덕적 원칙을 위배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리하여 내려진 결론이 개인이 가진 부에 ‘상한선’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 이른바 ‘제한주의(Limitarianism)’다.

그럼 제한선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저자는 각 나라의 제도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정치적 제한선’으로 자산 기준 1000만 달러(약 137억원), ‘윤리적 제한선’으로 100만 달러(약 13억7000만원)를 든다. 정치적 제한선이란 국가가 조세 시스템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하고, 윤리적 제한선이란 개인이 양심의 가책 없이 정당화할 수 있는 주관적인 부의 규모를 뜻한다.

공산주의로 가자는 이야기냐? 저자는 이런 반론들에 다양한 데이터와 사례를 들어 반박한다. 실현 가능성과는 별도로,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생각의 전환을 촉구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는 책이다. 순자산 1000만 달러 이상인 부자의 수가 세계 10위인, 반면 빈곤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은 턱없이 약한 한국에는 ‘더 나은 자국’이 될 법하다. 이영희 기자

책꽂이



참사는 골목에 머물지 않는다(10·29 이태원 참사 작가기록단 지음, 창비)=부제 ‘이태원 참사 가족들이 길 위에 새겨온 730일의 이야기’. 2022년 10월 29일의 이태원 참사 이후 2년. 내국인과 외국인 희생자를 아울러 25명의 유가족을 인터뷰하고 동행하면서 이들의 목소리와 발자취를 담았다. 활동가·작가 8명이 기록단에 참여했다.



왜 미국은 이스라엘 편에 서는가(존 J 미어샤이머·스티븐 M 윌트 지음, 김용환 옮김, 크레타)=각각 미국 시카고대, 하버드대에 재직 중인 교수이자 국제정치 현실주의 학계에서 이름난 두 석학이 이스라엘의 로비가 미국의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파고 들었다. 도전적 주제로 2007년 영문 단행본 출간 전부터 큰 화제와 논쟁을 부른 책이다.



동물의 자리(김다은·정운영 지음, 신선영 사진, 돌고래)= 영어로 안식처·보호구역을 뜻하는 생추어리는 동물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터전을 가리키기도 한다. 국내 5곳의 생추어리 가운데 인제 꽃풀소달뜨는 보금자리, 화천 곰 보금자리, 제주 곳자왈 말 보호센터 마레숲, 돼지들이 살고 있는 새벽이생추어리 등 4곳을 취재해 담았다.



맨 에리얼리 미스빌리프(댄 에리얼리 지음, 이경식 옮김, 청림출판)=부제 ‘이성적인 사람들이 비이성적인 것을 믿게 되는 이유’. 『상식 밖의 경제학』 『경제 심리학』 등의 저서로 이름난 지은이는 코로나19 관련 음모론에 휘말린다.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자신의 경험과 함께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믿는 사람들의 심리 등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약속같은 부동산 비키리

11월 HOT 리스팅

- ▶ 디씨 콘도 렌트, 스튜디오 \$2100 아메리칸 대학, 조지타운 대학, 조지워싱턴 대 차로 10분거리
- ▶ 스텔링 2024년 지어진 새 콘도 \$2800 방2 + 화2 즉시 입주 가능
- ▶ 덤프리 타운하우스 \$2,350 방3, 화2.5, 즉시 입주 가능
- ▶ 우드브리지 콘도 \$2,800 2005년 지어진 새 콘도 방3 + 화2, 차고 1 게이트 커뮤니티 넓고, 밝은 깨끗한 집, 즉시 입주 가능
- ▶ 타이슨코너에 인접한 타운하우스 비엔나 \$3,300 방3+ 화3.5, 지하실 넓고 작은 뒷마당 겸비, 즉시 입주 가능

독점 리스팅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앰플러스 부동산 대표 / 약속같은 부동산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 어르신 모십니다!

“정성과 돌봄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 양질의 한식과 간식
- 한국 TV 시청 가능
- 최고의 시설 (1인/1실)
-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
- INOVA 병원 5분 거리

문의 703-980-9890

실패가 두려울 땐 이렇게 외쳐라 “그래서 어찌라고”

(So what?)



박찬호 대표(왼쪽)는 야구공을, 이태일 부사장은 연필을 잡았다. 박찬호의 고교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야구선수, 야구기자이자 구단 운영자 경험을 바탕으로 야구의 가치와 방향성에 대한 모색을 담은 책 『베터 앤 베터』를 썼다. 최기웅 기자

올해는 ‘코리아 특급’ 박찬호가 미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 진출한 지 30주년 되는 해다. 1994년 한양대 3학년이던 박찬호는 LA 다저스에 입단했다. 불같은 강속구를 앞세워 다저스 선발투수가 된 그는 IMF 외환위기로 신음하던 국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줬다. 이후 텍사스 레인저스-뉴욕 양키스 등 MLB 명문 팀들을 거치면서 아시아 선수 최다인 124승을 거뒀다. 그가 닦은 길을 따라 김병현-추신수-류현진-김하성-이정후 등이 세계 최고 리그에 입성했다.

박찬호의 MLB 데뷔 30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책이 나왔다. 『베터 앤 베터』(사진·지와인)는 박찬호 팀61 대표, 그리고 그의 오랜 멘토인 이태일 프레인 스포티즌 부사장이 함께 썼다. 중앙일보 야구전문기자를 거쳐 KBO리그 NC 다이노스 초대 사장을 역임한 이 부사장은 박 대표와 40년 가까이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두 저자와 함께한 인터뷰는 ‘박찬호 빌딩’으로 알려진 서울 신사동 PSG빌딩 팀61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책의 키워드에 대해 묻고 대답하는 방식이었다.

-책 제목 ‘베터 앤 베터’(BETTER & BETTER)의 의미는?

▶박찬호 대표(이하 박)=“나는 늘 더 나아지려고 노력했고, 분명한 계획을 세웠다. 그 노력과 꾸준함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 이태일 대표는 항상 조언을 해 줬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도 많았



다. 형제 이상의 친밀감도, 의견 충돌도 있었다. 끊임 없는 질문 속에서 서로 성장했던 것 같다.”

▶이태일 부사장(이하 이)=“큰 제목인 ‘B2’는 베이스볼 앤 베이스볼을 뜻한다. 야구 선수가 본 야구, 기자와 구단 운영자 입장에서 본 야구, 그를 통해 얻었던 교훈들을 담아보려고 했다.”

-‘눈앞에 있는 타자를 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를 알아가는 일이었다’에 담긴 뜻은?

▶박=“1998년 다저스에 대투수 케빈 브라운이 있었다. 자신에게 혹독하고 까칠한 선수였는데 어느 날 자기 방으로 날 불렀다. 노인 한 분이 계셨는데 브라운의 멘털 코치인 하비 도프만 스포츠심리학 박사였다. 슬럼프에 빠져 있던 날 도와주려고 특별히 불렀다고 했다. 본인 얘기를 해 보라고 해서 서툰 영어로 30~40분 말했더니 다 듣고 나서 ‘알았다. 이젠 너의 얘기를 해라’고 말하는 거다. ‘왓? 지금까지 내 얘기 했다’ 그랬더니 ‘아니다. 부모님 걱정, 팬들에 대한 부담감, 동료에 대한 미안함 이런 건 내 얘기가 아니다’고 했다. 나는 타인의 생각과 행동을 내 것이라고, 내 얘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다.”

-그럼 자신의 얘기는 뭔가.

▶박찬호·이태일 40년 가까운 우정 고교 유망주와 기자로 인연 맺어 피지컬보다 호기심·꾸준함이 중요 답력 키우려 한밤 공동묘지도 찾아

실패는 부족이 아니라 의심 때문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다시 하면 돼

▶박=“내가 이렇게 던졌는데 공이 이렇게 가더라, 무시무시한 홈런 타자도 내가 몸쪽 직구 던졌더니 못 치더라, 이런 게 내 얘기라고 도프만 박사가 말해줬다. ‘부모·구단·팬·미디어 이런 건 늘 변한다. 변하는 건 내 것이 아니다. 네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것만이 네 것이다’는 말에 큰 깨달음을 얻었다. 내가 유일하게 컨트롤 할 수 있는 일, 즉 공을 어떻게 던질 건지 결정해서 목표에 정확하게 던지는 데만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결국 타자와 나의 승부지 나와 타자의 승부가 아닌 것이고, 내가 타자를 아웃 시키는 게 아니라 타자가 아웃을 당하는 거다. 그날 이후 슬럼프를 벗어났다.”



2015년 LA 다저스 시니어 캠프에 참가한 박찬호와 당시 NC 다이노스 김경문 감독, 이태일 사장(왼쪽부터) [사진 지와인]

▶박=“내가 이렇게 던졌는데 공이 이렇게 가더라, 무시무시한 홈런 타자도 내가 몸쪽 직구 던졌더니 못 치더라, 이런 게 내 얘기라고 도프만 박사가 말해줬다. ‘부모·구단·팬·미디어 이런 건 늘 변한다. 변하는 건 내 것이 아니다. 네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것만이 네 것이다’는 말에 큰 깨달음을 얻었다. 내가 유일하게 컨트롤 할 수 있는 일, 즉 공을 어떻게 던질 건지 결정해서 목표에 정확하게 던지는 데만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결국 타자와 나의 승부지 나와 타자의 승부가 아닌 것이고, 내가 타자를 아웃 시키는 게 아니라 타자가 아웃을 당하는 거다. 그날 이후 슬럼프를 벗어났다.”

▶박=“그 책 모서리를 후루룩 넘기면 투구 동작을 연속으로 볼 수 있었다. 나한테는 큰 쇼크였다. 빠른 볼을 던지려면 저렇게 해야 하나 싶어서 흉내도 내 봤다. 책에는 투수가 웨이트 트레이닝과 러닝을 많이 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당시 국내에선 투수가 웨이트를 많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나는 근력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다.”

-가장 이상적인 타구폼은 근력도 스피드도 아닌 호기심과 꾸준함이다?

▶박=“난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친구였다. 임춘에 선수가 라면 먹고 우승(1986 서울 아시안게임 육상 3관왕)했다는 기사 보고 ‘잘 뛰려면 라면을 많이 먹어야 되나 보다’ 싶어서 한동안 엄청 먹었다. 답력을 키우기 위해 한밤중에 공동묘지도 가고 캄패들 많은 유흥가도 가 보고 했다. 그런 호기심을 통해 찾은 뭔가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박=“피처스 바이블”이라는 책을 빼서 넘겨보길래 놀란 라이언이 어떤 투수인지 설명을 해 줬다. 그 책을 본다고 해서 메이저리거가 될 거라는 생각은 못했다.(웃음)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놀란 라이언 특유의 하이킥 투구 폼을 하고 있더라. ‘아, 찬호가 지식에 대한 의지와 배우려는 열정이 강하구나. 멋진 선수가 돼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전해줄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

▶박=“내가 이렇게 던졌는데 공이 이렇게 가더라, 무시무시한 홈런 타자도 내가 몸쪽 직구 던졌더니 못 치더라, 이런 게 내 얘기라고 도프만 박사가 말해줬다. ‘부모·구단·팬·미디어 이런 건 늘 변한다. 변하는 건 내 것이 아니다. 네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것만이 네 것이다’는 말에 큰 깨달음을 얻었다. 내가 유일하게 컨트롤 할 수 있는 일, 즉 공을 어떻게 던질 건지 결정해서 목표에 정확하게 던지는 데만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결국 타자와 나의 승부지 나와 타자의 승부가 아닌 것이고, 내가 타자를 아웃 시키는 게 아니라 타자가 아웃을 당하는 거다. 그날 이후 슬럼프를 벗어났다.”

▶박=“난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친구였다. 임춘에 선수가 라면 먹고 우승(1986 서울 아시안게임 육상 3관왕)했다는 기사 보고 ‘잘 뛰려면 라면을 많이 먹어야 되나 보다’ 싶어서 한동안 엄청 먹었다. 답력을 키우기 위해 한밤중에 공동묘지도 가고 캄패들 많은 유흥가도 가 보고 했다. 그런 호기심을 통해 찾은 뭔가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박=“우리가 실패하는 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심이 많아서다. 여기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홈런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과 의심이 사람을 혼든다. 그럴 때 내뱉는 ‘그래서 어찌라고’라는 말에는 용기와 대범함, 챌린지(도전)가 있다. 상사에게 내는 보고서를 만들 때 ‘통과될 수 있을까’ 걱정하기 보다는 ‘소 왓’의 마음으로 내 버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좌골 신경통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어깨, 무릎 통증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교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산삼

하늘이 내린 최고의 명약

미국 가장 청정지역 West Virginia에서
저와 현지인이 직접 캐온 야생 산삼입니다.

“30~40년 이상의 최상급 산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면역력 | 항암효과 | 당뇨 | 혈압 | 체력증강

1/2 Pound \$600부터

Dealer No. 90-491972 • Permit No. 007669

문의 (571) 236-8591

14800 Rydell Rd., Centreville, VA 22121

100년이 지나도 좋은 디자인 만든다, 옷 짓는 철학자

“브랜드를 지속할 때 아티스트(왼손)와 비즈니스맨(오른손)은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죠. 당신은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야 하는데, 이 비율을 각각 어느 정도로 유지하나요?”

“디자인에는 상상력, 경영에는 논리력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내 왼손과 오른손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기도할 때처럼 늘 서로에 기대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함께 고민하죠.(웃음)”

지난달 26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만난 ‘미나 페르호넨(minä perhonen)’ 창립자 미나가와 아키라(57)와의 인터뷰는 이렇게 선문답처럼 시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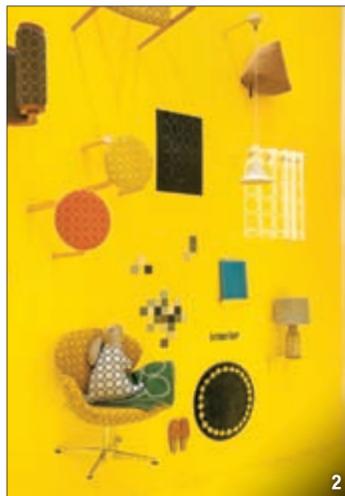
1995년 시작된 미나 페르호넨은 텍스타일(원단)을 기반으로 패션·식기·가구·인테리어·공간 디자인 등 다양한 영역을 다루는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로 현재 DDP에서 대규모 전시 ‘미나 페르호넨 디자인의 여정: 기억의 순환’전을 열고 있다.

핀란드어로 미나(minä)는 ‘나’, 페르호넨(perhonen)은 ‘나비’를 뜻한다. 나비의 날개처럼 아름답고 경쾌한 디자인을 만들고 싶다는 의미다. 일본 브랜드지만 브랜드 명에 핀란드어를 사용한 것은 미나가와 아키라의 특별한 경험 때문이다.

부상 탓 육상선수 꿈 접고 패션 눈떠

육상 선수가 꿈이었던 그는 고교 3학년 때 발목을 다치면서 체육대학 입학을 포기했다. 다른 진로는 선택할 생각이 없었던 그는 목적도 없이 파리 여행을 떠났고 여학교를 다니던 중 우연히 일본 패션 브랜드 ‘준코 코시노’ 파리컬렉션을 돕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 “뭘지? 이 세계는! 내 마음속 새로운 스위치가 켜졌죠.”

귀국 후 낮에는 봉제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복장학원을 다니며 패션·디자인 세계에 입문한 그는 머릿속 상상력을 종이로 옮기는 그림 그리기도 시작했다. 이후 브랜드를 창립하고 안정기



1 '미나 페르호넨' 창립자 미나가와 아키라. 2 브랜드 대표 무늬 '템버린' 텍스타일로 제작한 디자인 가구, 소품들. 사진 미나페르호넨

에 접어들 때까지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어시장에서 참치를 손질하고, 스시집에서 스시를 만드는 등 여러 가지 일을 병행했다. 하지만 그림 그리기를 멈추지 않았고 지금까지 그는 미나 페르호넨의 수백 가지 패턴(무늬)을 직접 손으로 스케치하고 디자인한다. 그의 독창적인 그림은 일본 아사히 신문의 연재 칼럼 ‘일요일에 생각하다’ 삽화로도 확인할 수 있다.

“패션이나 디자인, 그림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게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줬죠. 배움은 정답을 쉽게 찾는 방법을 알려주지만 그건 외부에서 얻은 힌트라 그 답에 자꾸 나를 맞추게 되죠. 하지만 나는 늘 내 안에서 답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야 더 자유롭게 나만의 색깔을 가진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으니까요.”

돈이 생길 때마다 유럽 여러 곳을 여행하던 그는 북유럽 핀란드에서 미나 페르호넨을 위한 중요한 철학을 확립한다. 바로 ‘100년이 지나도 좋은 물건을 만드는 일’이다.

“핀란드 사람들에게는 좋은 물건을 사서 후손에게 물려줄 만큼 오랫동안 쓰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더군요. 시간이 지나도 퇴색하지 않는 질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그 물건과 함께 좋은 기억들을 경험하게 하자 생각했죠.”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패스트 패션 시대를 최대한 역행해 느리게 가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좋은 물건은 사용하는 이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하고, 그 기억은 다시 좋은 물건을 만

들게 하는 힘을 갖게 한다. 이 생각은 비단 옷 생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일본 전역에 위치한 16 곳의 미나 페르호넨 직영점은 그 도시의 오랜 전통과 문화를 반영한 독특한 지역성을 갖는 것으로 유명하다. 오래된 건물을 그 지역 장인들과 함께 전통방식으로 되살리고 꾸며서 앞으로의 100년을 도모한다. 브랜드가 사용하는 모든 직물을 일본에서 전량 생산하는 것은 일본 내 직물업자들의 100년을, 자투리 천 하나도 남기지 않는 디자인을 추구하는 것은 지구의 100년을 위해서다.

아사히 신문 칼럼에 삽화 그리기도

“가장 최근 문을 연 이와테현 직영점을 옛날 모습으로 복원할 때는 예상보다 10억원이 넘는 돈이 더 쓰였죠. 그런데 100년의 날 수도 그 돈을 나누면 고작 하루 3000원이 든 셈이에요. 하루 3000원 투자로 오래된 좋은 풍경을 앞으로 100년 동안 더 볼 수 있다면 남는 장사 아닌가요.(웃음)”

DDP에서 내년 2월까지 진행되는 ‘미나 페르호넨 디자인의 여정: 기억의 순환’ 전시에선 이 ‘옷 짓는 철학자’가 천천히 고집스럽지만 유쾌하게 걸여온 30년을 감상할 수 있다. 전시는 총 11개의 공간으로 구성됐는데 어느 공간에선 동화처럼 해맑고 순수한 그림들을, 어느 공간에선 오랜 단골들이 보내온 옷과 편지를 볼 수 있다. 또 어느 공간에선 엄마와 딸이 함께 입어도 좋을 지속 가능한 옷들을, 또 어느 공간에선 한국 공예작가 4인과 협업한 매력적인 가구들을 만날 수 있다. 알록달록한 컬러, 기분 좋아지는 스케치, 부드러운 질감의 원단 사이를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되는 전시다.

“물건은 오래 사용할수록 생명력이 길어지고, 그것을 매개체로 한 특별한 날들의 기억 또한 두껍게 쌓이죠. 우리 일상 속에 과연 어떤 특별함이 숨어 있는지 찾아보길 바라요.”

서정민 기자

려라.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안 되면 다시 하면 된다.”

-‘스포츠는 자기 육체를 끝없이 괴롭히는 일이기 때문에 즐거워야지 견딜 수 있다’는 구절도 인상적이다.

▶박=“재미있으면 안 지친다. 게임이 재밌으니 밤새 하지 않나. 푸시업을 20개도 못 하다가 조금씩 늘려서 100개, 110개 하고, 이런 데 맛을 들이는 거다. 작은 목표를 하나씩 달성해 가면서 내 근육이 커지고 정신도 성장한다. 누가 시켜서 하면 재미도 없고 힘만 든다. 나는 운동장 100바퀴도 혼자서 어렵지 않게 돌았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자기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능력, 스포츠 리더십(문해력)이 떨어진다는 걱정을 하는데.

▶이=“우리 학생 선수들은 ‘운동할 시간도 모

자라는데 무슨 공부해’ 라는 압박에 몰린다. 그런데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운동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루라도 일찍 프로를 가서 한 시간이라도 더 야구를 하고, 군대도 면제 받을 수 있는 길을 찾는다. 그런데 프로야구 최다안타 기록을 갖고 있던 박용택, 홈런왕 양준혁, 최다승투수 송진우 모두 대학 가고 군대 갔다 온 선수들이다. 야구를 잘 하려면 다양한 경험과 소양을 쌓아야 한다.”

최고 선수들은 군필, 다양한 소양 쌓아야

박찬호 대표의 사무실에는 현역 시절 각종 기록이 새겨진 수백 개의 야구공과 배트·글러브·사진 등이 전시돼 있다. 웬만한 박물관 못지않다. 박 대표는 “플레이 하드(Play hard),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다. 플레이 스마트(Play smart)로 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역사와 데이터가 쌓여야 한다”고 했다. 다저스에서 메이저리그 첫 참전을 잡은 공 애기도 했다. “그날 경기를 망쳐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토미 라소다 감독님이 그 공을 갖고 있다가 건네주면서 ‘너는 역사의 한 사람이 됐어’라고 말했다. 내가 남긴 발자취가 훗날 어떻게 인식이 될 건지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

-올해 KBO리그가 100만 관중을 돌파했는데 대표팀의 국제경쟁력은 점점 떨어지는 것 같다.

▶박=“한 시즌 100만 관중은 엄청난 일이다. 이런 잔치 분위기 속에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는 걸 느꼈으면 한다. 과거 야구 대표팀은 국민에게 기쁨과 자랑이었는데 요즘은 나가기만 하면 욕을 먹고 내부에서 서로 비난하는 모습이다. 그런

데도 KBO리그 인기가 폭발하니 현실을 잊고 있는 것 같다.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한국 선수가 몇 명이나 되나. 일본과 비교해서 부끄러운 수준이다. 꿈나무들과 다문화 아이들 속에서 원석을 키워내고, 동남아 등으로 야구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다.”

▶이=“야구의 지속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기업도 200년 가기 어렵지만 야구는 우리 손주의 손주들까지 즐길 수 있으니까 500년 이상 갈 수 있다. 한국 야구의 정체성을 살리고 지역에 뿌리박은 야구단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두 저자는 “함께 잘사는 사회, 즐겁고 공정한 문화를 만드는 데 야구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손을 맞잡았다.

정영재 기자

★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 2024 여름 마켓에 울리지 않고 주인*세입자 바로 연결할 집

★ GALAXY REALTY

★ 갤럭시부동산

	매매 / 렌트	금액	설명	주소	기간	세입자
★ 주택	McLean, VA	\$900,000	*계약 후 10일내 세입먼트 완료 현재 3년 렌트 (\$4,250) 렌트 끼고 살 투자자. 매달 25일경 기관에서 다음 달 렌트비를 주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함	8*03 Fallstaff Rd, McLean, VA	1년	Non Korean
	Fairfax, VA	\$3,500	Mantua ES, Frost MS, Woodson HS 권 싱글하우스 렌트. 부엌, 화장실 upgrade 된 집, 10월 1일 입주 가능	82* Wakefield Dr, Arlington, VA	3년	주재원
★ 사업체	델리샵 (DC)	\$150K	DC 내 좋은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사업 운영하면서 투자용 집, 두 자녀 집 살 때 다음 페이먼트 지원할 정도로 안정된 수입	822* Crestwood Heights Dr, McLean, VA	2년	Non Korean
	세탁소 (MD)	\$300K	MD, 코로나 때 주변 세탁소 문 닫아 장사가 더 잘되는 세탁소	1*11 Fallbrook Ln, Vienna, VA	2년	주재원
				1*02 Abbey Way, McLean, VA	3년	교민
				22*3 N Underwood, Falls Church, VA	2년	교민
				7*32 Old Dominion Dr, McLean, VA	2+1년	국제기구
				1*89 Dawson St, Vienna, VA	2년	교민
				2*02 Scotch Haven Dr, Vienna, VA	2년	주재원
				7*37 Backett Wood Ter, McLean, VA	3년	주재원
				1*40 Kensington Rd, McLean, VA	1년	주재원
				7*51 Tremayne Pl, McLean, VA	1+1년	
				411* 11th St, Arlington, VA	2년	주재원
				1*33 Colonial Hills Dr, McLean, VA	3년	국제기구
				2*69 Oakborough Sq, Oakton, VA	18개월	주재원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염증없는 잇몸, 건강한 치아
오래가는 임플란트”

www.naturadent.net

원 장 강 동 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 (UNY,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료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여 치과의사상 수상

natura 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invisalign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그 외 30여대 더 있음

최빈국 1등 신랑감은 '해적'...이런 상황이 개인만의 문제?

범죄의 책임은 범죄자 개인 탓일까, 사회 탓일까. 근대 이전에는 범죄의 원인을 범죄자 개인의 내면에서 찾았다.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荀子)에 의하면 범죄는 인간의 본성이다. 고대인들은 인간의 영혼에 악귀가 깃들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므로 범죄 대책으로 머리에 구멍을 내기도 했다.

이성(理性)을 중심으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한 계몽주의 시대에 들어와서는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기대되는 이익이 그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보다 크면 범죄를 저지른다고 보았다. 효용이 비용보다 클 때 상품을 구매한다는 경제학 이론과 기본적으로 유사한데, 이런 방식으로 범죄의 발생을 설명하는 학문이 범죄경제학이다.

가령 누군가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벌금 1000만원을 내야 하는데 그 범죄를 저질러서 적발될 가능성이 30%라면 범죄로 인한 손실의 기댓값은 300만원(1000만원×30%)이므로 범죄를 통해 300만원보다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범죄경제학에 따르면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도 개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치러야 하는 손실의 기댓값을 이익의 기댓값보다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한다. 가장 쉬운 방법은 형량을 높이는 것이겠지만 범죄 검거율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 가령 전자발찌를 통한 전자감독 제도는 범죄 발생 시 검거율을 획기적으로 높임으로써 범죄를 억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범죄를 행함에 따른 이익이 손해보다 훨씬 더 큰 경우에도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반대로 범죄를 저지르면 손해가 훨씬 더 큰 경우에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인간은 이성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과 유사하게 신체적 조건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행동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사고방식은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1859)을 발표한 이후 확산되기 시작했다.

범죄 유전성, 우생학 유행과 연관

이탈리아 신경정신과 의사였던 체사레 롬브로소는 교도소에서 살아 있는 범죄자 6000여 명과 죽은 범죄자의 시체 380여 구의 골상을 관찰한 뒤 범죄자의 신체적 특징을 추론했다. 가령 범죄자는 귀가 술잔 손잡이 모양이고, 머리털이 무성하고, 수염이 적고, 이마가 넓거나 푹 튀어나왔으며, 머리 좌우가 비대칭이고, 턱뼈가 크고 사각형이며, 몽골인이나 흑인처럼 광대뼈가 넓다는 것이다. 롬브로소는 이중 5개 이상의 특징을 가진 사람을 '생래적 범죄인'(born criminal)이라고 부르면서 이들에게 사형을 통한 도태 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는 지금은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당시로서는 영혼, 이성, 자유의지 같은 검증 불가능한 개념을 사용한 설명을 하지 않



지난 3월 인도 뭍에서 인근에서 체포된 소말리아 해적. 세계 최빈국 소말리아에서 큰 돈을 벌수있는 해적은 인기 직업이다. [로이터-연합뉴스]

고 관찰, 대조군과 비교군의 비교 분석, 통계 활용 등 실증적, 과학적 연구방법을 최초로 도입한 것이다. 생래적 범죄인들을 도태시켜야 한다고 본 것도 당시 최신 이론이었던 진화론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그래서 롬브로소는 지금도 '범죄학의 아버지'라 불린다.

롬브로소의 '생래적 범죄인' 개념은 범죄성이 유전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진짜로 범죄성은 유전되는 것일까. 20세기 초에는 양쪽 모두 범죄를 저지른 일란성 쌍생아의 비율과 양쪽 모두 범죄를 저지른 이란성 쌍생아의 비율을 비교하거나, 범죄자인 생부모를 둔 사람과 범죄자인 양부모를 둔 사람의 범죄율을 비교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범죄성이 어느 정도 유전된다는 결론이 나온 경우도 적지 않다.

범죄성이 유전된다는 말은 무서운 말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범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아예 도태시켜서 태어나지도 못하게 할 수 있다. 실제로 20세기 초에는 범죄자나 열등한 인간은 거세시키고 좋은 자질을 가진 인간은 자손을 확산시켜 인류를 개량해야 한다는 우생학이 유행했다.

우생학의 창시자는 찰스 다윈의 사촌인 프랜시스 골턴이다. 그는 범죄성이나 정신박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식을 낳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네이처』지에 발표했다. 20세기의 첫 다섯(제 26~30대) 미국 대통령들이 우생학을 찬양했고 하버드, 스탠퍼드, 예일 등 명망 있는 미국의 대학들이 우생학을 가르쳤다. 1907년경에는 인디애나주를 시작으로,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아이오와, 뉴저지 등에서 우생학적 강제 불임화가 법제화되었다. 이제는 홀로코스트 등에 대한 각성으로 이러한 방향의 정책은 금기시되고 있다.

범죄자들이 남 탓, 사회 탓을 하는 것을 보면

화가 난다.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회적 환경이 범죄를 유발하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대구 '간병살인사건'을 보자. 2021년 22세 청년 김모씨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방치해 존속살해죄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져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코에 끼워진 호스로 음식을 주입해주고, 대소변도 치워주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 2시간마다 체위도 바꿔주는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였다.

그러나 김씨는 시급 7000원짜리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뿐 다른 재산이 없었다. 나머지 가족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월세가 연체되고 휴대전화와 도시가스도 끊겼다. 김씨에 따르면 어느 날 아버지가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미안하다. 필요한 거 있으면 부를 테니까, 그전에는 아버지 방에 들어오지 마라." 며칠 후 김씨가 아버지 방문을 열었더니 부패한 냄새와 함께 아버지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김씨는 존속살해죄로 체포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아버지의 간병비를 다른 가족이나 국가가 마련해줄 수 있었다면 이런 존속살해 사건이 발생했을까. 아마 아닐 것이다. 이 사건에는 고령화, 청년실업, 가족해체, 1인 가구 확대에 의한 돌봄의 외주화 등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반영되어 있다. 이런 범죄에 대해 오롯이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소말리아 해적은 2010년대까지도 기승을 부렸다. 2011년에 우리나라의 삼호주얼리호도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되었다가 청해부대 해군 특수전단이 구조한 적이 있다. 많은 나라 가운데 왜 유독 소말리아에만 해적이 많을까. 소말리아가 내전으로 무정부 상태가 되자 다른 나라

어선들이 첨단 어선을 타고 와서 소말리아 어민들이 포획하던 참치, 크랩 등의 어자원을 싹쓸이해가기 시작했다. 참다 못한 소말리아 어민들이 자경단을 꾸려 경비하다가 외국 선박을 나포해 몸값을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큰 돈벌이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해적 일이 산업화되는 순간이었다.

소말리아 해적 연봉, 국민소득 160배

해적들은 해적단을 꾸려서 마치 크라우드 펀딩을 받듯 유럽인들을 포함한 외국의 투자를 받았고, 해적단은 그 돈으로 무기를 사서 되도록 많은 인질극을 벌인 다음 몸값을 투자자와 나누었다. 국민소득 500달러 미만인 나라에서 평균 연봉이 8만 달러에 달하는 해적은 아이들이 커서 되고 싶어하는 직업 1순위이자 여자들이 꿈의 최고의 신랑감이 되었다. 이러한 해적 범죄의 주된 원인이 개인의 도덕의 문제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19세기에 사회학이 활발하게 태동하기 시작하면서 범죄와 사회적 환경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연구가 시도되었다. 그런 연구들이 활성화되면서 학자들은 사회적 환경이 범죄를 유발한다는 주장을 하나씩 내기 시작했다. 가령 벨기에의 학자 아돌프 케틀레는 "사회는 범죄를 예비하고 범죄자는 그것을 실천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라 했다. 프랑스의 알렉상드르 라카사뉴는 "사회는 범죄의 배양기이며 범죄자는 미생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해야 할 것은 범죄자가 아니라 사회이다"라고까지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1920년대 시카고 학파를 중심으로 도시화로 새로운 거주자들이 유입되면서 기존 공동체가 일관된 가치 규범을 제시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범죄 등 사회 문제를 초래한다는 '사회해체 이론', 어떤 사람을 범죄자로 낙인 찍음으로써 그에게 내재된 범죄적 성향이 더욱 발현된다는 '낙인 이론' 등이 범죄의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등장하였다. 모두 개인의 책임보다는 사회적 환경이나 관계에서 범죄가 비롯된다고 보는 데 방점이 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사회적 환경이 범죄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같은 사회적 환경 속에서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1995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백화점의 명품들을 품에 한가득 품어안고서 얼굴에 만족스러운 웃음을 띠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다친 사람들을 구하느라 땀을 뻘뻘 흘리는 시민들도 있었다. 우리가 인간이 존엄하다고 하는 것은 후자의 인간들이 존제하고 그 수가 결코 적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정재민 변호사·작가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구글지도 광고로 경쟁사를 앞지르세요

가장 잘 보이는 TOP3 업체 위에 사장님 사업체를 뜨게 해 드립니다!!

고객이 많이 찾는 구글 로컬 검색때..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1. 저렴한 비용
2. 편리한 플러서비스
3. 믿을 수 있는 회사

웹사이트 제작, 구글광고 & SEO, 고객 리뷰관리, 소셜미디어 광고, 문자 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이메일 마케팅,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기타

새고객, 매출 증가가 잘 안되시나요?
내 사업 불경기 탈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703-337-0123
www.intelisisystems.com



Financial Group



메디케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티모시유 보험이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현재 가지고 계신 플랜을 다른 플랜으로 변경하고 싶으신 분들
- 메디케어가 처음이신 분들 (1959년~1960년생)
- 65세 이후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
-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 (듀얼 플랜)
-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들
- 처방약 절약이 필요하신 분들 (LIS)

파트 A & B / 파트 C (어드밴티지) / 파트 D (처방약)
메디캡 (서플먼트) / 듀얼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

연금 보험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평생 연금으로 고객님의 노후를 든든하게 계획해드립니다!

각 고객에 맞는 연금보험을 정성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생명 / 암 보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건강 보험 (오바마케어)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 의료 보험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개인 맞춤
진단!



티모시유 보험

TEL. 703-961-8811
email: info@yoofg.com

5900 Fort Dr. Suite 407, Centreville, VA 20121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식스센스

오늘의 주제
바가지



이상신
국중록
고리타
병수씨
스비르탄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려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before

after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합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iversal

11월 구인광고

전기차 충전 EV 장비 전문회사

모든 전기 수리/구축/공사

LifeTime Energy
VA, MD, PA, DC, WV, DE

전화
240-316-1823

우표수집에 관심이신 분 연락 바랍니다!

우 표

우표 수집한것 팝니다
오랜동안 수집 해 온
(한국, 미국, 여러나라 우표)
귀하고, 소중한 우표들이
더 좋은 주인을 찾습니다.

301-275-6533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구인

ENI DIST, INC 사무직
Columbia, MD 위치

- ◎ 구매부 0명
- ◎ 영업지원팀 0명

ERP/Excel 경험자우대

이력서: eni@enidist.com

문의
301-477-4710

LÓ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쉬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کم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라이선스 교육 가능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LA mart

구인

LA 마트내
볼티모어지점
스페니쉬
베이커리
임대하실분

문의
410-646-1501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금 매
한식+일식
센터빌 VA

- ▶연매상 100만+25만
- ▶급하게 처리원함
- ▶롯데에서 가까운 거리
-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AGENT 환영
443-631-3125
SERIOUS INQUIRIES ONLY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11월 4일 월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로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계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MD Montgomery 및 PG County에서 식당장비세일즈 구합니다. 경쟁력있는 보수(커미션), PEPCO 등 정부보조프로그램 또는 다른 분야의 대면방문 세일즈 경험자, 경력자우대(기본급 및 경비 지원) 초보자세일즈 트레이닝 및 각종 지원 제공 (Case by Case) edk.tre@gmail.com으로 자기소개와 함께 지원 바랍니다. 571-332-2101(문자요망)

메릴랜드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션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 지역, MD - 경험 많은 Handyman - Part Time Office 관리자 - 정육부 관리자 *Capitol Heights 지역, MD - 사무보조: 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 \$17~20/H jobsmd@outlook.com 문의: (301)333-2209

MD 글렌버니지역 Severna Park 베타남 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Silver Spring, MD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경력자 구함. albert@wkkinc.com (Cell) Mr. Kim 301-526-7000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 승원유동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위치: 메릴랜드 재섭(Jessup)
1. 승원 물류센터 사무직원 모집
- 업무: 사무직원 (서류관리 및 인보이스 등)
- 시간: 주 32~48시간 (주 5일 근무 가능)
2. 승원 물류센터 현장 관리자 모집
- 업무: 현장 직원 관리 및 입고출고 관리
- 시간: 주 48~52시간
- 유경력자우대(물류센터 운영 전반)
접수 방법: 간단한 이력서 작성 이메일 접수
▶연락처: han97003@lotteplaza.com 240-750-0016 / 물류센터장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닥터 오피스에서 full or part time 직원 구함. 락빌/ 콜롬비아 이중언어, 신분에 걸려사유 없으신분 문의 301-580-5777

▶▶요양원에서 일하실분 풀/파트 타임 입주가능. 경력자우대. 엘리컷시티 240-426-5678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443-621-2625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력자우대. 숙식도 가능. 메릴랜드 콜롬비아 410-961-3012

▶▶메릴랜드 JESSUP-화장품출세일 (NYX L'OREAL) 세일즈(남)구함/풀타임, 컴퓨터사용가능한 성실하고 참신한분. 410-852-1006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식당/델리

▶▶파사테나 지역 비빔밥 캐리아웃 화, 수, 목, 같이 일 하실분 구함 남녀 전부 환영 (문자요망) 443-991-9331

▶▶엘리컷 시티 Cafe June 에서 풀타임 바리스타로 일하실분 유무경력자 443-310-9247

▶▶엘리컷시티 장수 설령탕에서 새가족을 구합니다 주방/케슈어/경력자 우대 410-750-3333

▶▶볼티모어 지역에서 토보자 스시 & Fried Chicken 파트/풀 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301-926-3638 / 301-538-4246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세탁소/기타

▶▶세탁소에서 바지 프레스/카운터 시간조절가능, 볼티모어 Royola 대학근처 410-433-5008 (Store) 410-868-6670 (Cell)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컷시티, MD)

▶▶픽업바느질하실분(파트타임)/엘리컷시티 410-926-3200

운전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으로 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엘리컷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MD 아룬델일 샵센터 근처에 위치한 무궁화 메디컬 데이케어에서 풀타임 운전하실분 구합니다. 443-621-2625

싱글/타운/콘도 방렌트

저먼타운 방1 옥실별도, 금연자 깨쓰한 콘도/노인우대 단기 702-622-8853

엘리컷시티-롯데에서 10분 거리/타운 홈 2층방/유포/가구일체/교통편리/남자분 원함 443-631-7866

▶▶엘리컷시티타운홈 렌트 메릴랜드 10Th Street. 방3개, 화장실/샤워 넓고 잘가꾸진 집. 롯데/한아름 5분거리 443-676-9225

실버스프링 두플렉스방2/부엌1/화장실1/출입문 별도 301-257-7126

▶▶저먼타운 단독주택 리모델링한 지하실 방2개 워크아웃 부엌 화장실 2층방 1 \$700 / 문자요망 240-393-3615

메릴랜드 콜롬비아싱글홈 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 학군 410-599-1800

메릴랜드 대학가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 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2 301-385-3535 (문자요망)

▶▶조용/교통 편리한 워튼 도서관 한아름 메트로근처싱글홈 방1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301-655-324

▶▶MD 실버스프링 Calverton 교통편리, 싱글홈, 큰방, 욕실, 유포, 인터넷, 가구, 금연, 301-648-2422

▶▶단독주택 이층 큰방/인터넷/가구 완비/냉장고별도/샤워별도/주차. 29번과 198번 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 금연자 240-413-2738

▶▶Ellicott City 가까운 Hanover 지역 지하전체 세놓음 240-393-5530

▶▶단독주택 지하방2. 출입문별도.

부엌, 욕실, 거실 등, 저먼타운 메릴랜드 (롯데 마켓 5분거리) 문자요망 202-985-9191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1. 메릴랜드 자이안트엡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571-242-3736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1. 세라미스트 첫 3개월 연봉 12만 2. CAD/CAM 경력자 첫 3개월 연봉 6만 703-597-0955 (문자요망)

▶▶"Annandale, 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 경력자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 wikim011@gmail.com

도깨비 척추신경 병원 직원 구합니다. 페어팩스/파트타임, 풀타임 / 이중언어 가능/dkbclinic@gmail.com 757-384-5757

▶▶1. LED Light 세일즈 2. Electrician 배우실분. 202-993-8870 (문자요망)

▶▶LORTON 헤어제품 수입업체 세일링 창고에서 오전: 고객오더접수 오후: 노던버지니아 지역 및 메트로 지역 담당관리. 영어/불어 우대 이력서 jhntiva@hotmail.com 703-864-6641 John Lee 문자요망

김서규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하실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서 가능합니다 경력자우대 합니다. Resume : skim@skimcpa.com

ENI DIST, INC 사무직 Columbia, MD 위치 *구매부 0명/영업지원팀 0명 -ERP/Excel 유경험자우대 이력서: eni@enidist.com 301-477-4010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풀타임/파트타임/영어/컴퓨터 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joshuahoh123@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 경력자우대(P&C License 소지자)/신입 환영 - MS Office 사용가능자 -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금 휴가, 건강보험/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컷시티, MD)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256-0606

탐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 인승원에서는 그래픽 & 웹디자이너를 구합니다. ■모집부문: 그래픽 디자이너 / 웹 디자이너 ■근무형태: Full Time (Mon.-Fri.: 7:30AM - 5:00PM) ■근무지: 승원본사 디자인실 (Jessup, MD) chankim@lotteplaza.com으로 Resume와 포트폴리오 첨부

공인 회계사무실(Annandale) 책임감 있고 성실한 직원 채용 경험자 우대. 베네핏 있음. 영주권 스폰서 가능함 Email: acct2014a@gmail.com

Wanted Sales/Marketing. YI design factory, LLC 443-240-5114

건강용품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 분 / 영어 가능하신 분 703-798-7270

첼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키징/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분 ceo@hanmipost.com *스폰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 통역 메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 -정부계약 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업 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www.koreadaily.com

클릭하면 돈이 보입니다!!

이용자에게 더욱 찾기 쉽게!
광고주에겐 보다 효과있게!

위상틴 중앙일보
Tel.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4일 월요일 중앙일보

JTBC-중앙일보 워싱턴 총국에서 '행정·코디직'을 채용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근무조건: 풀타임
-근무내용: 워싱턴 총국 행정, 취재코디 및 기타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결격 사유 없는 분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접수처: kim.hyounggu@joongang.co.kr
thkang@joongang.co.kr
phil9@jtbc.co.kr

버지니아 한의과 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마사지사 구합니다. /타이슨스 코너 5분거리/풀타임/파트타임 가능
▶571-243-4251

센터빌,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corep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 영어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u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
lovehandhomehealth.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경력자 우대합니다.
연락처 703-712-7089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텔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포 인터내셔널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우드브릿지 지구촌마켓 한식코너
파트타임 캐쉬어 구함(월, 수요일)
410-961-7376

한식 일식당 sushi chef 구합니다
플로리다(마이애미) 지역 숙소 완비
561-525-6544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
필드 몰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알링턴의 Gute Leute 커피샵에서 커피에
대한 열정을 가진 바리스타를 모집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분들도 환영합니다.
관심 있으신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싶은 분도 환영
합니다.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H Mart 또는 롯데에서 사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주세요. 풀타임,파트타임
571-991-4172

헌돈 H-마트 안 민가네 식당 캐셔 구함
703-638-8878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력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합니다)
571-365-8303

▶▶92 치킨과 함께 창업하실분을
찾습니다! 같이 성공하는 길을 갑시다.
703-901-1004

▶▶알렉산드리아 MATSUI 일식당에
서 풀타임 스미맨 구합니다!
703-888-6627 (MR. 노)

▶▶Honest Grill 에서 파트타임
Host/Hostess 구합니다. 영어 필수.
703-543-2320

▶▶텍사스도넛센터빌베이커보조구함(아근)
영주권 스폰서 가능
703-462-4349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이발소에서
금,토요일 일하실분 구합니다.
703-907-9541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셔니스트
구함(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 703-717-8256

▶▶이발소를 \$8만불 판매/하노버 메일
랜드 엘리키티티에서 20분거리 Arundel
공장 근처/최근 맥도날드, 스타벅스, 도미
노가 있는 분주한 쇼퍼센터를 개조/ 저렴한
임대/30년 동안 같은 위치
301-672-1326 (켄)

세탁/엘터레이션
알렉산드리아 픽업/카운터, 배킹 하실
분/파/풀타임(문자요망)
703 608 5183

▶▶세탁소공장에서 카운터, 배킹, 프레스,
빨래/파트타임 또는 풀타임/ 우드브릿지지역
571-455-3609

픽업 스토어에서 필로물품가게 크로스로
판매 (컴퓨터, 엘터레이션 장비등 일체)
571-224-7777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픽업소통에서 파
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세탁소 수선하실 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바느질 하실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2006 Toyota Sienna
20만6천마일, 703-825-0852(문자)

포드 강통벤 냉장림, 18만, 12년,
굿 컨디션. \$8,500.
240-796-0093

▶▶자동차 정비 매케닉 구함.
Alexandria, VA (문자요망)
703-887-5355

첼트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구함.
703-266-1983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플러밍/빙난방
L&B Universal, Inc. (빙·난방/덕트
클린)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703-678-1749

Office 청소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301-537-3800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ccdc.edu
www.ccdc.edu

기타/구인/청소
▶▶VA 스프링필드/페어팩스 지역.
밤청소 하실분
703 980 1917

골동품 이조가구진품 그림, 한국가면 고가
판매가능, 일본물건도 있음.
240-796-0093

버크 테권도 사범 구합니다 풀타임 \$50,000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문자요망)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력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hr@firsthco.com
▶571-549-6789

홈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서가능합니다.
571-422-7189

페어팩스 노리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
는 선생님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교육자
전공자& 경력있는 분을 구합니다.(풀/파
타임) norischoolkids@gmail.com
703-881-8349

박스배달요원을 구합니다.
애난데일.운전가능자
571-242-3736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홀출아서해주실분
703-473-6022.

각 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씨니 한)

파트타임 구함. 이중언어 되시는 분
은퇴하신남여노소 환영.
703-424-8596

필그림유치원 교사 모집
토들러반 풀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입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력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모두 가능하신분
240-903-0777

싱글/타운하우스렌트
스프링필드 공원옆 좋은 위치 싱글홈
위층방3개, 화1개, 부엌, 라빙룸, 다이닝 /
아래층방2개, 사무실, 화2개, 현관 라빙룸 /
(세탁기, 히터, AC)
703-336-3283

애난데일에 위치한 자택렌트합니다.
(알링턴 2마일, DC 7마일). 3층, 7베드룸과
7베스전체 7500+sf의 아름다운 집!
.크레딧 없는 분도 가능! 월 \$7,495.
703-244-3453

▶▶싱글홈 지하 렌트 워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키친, 단독샤워, 와셔어,
66번가 가까운 페어팩스, 지하 출입문 별도
▶703-489-6926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1,100
▶페어팩스 싱글홈 2층방.
조지메이슨 부근 여학생 환영. \$10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싱글홈 렌트 \$3,500
▶703-231-5572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l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지하철 근방. (교통/학교 좋은)
방2, 화1, 세탁기, 새 부엌, 렌트or매매
703-336-3283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엔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 3개, 화 4개, 2가 가라지. \$2,850
703-762-6759

센터빌 타운홈(차고 두개 짜리) 사고저하는
분 연락주세요.
연락전화: 571-277-7758

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 관리 된 집 \$3,700
2. 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군 \$3,300
571-567-5797

콘도 렌트
▶▶센터빌 롯데근처 콘도 방2, 욕
실 1.5 즉시 입주 가능 /깨끗하고 위
치 좋음. \$2,150
301-466-1646
301-529-2175

▶▶SALE 콘도 아파트 2층
방2/마루/전철역/좋은 학군
703-336-3283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밀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11월 4일 월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애난데일 콘도 방2 화장실 2. 밝고 넓은 리빙룸, 큰방2, 나무마루. 엘리베이터. \$1,900(물값과 가스비 포함되어 있음). H-Mart 가까움. 교통편리. 703-477-3114.

▶▶애난데일 H마트 옆. 방1, 가구완비, 남아 직장인/유포/\$800 703-350-1986

센터빌 콘도. 방2, 화2, 2층, Loft, Top Floor, 탁트인 뷰, 넓은 리빙룸, H-Mart, Lotte Mart 가까움, 전용주차장 2대, \$2,200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방렌트

▶▶지하방1/웍아웃/샤워/간단취사가능/여자/커플 환영/페어팩스 머릴필드지역 571-229-7124

▶▶애난데일 콘도 방1/화1/식사/라이드가능/K마트 근처 703-362-5425 703-772-5622

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출입문 별도. 샤워, 화장실, 인터넷. 유틸리티 포함. 한인마트 2마일. 출퇴근하는 직장인 한분만 원합니다. 703-405-9005

애난데일 콘도 방2의 단독 화장실 딸린 큰 방 렌트. DC까지 7마일. 집앞에 버스 스타프 있음. ▶▶703-244-3453

실악가든 근처 싱글홈 방1. 화1. 냉방고. 간단가구 인터넷 출입문 별도 금연자 즉시 입주 571-243-6295

애난데일 한강뷰 방1/화1 즉시 입주 가능 703-395-4380

홀디포워 방렌트 주차장 넉넉, 출입문 별도 571-237-3411

▶▶애난데일 아파트/한강뷰/여자분 원함/큰방+Full Bath+간단취사 571-217-7155

▶▶애난데일 H마트 옆 방1/여자분 환영 703-505-5698

▶▶방 세놓음 맥클린 싱글하우스 아래층 방 3개 전체 리모델링했음 직장인이나 학생구함 교통이 좋음 워싱턴 실버타운 걸어서 7분에서 8분거리 타이슨코너 근처 703-307-2473

▶▶교통 편리한 애난데일 단독주택 넓은 지하방 렌트. 703-559-5607

▶▶센터빌 타운하우스 2층 작은 방 여학생 환영. 유포 \$800 ▶▶703-489-6926

▶▶센터빌 방/욕실/화장실 1세놓음 문자 또는 전화주세요! 703-470-5655

▶▶Annandale 방렌트: townhouse 밝고 조용한 한층방 or walkout basement with a private bathroom, 마루, 유포함, 교통편리함 여자분 원함. 문자보내주세요. 571-345-8879

▶▶애난데일 노바 3분거리. 조지메이슨 대학 5분거리, 반지하 출입문 별도. 즉시 입주 가능. 703-598-6087

▶▶1. 애난데일 한강식당뒤 싱글홈 방렌트 돌침대/가구/화장실/즉시 입주 가능 703-395-4380

▶▶조지메이슨 노바 5분거리 반지하 \$900/부엌/화장실/출입문 별도/마루바닥/유틸리티포함/문자요망 703-598-6087

▶▶싱글홈 지하렌트 조지메이슨 근처

웍아웃 방2, 가실, 화장실, 풀키친, 워셔, 드라이어 703-898-3838

Burke H-Mart 10분거리 2층 타운홈 취사, 가구 즉시 입주 가능 방 1 \$600 방 2 \$1000 여자분 한함/문자바람 703-678-7833

▶▶애난데일 예촌근처 반지하 전체 방1/화장실/샤워/욕실 유포, 파킹 즉시 입주 가능 문자요망 703-629-6275

▶▶애난데일 예촌 앞 출입문 별도 방1/화장실/샤워/욕실 유포, 파킹 즉시 입주 가능 문자요망 703-622-2033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1개 렌트 ▶▶703-470-5238

단독주택 출입문 별도. 지하방 2부엌 가실 욕실 등(문자요망) 202-985-9191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 문자주세요)

부동산 매매

사업체 매매

콘도 렌트 \$1,900 Springfield 애난데일 10분 거리. 방 2, 화장실 1, 세탁기, 건조기 나무 마루, 깨끗한 화장실, 넓은 리빙룸, 큰 발코니 파킹 3개 층분 리모델링하여 밝고 환한집. ▶▶703-477-3114

1. Coming Soon 애난데일 싱글홈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 한 단독 주택, 방4, 화4, 편리한 램블러 스타일 2. 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4, 화2½, 1,612sq.f., 교통편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사립몰,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 2.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카이트 베이스먼트 3. 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 2.5, 1car 거라지 4. 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 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부동산/상업용 매매

▶▶앤지 부동산 파고, 사고자 하시는분 이익 창출위해 함께 고심해드립니다 571-550-7658

▶▶리커 | 식당 | 카워시 | DC건물 | 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즈니스 매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I.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 하여 매매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II. 정확한 매출 상황과 매매 조건들이 flexible해야 합니다 III.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 뛰어난 케빈 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Seafood 매매 Woodbridge VA \$165,000. Open: Mon-Sat (6일 근무) 자회사에 관심있는 분 연락주세요! 703-967-3963

1.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사립몰, 1,500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용지 \$2M 2.4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 중인 진입로 독점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

▶▶성업중인 오토 리페어 (VA) 연매상-\$850,000. 포텐셜 좋음 매매-\$38만(실 바이어 Only)

571-242-3736

우표수집한것입니다. 우표수집하시는분 연락바랍니다. 오랜동안 여러나라의 귀하고, 소중한 우표들이 새 주인을 찾습니다. ▶▶301-275-6533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풀타임 내니를 구합니다! 703-822-7810

▶▶치과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40년 경력 703-569-8000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Real ID 신청/차량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멀세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 장소: 버크레이크 헬트 / · 시간: 일 아침 9시 -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 워킹 클럽 ▶▶703-939-5223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703-678-6639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광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미트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등... 차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 inyeolchoi@hotmail.com

중고품/기타매매

▶▶귀국 관계로 가사일체를 헐값이나 무료로 드립니다. 허벅션, 청진등 고미술 품과 돌침대 가재 도구 다수의 그림과 수백권의 책 무료로 드립니다 443 799 2124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무빙세일 역 이민 가구 및 생활용품 정리. 냉동고, 컴퓨터, 옷장, 히터, 서랍장 외... 703-203-5177(3시 이후 전화요망)

건축/페인트/마루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텍,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하우스 페인팅(In,Out), 텍 메인 터너스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디맨 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공사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손사이드 / 메케닉 크루 703-955-2827 / 540-680-1571

와인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모든공사, 추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 접수/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동용/상업용 전문 제일 큰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테리어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동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방, 워킹인 / 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워킹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방, 워킹콜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방, 전기, 플러밍, 워킹콜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매우먼서 일하실분/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보석(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카펫, 에어덕트 클리닝

토달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 스티밍,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 풀청소,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운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운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 물세는 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 / 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적,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삿짐 포장이사, 타주 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 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창고 보관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리모델링/부엌/화장실/실내/실외 30년 경력/정직/확실한 시공과 마감! 파인애플홈 Mr. 박 703-434-2810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링/전등/항등크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571-229-4633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박-청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443-980-5858(MD)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동용 충전기 설치 및 라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 면허와 1M 보험 보유 업체 ▶▶703-855-3565

유리

JK유리 & Window/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사워도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임업/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올타리 라인/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조?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AWARDED
Porch.com
HomeAdvisor
Best Home Improvement Contractor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트 먼지와 세균
알라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Cell : 703-678-1749 www.LBuniversal.com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건축 / 페인트

Since 1988

TK 종합건축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전문
- 목수, 타일, 마루, 욕, 캐비닛 샌딩 보수
- 핸디맨, 플러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귀국, 타주 차량운송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신속 안전 20년 전문!!
신용 저렴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Movers LLC

Movers LLC
GOOD HAND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야기 돌반지 팔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온수, 히터 (가스, 전기)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홈 플러밍/집수리센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핸디맨

◆수도꼭지 교체 ◆루핑수리/거러교체
 ◆싱크/디스포저 ◆사이드 리페어/창문
 ◆워터히터/물새는것 ◆데크 수리
 ◆하수막힘/변기교체 ◆드라이월/페인트
 ◆썩펌프 교체 ◆파워워시

24 hours 7days Service
571.594.4080
VA 라이선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 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블리티, 워킹스펙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통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 (Luxury Vinyl Tile)
 ● VCT (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멀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멀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멀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멀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이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easy on the (or easy with the) something; 적당히 쓰다

Four roommates are getting ready to have dinner.

(룸메이트 4명이 저녁을 준비중이다.)

David: Are the hamburgers ready yet?
데이비드: 햄버거 준비됐어?
Ken: Just about.
켄: 거의 다 됐어.
Brian: The salad is done. I'll put it on the table.
브라이언: 샐러드는 다 됐으니 식탁에 갖다 놓을게.
Steve: What is everyone drinking?
스티브: 다들 뭐 마실 거야?
David: Why don't you put out all the drinks and

we'll help ourselves?
데이비드: 각자 알아서 마시게 음료수 다 꺼내 놓는 게 어때?
Steve: Good idea.
스티브: 그게 좋겠다.
Ken: And guys easy on the ketchup. We don't have a lot of it.
켄: 있잖아 케첩은 적당한 먹어. 남은 게 많지 않으니까.

Brian: I'll go to the store and get more.
브라이언: 가게 가서 더 사 올게.
Ken: No. The hamburgers are ready now.
켄: 됐어. 햄버거도 다 됐는데 뭘.
David: Okay, let's eat!
데이비드: 알았어. 그럼 먹자!

"I'm just about finished with this book. It's a great novel."
(이 책 거의 다 읽었어요. 좋은 소설이에요.)
▶put out: 내놓다.
"I'm going to put out some flowers on the table."
(식탁에 꽃을 좀 내어 놓을게요.)
▶help (oneself): 많이 드세요
"Help yourself to more coffee if you want."
(원하시면 마음껏 커피를 드세요.)

기억할만한 표현

▶ just about: 거의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가로열쇠

(1)봄이 시작된다고 하는 날을 맞이하여 길운을 기원하며 벽이나 문쪽에 써 붙인다. (4)나라에 혼란 따위가 없어 백성들이 편안히 지내는 시대. □평□□ (6)완전히 잠이 들지도 잠에서 깨어나지도 않은 어렴풋한 상태 (8)경기에 참여하려 나갈. 강 선수는 경기 ~ 때마다 높은 방어율을 기록했다 (10)감미롭고 감상적인 분위기. 정열과 ~이 넘치던 확장 시절 (11)집안 살림에 쓰는 온갖 물건 (12)저절로 생겨난 산, 강, 바다, 식물, 동물 따위의 존재.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 사람은 ~ 보호, ~은 사람 보호 (14)죽기를 각오하고 쓰는 힘. ~을 다해 싸우다 (16)편안히 쉴 수 있는 곳 (19)형질이나 쇠 따위로 길게 만든 자 (21)넋물이 넘쳐 들어오는 것을 막는 독 (23)가늘게 뜯은 눈 (24)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살았던 삶 (25)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다름 (28)투수가 타격을 당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포볼을 만드는 일. 투수 포수가 일어난 채 공 네 개를 주고받죠. □의□□ (29)특별한 붓으로 크게 씌. 어떤 기사에 큰 비중을 두어 다룸

세로열쇠

(1)성공하여 세상에 이름을 떨침. □신□□ (2)전왕의 왕비이며 현왕의 어머니. 왕의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가 수렴정정을 하게 되었다 (3)좋은 징조의 꿈 (4)아이를 벨 것이라고 알려 주는 꿈 (5)큰 그릇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림. 크게 될 사람은 늦게 이루어짐. □기□□ (7)동양화에서, 매화·난초·국화·대나무를 그린 그림. 고결함을 상징으로 하는 문인화의 대표적 소재이다 (9)가는 대나무로 된 긴 담뱃대 (13)육지와 면한 바다·강·호수 따위의 물가. ~ 부두 (15)근육의 기초가 되는 희고 질긴 살의 줄. 그 아이는 목에 굵은 ~이 보일 정도로 노래를 열심히 불렀다 (17)증상에 따라 약을 짓는 방법을 적은 종이 (18)사실 그대로 고한. 내가 지은 죄를 어서 ~하여라. 이□□□ (20)자로 끊어 파는 피륙의 팔고 남은 조각 (22)하늘에서 미리 정해 준 것처럼 꼭 맞는 부부로서의 짝 (25)그림의 뒷면이나 테두리에 종이 또는 천을 발라서 꾸미는 일 (26)종이, 피륙, 가죽 따위로 만든 큰 자루. 새 술은 새 ~에 담아야 한다 (27)자매의 남편 사이나 형제의 아내 사이

스도쿠

	1		7					
			1		4			5
5	2				6			
		2	4	1		7		8
		8	6	7		2		3
								6
8	6			2		1		
		5			3	8		2
		4						3



자료제공=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7	8	5	1	9	8	4	6	2
2	9	8	3	4	6	5	7	1
4	6	1	7	2	5	3	9	8
9	4	6	8	3	2	1	5	7
3	1	2	5	7	9	8	4	6
8	5	7	6	1	4	2	3	9
1	7	4	9	8	3	6	2	5
5	2	9	4	6	1	7	8	3
6	8	3	2	5	7	9	1	4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영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영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영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영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영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뒷면 3자리 EXP. DATE: / / CVS: month year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L.A

매매

모지 급매(주인)
2차리에 \$9,500(네고가능)
Glen Abbey Memorial Park내
무궁화 등산 한인묘소
위치 좋고, 전망 좋음
(818)515-0136 Mr.Jung

기타

홀트 식물원
각종 한국과일
나무와 씨앗 / 각종모종
(909)625-4577
11602 Ramona Ave,
Chino, CA 91710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미주 중앙일보는 한인사회의
뉴스와 목소리를 주류사회와
한인 2~3세들에게 전달하고자
영어뉴스 사이트
(Koreadailyus.com)를
출범시켰습니다.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us.srotech.com
charcoal odel 친환경탄소복합소재

건식온돌 난방 진짜가 나타났다

전통온돌의 우수성을
재현한 조립식
구들장 입니다.

너무나 쉬운 설치
시공 영상
시청하세요~
us.srotech.com
지사 및 대리점 모집
문의 510-381-0301

Amalite SOL

세계에서 가장 좋은 환경 (Minas Gerais, Brazil)에서 생산된 최상의 품질 Green Própolis

미국FDA, Brazil SIF 승인 받은 제품
미국, 귀국 선물용 Wholesale Only (Min.dozen up)
Tel: (213)500-7363

개인 / 비지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지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힐드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쓴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아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고혈압, 근본 원인 치료제, 비아그라
시알리스 효과 없는 남성 특효 보강

1-213-703-8809, papaaa.com

함께한 50년, 함께할 50년



www.koreadaily.com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함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9월 햇산삼 세일

미라클터치로 살인

5파운드 이상 구입시 총세일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전산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항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2024 야생 햇산삼을 소비자와 함께 공동 구매합니다.

야생 햇산삼 공동구매

지금지긋한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모든 통증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한방병원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심마니 가격 450g 한/정/판/매

	소비자 가격	중간 마진	심마니 가격
중(M)	\$3,500	→ \$1,700	→ \$1,200
대(L)	\$4,800	→ \$2,400	→ \$1,400
특대(XL)	\$5,800	→ \$2,900	→ \$1,800

전립선

온열치료기 J2V-N

www.j2v.co.kr

전립선암 예방 및 치료 효과
*30일 전액 환불제 실시

드림바이오메디칼 (714)926-4607 7011 Warner Ave #E Huntington Beach CA 92647

- 가정에서 간편하고 편안하게 경제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 특허청 100대 우수특허대상 (생명공학 부문) 수상
- 경화되고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체를 정상상태로 회복시켜 줍니다.
- 야뇨, 잔뇨, 빈뇨 증상에 특히 효과적 입니다.
- 약물치료로 효과보지 못하신 분
- J2V 전립선치료기는 안전한 물리적 치료방법으로 부작용이 없습니다.

신제품



전립선 온열치료기 새롭게 나왔습니다.
치료기능 향상 | 충전량 표시 | 약정화면 향상

당뇨 환자와 다이어트에
희소식!

칼로리를 내리는 날씬한 저당밥

40% ~ 49%
탄수화물
DOWN

탄수화물은 낮추고
내 몸을 건강하게

당뇨와 다이어트에 좋은 저당밥을 SALE
banustory.com | 213.800.5749

1세대 저당 밥솥

New 2세대
스테인리스 304 내솥
직접가열식



독점

CENTREVILLE 싱글홈

방 5, 화장실 5,1/2 5,908SqFt 5.38Acres
차고 3개와 멋진 캠브릿지 스타일 싱글홈
와싱턴 한인 장로교회(KCPC) 3분거리

\$1,799,000



GAINESVILLE \$676,000

**2011년 새단지 새집. 4,300 s.f.
2 car garage. Brick front.**



독점

FAIRFAX 타운홈

코스트코 근처, 2005년도 2 차고,
방3개, 화장실3 1/2, 3,220sq
잘 관리된 밝고 환한집

\$800,000



독점

MANASSAS 싱글홈

업데이트된 예쁜 단독주택 방3/화2/1,755sf
New Floor, Updated Bath & Kitchen,
Large Deck & Fence. "NO HOA"

\$540,0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